

南揚州文化院三十年史



南揚州文化院

南揚州文化院三十年史



南揚州文化院

남양주문화원 30년사 목차

◇ 문화비전 선언	4
◇ 발간사	5
◇ 축사	
● 이석우 남양주시장	7
●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장	9
● 최재성 국회의원	11
● 박기춘 국회의원	13
●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15
◇ 축시	
● 다산의 혼을 끌어안고 / 시인 홍중기	16
◇ 남양주문화원 30년 발자취	
● 남양주문화원 30년 발자취 / 최상인	20
◇ 사진으로 보는 30년사	29
◇ 문화원을 만들고 지킨 사람들	
● 구중서 고문 회고록	44
● 이기영 제4대 문화원장 회고록	45
● 조원근 제6·7대 문화원장 회고록	47
● 이장수 제8대 문화원장 회고록	50
● 남양주 문화원 역대 임원명부	53
● 남양주문화원 발간 도서목록	64
◇ 남양주문화원 연혁	65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 문화원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발전방향	79
●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제언	93
◇ 전통문화 연구	
● 지역전통문화연구 / 심봉 두레풍물	103
● 전통주 - 제조방법에 대한 소고 / 김성규	157

남양주문화원 30년사 목차

◇ 문학연구

- 춘원 이광수선생의 문학세계 / 권광식 197
- 남양주와 조지훈의 만년유택 221

◇ 남양주시의 과거와 현재

- 사진으로 보는 남양주시의 과거와 현재 225

◇ 남양주 문화원 행사안내

- 농 기신제 257
- 3.1독립만세운동 / 햇불대행진 재현행사 268
- 천마산 산신제 273
- 청소년 향토순례 276
- 남양주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280

[부록 I]

- 지방문화원 진흥법 / 시행령 297
- 남양주문화원 정관 307
-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육성지원조례 319

[부록 II]

- 언론에 비친 남양주문화원 325
- 정기총회 회의록 339
- 이사회 회의록 351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 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7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원



남양주문화원장
이 용 복

지난 1981년 5월 창립총회를 갖고 개원한 남양주문화원이 어느덧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과거의 우리 문화원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서른 살이면 성인을 넘어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양주문화원을 이끌어 오신 패들옥 초대 원장님을 비롯하여 3대 우종길, 4대 이기영, 5대 이보인, 6,7대 조원근 8대 이창수원장님 등을 비롯하여 과거에서 현재까지 남양주문화원을 위해 경주하여 오신 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예술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한다고 할 만큼 문화예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남양주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의 중심에 서 있던 경기 지역에 속하면서 역사 문화 또한 한국사의 기저를 이루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하고 향토사를 발굴, 조사, 연구하여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원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문화원의 성장 과정을 회고 하면서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에서 우리 문화원의 역할을 찾아 지역문화 사업에 충실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문화원의 30주년 중반기념회를 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남양주시 이석우시장님과 남양주시의회 이경애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리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회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저희 남양주문화원과 함께하는 228개 지방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남양주문화원은 항상 시민 여러분들 곁에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남양주시장
이 석 우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장 이석우 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창달을 위해 설립된 남양주문화원이 창립30돌을 맞게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문화원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양주문화원30년사 발간을 58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시는 맑은강과 푸른산, 우리고유의 문화유산과 현대적인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문화의 산실이며 다산의 벌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지난 10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된 이후 명륜도시 남양주를 건설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문화의 중심축을 담당한 문화원의 활동은 오늘날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심어주고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들이 문화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시설 기능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관광·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남양주문화원30년사를 발간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복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발전하는 남양주문화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 이 석 우



축 사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 정 애

향토 고유문화의 진흥과 문화원의 발전 그리고 우리 조상의 숭경과 채취가 벨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에 크게 이바지해 온 남양주문화원의 창립 30주년을 58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80년이란 긴 시간동안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애써 오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남양주시 문화 진흥 및 육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접촉이 늘어 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문화적 역량이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로 깊어가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살 속에서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어지고 문화적으로는 한 지역의 문화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개 지방문화를 의미하던 향토문화가 우리문화의 뿌리인 동시에 민족문화의 원동력이자 우리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화컨텐츠의 핵심요소로 인식되는 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지상의 문화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화 간의 교류와 공존에 대해서 토론하며,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들 속에 깃든,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공동의 가치들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즈음하여 30주년을 맞는 남양주문화원이 문화의 세기를 열어나가는 현장의 지도자로서 향토문화 창달의 주역으로서 향토 고유문화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제발과 전승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화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58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축 사



국회의원
최재섭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여러분, 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재섭입니다.
남양주문화원 창립 30년을 함께 축하드리며, 남양주 역사의
기복과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
원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양주문화원은 (다산문화제)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
정신을 일깨우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누구나
다산 정약용 하면 남양주를 떠올릴 수 있게, 남양주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발전시
켰습니다. 또한 흥유릉의 고종황제, 명성황후, 순종효황제, 사릉의 정순왕후 숭서,
광릉의 세조대왕에 (통(通)기신제)를 올림으로써 우리 천초의 위업을 기리고, 전통문
화를 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남양주의 발전과정과 함께 역사문화의
발전사, 문화행사의 발자취, 남양주문화원 30년 역사가 남양주 문화예술의 발자취입
니다.

최근 30여년 사이 남양주는 명내·효평, 진접지역이 택지 개발되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선과 경춘선 전철이 개발되어 수도권 동
북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내 지구 개발로 인구60만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성장,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남양주가 보다 실속
하고 내실 있는 복지·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자취, 풍부한 남양주
의 문화유적을 알고,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
다. 이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남양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양
주문화원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 이용복 문화원장님에 이르기까지 초대 박동옥 문화원장님을 비롯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신 문화원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문화원 창립30년사를 함께
기뻐합니다.

인제나 처음처럼 문화원 기본이념을 되새기며, 풍부한 남양주의 문화유산을 지키
고 계승하며, 시민들의 관심속에서 함께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남양주문화원으로 더욱 성장하시길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박기훈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기훈입니다.

다산의 얼과 승전이 살아 숨쉬고 한반도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남양주시의 고유문화를 개척하고 보전하고자 지난 1982년 개원한 남양주문화원이 어느덧 개원한지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남양주문화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양주문화원은 많은 남양주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지역의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과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에도 앞장서는 등 지역문화 향달을 위하여 노력 해왔습니다.

그 30년간의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양주문화원 30년사'를 남양주시민 여러분들의 남양주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다고하니 남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용복 문화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남양주문화원 30년사' 발간이 남양주문화원의 한층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남양주의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여러분들의 문화생활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남양주문화원의 개원 30주년과 3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2012년 임진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승천하는 용처럼 만사행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최 종 수

지역문화의 저변 역할을 하고 있는 남양주문화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남양주 문화원 30년사』를 발간하는 것은 새로운 기록문화를 창립하는 의미에서도 매우 소중한 사업입니다.

남양주는 환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근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조선시대 문화유산의 보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비옥한 문화적 토양을 갖춘 남양주문화원이 그 독특한 역사문화자산을 소재로 동구문화제, 다산문화예술제, 대운문화예술제, 3.1운동 기념사업 등과 더불어 향토사연구, 전통민속예술행사 등의 지속적 개최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확산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과 함께 한류바람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문화가 거침없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힘의 원천은 지방문화원들이 저마다 주어진 환경과 일약한 여건 속에서 국가정책과의 근간인 향토문화를 지키고 가꾸어 온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곳은 전통이 살아 있는 생활의 터전으로서 우리의 감성과 정서도 지역의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 계승과 더불어 독창적인 문화발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방문화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층 더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용복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발간한 『남양주 문화원 30년사』가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지역문화창달의 가교역할에 손색이 없으리라 믿으며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의 혼을 끌어안고

(남양주문화원 30주년에)

시인 홍중기

천마산 봉우리
장엄한 빛으로 떠 오른 태양
마침을 열고

천마산 정기(精氣)를 받아
림차게 태어난 남양주

죽령산 예봉산 불암산 수락산
높고 낮은 형제봉을 아우르고
살기 좋은 고장 만드네

1982년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
맞았던 우리들의 문화 되찾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남양주문화원을 열었어요

남양주문화원 30년의
나이는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다산 선생을 보았네

다산 선생 탄신 250주년
2012년은 남양주의 자람이요
한국의 우뚝 서신 선생의
큰 흔적
보배로 빛나는
오늘의 문
남양주문화원으로
찾아온 선물이네
남양주문화원 30년
다산문화재를 만들어
다산의 얼 받들고
퇴계원 산대놀이볼

복원 했던 민정조는 서민들의 애환을
끌어안고 슬펐네

백동욱 우종길 이기영 이보민 조원근 이창수
그리고
이용복은 문화권을 이끌고
지나온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두터운 일기장 써놓고.....

문화의 꽃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아름다웠네

오!
그대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다산을 부르며
퇴계원 산대놀이로
홍겨운 남양주시민으로
만나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로
꽃피워요



홍 중 기

1982년 시집(아기걸음마)로 중단
한국문인협회 문단윤리위원
국제펜클럽본부회원
남양주시인협회명예회장
서라벌문인협회고문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문학예술)부문

여 백

남양주문화원
30년 발자취



남양주문화원 30년 발자취

최 상 인

남양주군이 지난 1980년 4월 1일 양주군에서 분리 신설되자 양주군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태우 과우에 참압산 죽령산 천마산 묘재산 등 명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살간 내륙문화와 수변문화가 공존하는 남양주지역의 생활 문화를 인식하고 향토사의 조사 발굴을 통하여 주민의 고유한 생활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자 남양주문화원이 창립하였다.

1985년 4월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돼 분리되었고 미금읍이 1989년 1월 1일 미금시로 승격 분리되었다가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995년 미금시의 남양주군이 재통합해 남양주시가 신설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고 수도권에 위치해 급속하게 늘어나는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이제 곧 남양주시는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날 시민들의 문화 향수를 충족하고픈 기대가 커져만 가는 현실에서 문화시설의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 사회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높이는데 문화적으로 기여하는 문화 운동을 펼쳐 온 남양주문화원을 이끄는 데 기여한, 30년 동안 9대에 걸쳐 원장 맡고 분의 재임 기간으로 나누어본 문화원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태동기 (1981~ 1991)

남양주군이 출범되자 지역의 문화 창달과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지난 1981년 5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맹렬한 지역 유지들이 바람직한 지역 문화 창달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뜻을 보이며 문화원장직을 고사하여 문화원 출범을 주도한 배동욱씨가 초대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남양주문화원 초대원장 배동욱〉



〈남양주군도서관에서 출범한 문화원〉

남양주군 도서관에 문화원 현판을 달고 순수 민간 주도로 처음 개최한 서예전시회를 시작으로 남양주지역에 문화의 향기를 뿌리기 시작하였다.

처음 개최한 문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역사회에 호평을 듣는데 탄력을 받아 곧이어 문화원 개원 기념 '국립국악원 초청 민속대잔치'를 구리극장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치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자신감이 들게 되었다. 또 '남양주문화'지 창간호를 발간해 기록 문화를 구축하는 역사를 시작하였다. 다음해 넓은 남양주에 세부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수동, 구리면에 분원이 설치되면서 읍면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모였고 '남양주문화' 책자 3천부를 발행하였다.



〈국립국악원 초청 민속대잔치〉



〈남양주문화원 와부지부 창립〉



〈남양주문화원 화도지부 창립〉



〈남양주문화원 진접지부 창립〉



〈남양주문화원 수동지부 창립〉



〈남양주문화원 구리지부 창립〉

문화적 대외 교류도 시작하여 조선6대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가 모셔진 사봉과 비운의 왕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의 장릉을 인식하여 '정령의 상봉' 이라는 주제로 제17회 단종문화제 행사에 사봉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장릉에 이식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영월군과 남양주를 잇는 문화적 가교를 놓는 역할도 시작하였다.



〈사봉 소나무 장릉 이식행사〉

또한 전국에 소재한 문화원간의 교류에도 중점을 두어 명월문화원을 시작으로 양구문화원과도 상호 교류를 맺는 사업도 시작하였다. 1983년에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소재 끼리를 인식하여 구리의 동구릉을 테마로 동구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동구문화예술제까지 확대 개최하여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발휘하게 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제1회 동구문화제〉



〈동구문화예술제〉

〈다산문화예술제〉

문학과 미술 음악 서예 부문까지를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역량을 키워오다가 1986년부터는 봄에는 다산문화예술제, 가을에는 제1회 다산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원이 출범한지 5년 만에 한 해에 2번씩이나 큰 지역 문화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문화원 활동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1989년 우리 남양주 지역의 3.1 독립 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찾아 화도 월산교회에서 3.1절 기념식을 공동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5월 '91대은문화예술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 정착기 (1991~ 1993)

배동욱 원장이 2대에 걸쳐 원장직을 수행하고 1991 제3대 우종길 원장이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개최되던 지역문화행사를 중단하고 안정적으로 펼쳐나갔다. 어느덧 문화원이 창립된지 10년이 되면서 '남양주문화원10년사'를 발간하였다.



1992년 제7회 다산문화제에 다산목민문화대상 개도를 만들어 복민, 율기, 봉공, 애민, 사회봉사 부분을 제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단체 인사를 선발하여 시상 격려하는 것을 제도화 하였다. 1994년 향토의 역사 사료를 찾아 조사연구하여 '대은 변안철과 그 추예들'이라는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해 전국의 지방문화원들에 의해 행하여 오던 지역문화 계발과 진흥 사업에 힘입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문화원이 사단법인에서 특별법인으로 법인격이 확고해지면서 민간에 의한 지역 문화 발전 노력에 큰 토대가 마련된 것이었다. 이에 남양주문화원은 위 법에 의한 법인격이 바뀌어 지방문화원 설립 재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설립 재인가를 받았다.

○ 변환기 (1993~ 1997)

우종길 3대원장의 개인 사정에 의해 남양주를 이거함으로써 문화원장직을 사퇴하게 되는 유고 인해 부원장에 의한 직무대리 기간이 있었다. 이에 따른 여파로 문화원 운영이 참사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으며 1995년도 다산문화제가 개최되지 못하기도 하였던 때가 있었다.



1995년 2월 제20차 임시총회를 열어 이기영씨를 원장에 선출하고 약간의 내용을 겹다오다 11월 제21차 임시총회를 개최해 지난 제20차 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진 구성을 재확정하였다. 이 해에 통합 남양주시가 출범되고 민선시장이 시정을 이끌게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 문화를 진흥하는데는 문화원 활동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1996년 이기영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대은문화예술제와 다산문화제가 개최되었으며 향토사료집 '고산유고' 영인본을 출판하였다. 지역적 정서가 담긴 문화행사 개최와 향토사 조사연구사업 등 문화원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

영의면서 지역 사회에 문화원이 안정되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 도약기 (1997 ~1999)

1997년 1월 문화원이 현 지금동 제2청사에서 금곡동 새마을 회관으로 원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문화원 활동을 하려는 차에 문화원을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한 이기영원장이 건강 악화로 사퇴하게 되어 이보인 고문이 5대 문화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동안 고문역으로써 문화원을 지도 후원하던 이보인씨는 원장으로 추대되면서 문화원 인사들을 이끌고 한여름밤의 음악회, 남양주문화유적 사진전시회, 남양주문화유적 안내 소개 책 발간, 문화유적답사 등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취임 다음해엔 제1회 천마산 산신제, 남양주를 빛낸 역사인물에 관한 사료발굴 및 학술대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의 전통 민속예술인 퇴계원산대놀이를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조안면 시우리에 폐교를 활용하여 향토사료관을 개관하였으며, 시민 송년음악회도 개최하였다.



〈제1회 천마산 산신제〉



〈조안면 폐교에 개관한 남양주향토사료관〉



향토사료 조사 문헌발간사업으로 '석실서원 지표조사보고서', '남양주문화관광 길잡이', '남양주금석문대관' 발간 등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문화사업을 이루어 냈다. 전임자의 퇴임으로 인한 잔여 임기 2년 동안 문화원의 고문직을 맡아 지켜본 문화원 활동에 대한 주제와 역점 사업을 파악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알찬 결실을 맺었다.

○ 성장기 (1999~ 2007)

1999년 조원근원장이 취임하면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토순례단을 모집해 운영하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내 고장의 문화재와 명승 유적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 느끼게 해서 애향심을 심어주는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향토순례단〉



향토사료관에 금석문 탁본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제1회 다산사상계승 용변대회를 개최하여 다산 사상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다산사상계승 용변대회〉



문화원에서 육성 지원하는 퇴계원산대놀이 복원 전승팀이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문화원 내에는 향토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하면서 문화유적답사, 향토사연구반, 사진교실, 일어회화반 등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취임 다음해부터는 3.1절 기념행사에 햇불행진 행사를 추가하여 화도읍사무소

에 일본 순서와 대항해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시작하였다.
 재임기간 8년 동안 문화원을 안정시키고 지역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시기였다.



〈퇴계원산대놀이〉

○ 안정기 (2007~)



〈금곡동 새마을회관〉



〈삼봉농악〉

이장수원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에 잘 운영돼오던 문화원 사업에 더욱 내실을 다져가면서 운영하였다. 그러나 문화원사가 들어있는 금곡동 새마을회관이 재건축에 들어가 지금동 경찰서 입구에 있는 옛 집문소 건물로 이전되어 약 2년간 운영되면서 문화원 운명이 잠시 어수선했지기도 하였다. 재임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영월군의 단종문화제와 전남 강진군의 청자문화제 장관 및 다산 유배지관련 유적을 답사 사업을 펼치면서 양 시·군간 문화 대외 교류 사업을 확충하였으며 조안면의 삼봉농악을 발굴, 전승 사업을 펼쳐 퇴계원산대놀이 이후 제2의 또 다른 민속놀이를 발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 중앙선 전철화 개통으로 도농역에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가 실린 서적들을 비치한 작은 문고를 개설하여 수도권을 왕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양주의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2011년 제9대 원장으로 추대된 현 이용복 원장은 어느덧 칠년으로 성장한 문화원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문화유적 답사 행사를 강화하여 지역 문화 알리기를 통한 정체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 남양주시에 오케스트라단 창설을 지원해 수 회에 걸쳐 공연을 펼치면서 지역에 전통 문화와 현대예술 문화 접목을 시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적 조화를 꾀하는 문화원 활동을 이끌고 있다.



〈도동역 작은도서관 개관식〉

지금까지 지난 1981년 설립된 남양주문화원에 원장직을 수행한 시기최 민적 구분에 따른 문화원 운영의 방향을 중심으로 전통을 지키고 고유한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제발 전승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문화 사업들을 추진해온 노력을 살펴보았다. 남양주문화원이 창립된 지 30돌을 맞으면서 왕성하고 활기있는 30대를 시작하는 문화원을 60만 인구를 눈앞에 둔 남양주시에 새로운 시대의 문화 조류를 개발하고 이끄는 등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고 사랑받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 사업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문화기관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고 사랑받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 사업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문화기관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여 백

사진으로 보는
30년사





〈남양주군도서관에서 출범한 문화원〉



〈전국문화유적탐방 2000. 6. 30〉



〈경기문화유적답사 2000. 11. 24〉



〈문화체험프로그램 2004. 10. 30〉



〈문화체험프로그램 2004. 11. 24〉



〈강릉 선묘장 문화답사〉



〈금석문 탁본 체험교실 1999. 7. 20~8.20〉



〈금석문 탁본 체험교실 1999. 7. 20~8.20〉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 남양주 연축제〉



〈3.1절 기념행사 1999. 3. 1〉



〈3.1절 기념행사 1999. 3. 1〉



〈3.1절 기념행사 2004. 3. 1〉



〈3.1절 기념 횃불행진〉



〈3.1절 기념 횃불행진〉





〈제24차 정기총회 1998〉



〈제25차 정기총회 1999〉



〈제26차 정기총회 2000〉



〈제27차 정기총회 2001〉



〈제28차 정기총회 2002〉



〈제29차 정기총회 2003〉



사진으로 보는 30년사



〈제30차 정기총회 2004〉



〈남양주문화유적 사진전시회 1997.9〉



〈다산사상 강연회 1997. 10. 6〉



〈송충천 특목 초대건 1984. 6〉



〈제1기 향토문화학교 1998. 4. 7〉



〈향토문화학교 수료식 1998〉



〈제1회 퇴계원산대놀이학술세미나 1998.11.26〉



〈다산사상계승 학생총변대회 2001〉



〈남양주 역사 인물 학술대회 2001.10.8〉



〈다산사상 학술강연회 2002.10.19〉



〈조선시대 묘역제도 및 문양 학술강연회 2002.10.26〉



〈석판 및 목판에 관한 학술토론회 2004.11.5〉



〈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 2005.11.25〉



〈제12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제12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제4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제4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제5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퇴계원 산대놀이 발금복원행사〉





〈제20회 다산문화제〉



〈제20회 다산문화제〉



사진으로 보는 30년사



〈조선왕조 궁중음식 전시회 2010.3.15〉



〈사랑의 설날 떡나누기 2011〉



〈전라놀이 체험지도자 양성과정 2010.11〉

문화원을 만들고 지킨 사람들



문화원 개원 30주년을 회고하면서



구종서 고문

1. 설립배경

1982년 남양주에 문화원이 있어야 하겠기에 구리읍의 배동옥씨, 화도읍의 우종길씨, 와부읍의 구종서 3인이 뜻을 모아 문화원을 만들기로 협의하고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은 인사들을 물색하기에 이르렀다. 구리읍의 이상운씨, 이장국씨, 화도읍의 배의현씨, 김창신씨, 와부읍의 이환라씨, 정소일씨 진접읍의 윤해원씨, 조규화씨 등으로 발기인회를 구성하였다.

2. 개원준비

시군문화원 탐방 문화원 활동이 살되고 있는 전국 시군을 방문하여 활동방법, 조직설치 등록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강진문화원, 부여문화원, 마산문화원, 울산문화원, 강릉문화원, 양구문화원, 화성문화원, 강화문화원을 순방 후 이어 30여명의 지도자들을 만나 동의를 구하고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그 후 개원 및 창립총회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3. 내적준비가 완료됨으로

임원들과 협의하여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선위원장을 방문, 협조를 구하고 당시 구연우군수를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구리읍민회관에 사무실을 설치키로 합의하고 임원들이 모금하여 집기를 구입하고 개원을 완료하였다.

4. 창립총회 준비

행사장을 구리극장으로 정하고 행사기금을 모금하였다. 구종서와 우종길 부원장이 50만원씩 이사들이 30만원씩 기증하여 개원식을 성대하게 성공리에 치르고

5. 읍면으로 분원을 설치

회원모집에 박차를 가해 백여명 회원으로 활기치게 운영 발전한바도 있다.

6. 첫 사업으로

동구문화제를 발의 의결하고 제1회부터 3회까지 성공리에 진행하다가 구라읍이 구리시로 승격되면서 동구문화제를 구리시에 이양하였다.

7. 두 번째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다산문화제도 발의, 의결하고 창설하여 30년이상 예술계를 걸하이 운영하다가 어느때인가 시로 이관이 되었다.

8. 세 번째 사업으로

발당초등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그 상소를 이용 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하여 남양주 문화원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민간인에게 이관된 상태다.

9. 개원 30년간

남양주문화원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원장직 사기사건도 있었으며 원장들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명감이 부족한 원장들은 다산문화제와 역사박물관 등을 가볍게 생각하여 때맞긴 참은 한심한 일이 어닐수 없다. 앞날에는 문화발전에 능력과 소신을 가진 바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남양주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추경 창설자 말기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문화원장 회고록

(이기영 제4대 원장님 문답)

※ 당시 문화원장(문화원에 들어오게 된)을 맡으신 계기

⇒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 우리고향에 최고 부자가 양조장을 하는데 그 집이 제일 부러웠었어.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30대가 되니까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벌게 되었지.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설교 내용이 이런 말이 나와,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산수줄 잘 만들어 놓고 비석을 하나 세우려고 보니 6자 밖에 쓸 말이 없다는 거야. "익다가죽었다" 그때 내가 아주 신실한 충격을 받았지. 돈이 다가 아니구나.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듣고 내 인생관을 바꿔었지. 물질적인 게 다가 아니구나. 나도 청신분명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문화원 초대상임고문으로 추대가 되었지.

※당시 문화원장으로서 지역문화를 위해 꼭 해보고 싶었던 사업

⇒ 내가 그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걸음걸이도 편치 않았고,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았어. 그래서 나는 4대 원장이지만 1년도 못하고 사퇴를 하고 이보인고문을 추임원장으로 추대를 했어. 그래서 이보인 고문이 원장으로 세 일을 했지.

※당시 문화원장으로서 가장 기뻐던 일/ 힘들었던 일

⇒ 기뻐던 일은 문화원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가 바로 잡아 놓은게 가장 기뻐했지. 그다음 내가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걸 못했지.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의 관계

⇒ 떨어져 분리가 되어 있었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후원을 해주고, 문화원에서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되는 관계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임원, 문화가족은?

⇒ 우종길원장이 기억에 많이 남아, 학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문화원장으로서는 훌륭했는데 다만 운영방법이 좀 아쉬웠어.

※**현 남양주문화원의 소식을 들으시는지?**

⇒ 몸도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문화원을 잘 못 나오니까 자세히는 잘 못 듣지.

※**다시 한 번 문화원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업?**

⇒ 다시 문화원의 위상을 복원하고 싶어. 시초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나, 향토사료관도 다시 우리가 찾아서 운영하고 싶어.

※**함께 문화원 활동하시던 분들을 만나시는지? 그분들의 근황**

⇒ 만나지는 못하고 우종길원장, 이원하씨는 전화통화만 하고 있지.

※**현재 남양주문화원에게 비라고 싶은 한 말씀**

⇒ 과거의 위상을 그대로 갖고, 분명히 다산문화제는 남양주문화원에서 운영하고 후원원이 남양주시장이 해야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문화원원사도 후원받아서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

문화원장 회고록

(조원근 제6·7대 원장님 문답)



조원근 문화원장

※ 당시 문화원장(문화원에 들어오게 된)을 맡으신 계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한창 짙었을 때니까 정치적인 꿈도 있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문화원에 와서 제대로 활동을 하면 더욱 지역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지역을 알리는데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원에 들어오게 되었지

※당시 문화원장으로서 지역문화를 위해 꼭 해보고 싶었던 사업

⇒단독으로 문화원사를 확보하는 것, 문화원 광성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낼 수 있는 문화원가족을 대폭 확충하고 각 읍,면,동별 분회, 지회 등 지역단위 조직구성, 남양주시 문화원으로서의 위상을 일시키고 싶었는데 제대로 이루어 내진 못한 것 같아

※당시 문화원장으로서 가장 기뻐던 일/ 힘들었던 일

⇒기뻐던 일 보다 힘들었던 일이 먼저 떠오르는데 초대편람부터 직전 이보원원장까지 문화원을 운영해온 스타일이 체계가 안서 있어서 예를 들면 이사회소집을 하면 자문위원, 고문들까지 다 소집을 해서 일반 이사들이 좋은 의견이 있어서 얘기를 해도 그분들 마음에 안 들면 묵살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사회는 이사들만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 고문이나,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필요할 때는 따로 모여도 되는 거니까 우선 이사회부터 제대로 꾸려 나가려고 그분들에게 언박 안하고 순수 이사님만 소집을 해서 몇 번 회의를 했더니 만날 때마다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거야. 그분이 뻐울 때에는 내가 그분들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원장인데 원장한테 고문, 자문이라는 사람들이 막말로 구사하고 황당한 일도 겪어 봤었지. 심지어 다산문화재 행사장에서 전이사가 회비도 안내고 해서 새로운 이사건을 만들면서 메책을 시

있더니 먹살잡이까지 하려고 드는 지야, 이사는 임기가 4년이고 원장이 새로 바뀌면 다시 차기이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거야 한번 이사였다고 계속 이사를 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원장이 바뀌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사를 뽑는 거더라고 얘기를 해줘도 계속 씩씩거리고, 이사회를 이사끼리만 모여서 하는데도 전통 아닌 전통을 꺾었고, 월례회의를 별도로 하기로 했지만 한동안 불만을 토로하였어. 그게 힘들었던 일이었지.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의 관계

⇒자치단체장이 관선단체장으로 있을 때하고 민선단체장으로 있었을 때하고 문화원은 변함이 없는데 단체장의 성격이 180도 달라졌다고 봐야지, 민선단체장은 관여임기가 끝나도 재선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테고 시의 예산집행, 인력활용 등 모든 면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공평하지 못했던 점이 눈에 띄게 되지, 상대적으로 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들도 행동반경에 제한을 받게 되고, 시아가 좁아지게 되고 시에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뜻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시장, 군수 단체장은 관선으로 임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 공무원으로써의 소임을 하면 되니까 선거 의식해서 하는 행동을 할 필요 없는 거고, 자치단체하고 지방문화원 내지는 각 사회단체들의 관계는 오히려 후퇴를 했다고 생각이돼.

※가장 기억에 남는 임원, 문화가족은?

⇒그래도 제일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한 사람들이 역시 이사들이네 그중에서 임영규향토사료관장 그분이 여기지역 출신이 아닌 티 지역 출신이면서도 남양주에 대해 향토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책도 많이 발간했고, 그런데 주위사람들하고의 융화가 취약했던 게 아쉽게 생각되고, 최상안국장 역시 지역을 잘 알고 지역 신문사에서도 근무한 경력도 있어서 공무원사회나 지역사회에 많이 넓어서 사무국장으로 와서 처음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많이 애를 썼다는 것, 그 외에 많이 이사들이 문화원 운영하는데 불신양면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현 남양주문화원의 소식을 들으시는지?

⇒사실 나도 문화원 사무국에도 잘 나오고 그래야 듣기도 하고 내가 묻기도 하고 그럴 땐데 불행스럽게도 내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건강이 회복이 돼서 문화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다시 한 번 문화원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업?

⇒아까 민선단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문화원에대한 단체장의 마인드를 바꿔주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들도 중요한 일부들을 많이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문화원이라 말로 지역문화 향토사, 인물문화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려면 문화원이 활성화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장의 관심이 문화원에 많이 비중을 줘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고 그래서 단체장하고의 관계, 정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문화원 활동하시던 분들을 만나시는지? 그분들의 근황

⇒그동안에 썸 인상도 몇 번 봤었고, 미보금원부원장, 최상인이사도 가끔보고 있지,

※현재 남양주문화원에게 바라고 싶은 한 말씀

⇒바라기 전에 내가 선임문화원장으로써 많이 해줬어야 했는데 못 해준 게 미안하고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 내 후임으로 이창수원장이 4년 임기 끝나고 다음 이용복원장이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 밖에서 내가 듣는 바로는 이용복원장이 상당히 임지가 많이 좁아지고 문화원장으로써 제면도 람 안 서는 것 같고 그런 게 선임원장으로써 아주 더 미안하고 그래,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타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못하고 있는데 건강회복 하는 대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어. 지금부터 남양주문화원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문화원으로써의 위상을 제립을 시키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

문화원장 회고록

(이창수 제8대 원장님 문답)



이창수 문화원장

※ 요즘근황, 가족관계, 건강, 현재 하고 계신일

⇒ 지난 2월 26일자로 원장을 마치고 2011년 3월 14일까지 3년간 명상봉동금위원회회원의위원을 마치고 10월부터 (사)북녘어린이사랑대표로서 북한에 3군데에(라진선봉, 양산, 평양근교) 항공항을 세워 하루 한여명 어린이에게 빵을 직접 만들어서 굶주림에 있는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점심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개발목표로 사회함에 새로운 항공항을 준비 중

※ 당시 문화원장(문화원에 들어오게 된)을 맡으신 계기

⇒ 낙후된 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한 문화불모지를 빛을 보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찬란한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를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당시 문화원장으로서 지역문화를 위해 꼭 해보고 싶었던 사업

⇒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제국의 황제의 용인 흥,유승의 가치를 일깨우고 조 선의 끊이 아닌 새로운 국기건설의 시자인 대한제국의 역사 바로 잡기와 함께 대한 민국 최고의 관광지로의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당시 문화원장으로서 가장 기뻐던 일/ 힘들었던 일

⇒ 모든 임직원들이(이사, 감사, 대의원)임사분란하게 힘을 합쳐서 문화원 사업에 열정을 쏟아 주셨던 점.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의 관계

⇒ 자치단체장의 생각과 문화원의 뜻이 일치하여 다산문화제가 생방송으로 전역에 방

송된 것

※가장 기억에 남는 임원, 문화가족은?

⇒문화원을 아끼는 모든 문화가족.

※현 남양주문화원의 소식을 들으시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문화원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업?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로 바라보며 같이 갈 수 있는 모든 사업.

※함께 문화원 활동하시던 분들을 만나시는지? 그분들의 근황

⇒시시때때로 서로 연락하며 모두들 문화원을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있음.

※현재 남양주문화원에게 바라고 싶은 한 말씀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대처하면 어려운 난관이라는 것은 없음.

여 백

남양주문화원
역대임원명부



■ 제9대 임원명부 (2011 - 2015)

직 위	성 명	주 소
1	원 장	이윤복 오남읍 양지리 168-4
2	부원장	김영순 외부읍 덕소리 주공2차 202-203
3	부원장	어보균 호평동 646 계민씨대파타위 507
4	이 사	무구스남 외부읍 읍치리 389
5		외부읍 덕소리 현대 홈타운 103-503
6		윤기수 진결읍 팔야리 507
7		이병국 진결읍 내곡리 284
8		정명동 진결읍 새야리 736
9		이석준 진결읍 내각리 736-1 우남아파트 다-311
10		홍석규 진결읍 부평리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10-1782
11		유우근 화도읍 사산리 501
12		임우영 오남읍 오남리 선우아파트 104-1102
13		심재근 오남읍 양지리 705-1
14		김완권 별내면 칠하리 418-3 금강프라자 503
15		김경돈 외곡면 - 리 232 성원아파트 106-604
16		문경숙 진결읍 송정리 533-1
17		윤민하 기남동 303-1
18		경길호 조안면 진중리 265-4
19		최상진 호평동 622 두산위브파크 101-903
20		김진길 별내동 441-37
21		손영일 금곡동 67E-83
22		서승원 지곡동 137-8 축산업협동조합
23		우영숙 일대동 688-1
24		김진환 도농동 부영아파트 111-803
25	감 사	손희진 수동면 내방리 151-38
26		윤석훈 화도읍 월진리 51
의대원장	1-2대 배동오	금곡동 158-1
	3대 우종길	화도읍 마석우리 295
	4대 이기영	외부읍 도곡리 1-11
	5대 이보인	별내동 49
	6-7대 조원근	외부읍 덕소리 동부센트레빌 113-1001
	8대 이창수	진결읍 송정리 812 정주건설
고 문	구홍서	외부읍 도곡리 104-3
	엄중오	조안면 조길리 521
자문위원	최봉민	호평동 137-8
	이성애	오남읍 오남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101-503
	한국희	외부읍 팔당리 257-3
	이원스님	진결읍 송정리
	김준택	금곡동 651 다남프라자 407
	이문용	시골 충구 태평로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403
	유지환	진결읍 장현리 호암빌딩 202
	이화진	화도읍 죽현리 산190-7
	오보근	별내동 570번지
	최광현	오남읍 양지리 대림아파트 110-502
	오철숙	오남읍 오남리 선일아파트 203-1506
	이철우	화도읍 마석우리 220

■ 제8대 임원명부 (2007 - 2011)

직 위	성 명	주 소	
1	원 장	이정수	진접읍 용정리 812 삼주건설
2	부원장	이철노	일패동 308
3	부원장	공원하	지곡동 203-1
4	이 사	김영수	와부읍 덕소리 주공2차 202-203
5		무구스님	와부읍 용석리 369
6		이경미	와부읍 덕소리 현대 휴타운 103-608
7		윤기수	진접읍 팔야리 507
8		박성환	진접읍 장현리 395
9		윤석훈	화도읍 월선2리 51
10		서원스님	진접읍 송동1리
11		이훈복	오남읍 양지리 462-4
12		김완권	별내면 철학리 418-3 금강프라자 508
13		김창득	회개원면 의제원리 221 강남아파트 103-283
14		김경돈	회개원면 화제원리 232 힐원아파트 108-804
15		손희경	수동면 내방리 162-38
16		조광식	조안면 송내리 21
17		이보궁	호평동 640 예림씨대마타워 507
18		최상민	호평동 622 부산위브파크 101-903
19		김진장	별내동 441-37
20		손영열	금곡동 878-88
21		사중현	지곡동 197-3 죽산업협동조합
22		우영숙	일패동 868-1
23		이종대	수석동 162-5 호텔촌
24	감 사	김희경	수동면 송천리 527-3
25		유명길	도농동 부영아파트 505-2201
역대회장	1·2대 배동옥	금곡동 158-1	
	3대 우종길	화도읍 마석동리 285	
	4대 이기영	와부읍 도곡리 4-11	
	5대 이보인	별내동 49	
	6·7대 조원근	와부읍 덕소리 봉부센트레빌 118-1001	
고 문	구종서	와부읍 도곡리 1064-3	
자문위원	엄중오	조안면 조안리 321	
	천인주	수동면 외방리 306	
	이우창	화도읍 장현리 두산아파트 103-1303	
	이인근	오남읍 양지리 132	
	이정희	조안면 송촌리 산19-3	
	이수정	도농동 114-21	
	최종원	호평동 182-2 호평부동산	

■ 제7대 임원명부 (2003 - 2007)

직 위	성 명	주 소
1	원 장	조원근 금곡동 LG아파트 108-1806
2	부원장	최홍권 호명동 298-13
3	부원장	주영숙 칠백동 668-1 동일자동차학원
4	이 사	임병규 와부동 팔달리 337-3 향토사료관
5		서용원 와부동 칠문리 115-15
6		무구스님 와부동 을척리 389 백전사
7		김영수 와부동 덕소리 409-2 우신아파트 304
8		권희성 화도읍 북현리 56
9		이창수 진천읍 용정리 812 성주건설
10		지원스님 진천읍 송동1리 경성암
11	감 사	변태용 진천읍 용정리 700
12		이훈복 오남읍 양지리 708번지
13		민경조 퇴계면 퇴계원리 280-2
14		손희진 수동면 내밭리 174
15		엄중모 초안읍 조안리 321
16		최상민 호명동 207
17		김신장 평내동 441-97
18	감 사	윤갑희 금곡동 LG아파트 102-503
19	이 사	이병노 칠백동 308
20		윤민하 지곡동 203-1 국민화원
21		김종덕 도농동 2-1 부영아파트 303-2003
22		이보호 금곡동 LG아파트 102-303
23		조현근 진천읍 강현리 376-5 한양빌딩 3층 두원건설
역대회장	1·2대 배동운	금곡동 158-1
	3대 우종길	화도읍 마곡우리 395
	4대 이기영	화도읍 도곡리 4-11
	5대 이보인	평내동 49
고 문	구종서	와부동 도곡리 1064-3
	박기화	화도읍 한국제강(주)
자문위원	천인스	수동면 외밭리 306
	함영주	호명동 196-4 남향아파트 라동 301호
	이우식	화도읍 송촌리 195
	이석희	도농동 117-12
	강재춘	진천읍 부평리 613-5

■ 제6대 임원명부 (1999 - 2003)

직 위	성 명	주 소
1	원 장	조원근 금곡동 양주빌딩 4층
2	부 원 장	최종원 효평동 299-15
3	부 원 장	우영숙 입석동 668-1 통일자동차학원
4	이 사	이완하 와부동 도곡리 197 삼안로봇
5		서용원 월운3리 115-15
6	부구스님	윤석리 269 백전사
7	강재준	진접읍 부평리 615-3
8	김희성	북면리 55 (수동면 송원리 597-3)
9	나성매	화도읍 금남리 175 (사파리)
10	인경조	외계면면 외계원리 230-2
11	이창수	진접면 용정리 312 삼주건설
12	지베스님	진접면 송동1리 천성암
13	손희진	수동면 내방리 174
14	임병규	와부동 팔당리 237-3 향트사료관
15	조강식	조안면 능내리 21
16	이용복	양지리 706번지
17	이형도	일평동 208
18	윤원하	지금동 124-9 원림학원
19	이석희	도솔동 117-12
20	임광호	조안면 조인리 321
21	김영수	와부동 덕소리 409-2 두신아파트 302
22	김진장	평내동 441-37
23	정준억	도농동 3-1 부영아파트 303-3003
24	김 사	백태용 진접면 용정리 700
25	유금희	금곡동 LG아파트 102-503
역대원장	1·2대 배동옥	금곡동 158-1
	3대 우종길	화도읍 마석우리 295
	4대 이기영	화도읍 도곡리 4-11
	5대 이보인	평내동 49
고 분	구중서	와부동 도곡리 1064-2
	박기화	도솔동 63 한국제대(주)
	임백순	지금동 135-22 남일구축협
가분위원	최종환	일평동 65-5
	최인수	수동면 외방리 306
	함영주	효평동 198-4 남양아파트 라동 301호
	이귀식	화도읍 능촌리 195

■ 제5대 임원명부 (1997 - 1999)

직 위	성 명	주 소
1	임 장	이보인 평내동 49
2	부원장	이환화 와부읍 도곡리 197
3	부원장	이창수 진건읍 용정리 812
4	이 사	최준원 호평동 269
5		유금희 평내동 429
6		조원근 금곡동 419
7		임병규 조남면 시우리 시우부교
8		우영숙 일패동 삼 45 통일자문가합원
9		홍원희 지곡동 124-9 원일합원
10		이석희 도농동 117
11		인택지 도농동 314-3
12		지희운 와부읍 도곡리 1049-13
13		박태현 와부읍 덕소리 528
14		김시한 와부읍 덕소리 538
15		서용권 와부읍 화본리 145-15
16		안종욱 조안면 시우리 126
17		이한중 조안면 권송리 261-3
18		허석태 수포면 임석리 340
19		백희현 회도읍 차산리 177
20		김지민 진건면 송촌리 객성업주식
21		민경조 회재면 회계원리 강남아파트 105-505
22		안만순 진건읍 부평리 523
23	합 사	변태홍 진건면 용정리 700
24		표재하 일패동 89
역대원장	1·2대 배동옥	구리시 수택동 485-7
	3대 우종길	회도읍 마석우리 295
	4대 이기영	와부읍 도곡리 14
고 문	구종석	와부읍 도곡리 1064-3
	임택순	사남동 135-22
	이연익	호평동 205-7
자문위원	한영희	와부읍 도곡리 704-7
	이인수	평내동 권수아파트 8-410
	박기희	도농동 65 한국제대(주)

■ 제4대 임원명부 (1995 - 1997)

직 위	성 명	주 소
1	관 장	이기영 와부읍 도곡리 14
2	부원장	이환환 와부읍 도곡리 197
3	부원장	이창수 진천면 용창리 812
4	이사	김병호 서울 중랑구 중화동 450
5		안종욱 초안면 시우리 126
6		백의현 화도읍 차산리 177
7		윤해원 진천읍 일평리 396
8		지하은 와부읍 도곡리 1049-13
9		이근성 와부읍 덕소리 525
10		변용근 서울 중랑구 면목2동 184-37
11		조규하 진천읍 장현리 381
12		김치한 와부읍 덕소리 528
13		정순영 화도읍 마하1리 290
14		엄철순 구리시 수택동 404-3
15		이인수 평내동 산 95-1
16		우영숙 일매동 산 45 동일자동차학원
17		민경조 퇴계원면 퇴계원의 강남아파트 105-505
18		임병규 일매동 764-1 이복농원
19		이종수 퇴계원면 퇴계원리 208
20		윤원하 지곡동 124-9 월일학원
21		박정복 지곡동 102-25
22		안만수 진천읍 부평리 523
23		송영일 수동면 수산리 574
24		조원장 금곡동 580-1
25	감 사	변태용 진천면 용경리 700
26		표재하 길래동 69
역대원장	1·2대 배동욱	구리시 수택동 487-7
	3대 부종길	화도읍 마석우리 295
교 분	구술서	와부읍 도곡리 1064-3
	이프인	평내동 49
	임백순	지곡동 135-22
	이던희	호명동 305-7
	한명희	와부읍 도곡리 704-7
	봉명진	진천읍 팔마리 315

■ 제3대 임원명부 (1991 - 1993)

직 위	성 명	주 소
1	원 장	우종길 화도면 마의우리 295
2	부 원 장	이화희 와부읍 도곡리 185
3	부 원 장	이연원 진천읍 장현리 576
4	총무이사	정소영 와부읍 덕소리 528
5	이 사	백의현 화도읍 차산리 177
6	이 사	안종옥 조안면 시우리 126
7	이 사	오충구 진천읍 광야리 738
8	이 사	박중호 수동면 김석리 331
9	이 사	안만복 조안면 능내리 523-4
10	이 사	윤해원 진천읍 연평리 396
11	이 사	송영일 구리시 수택동 348-1
12	이 사	김식한 와부읍 덕소리 528
13	이 사	유진익 진천면 진관리 966
14	이 사	변용근 서울 중랑구 민목2동 184-25
15	이 사	염장순 구리시 수택동 452-2
16	이 사	조규화 진천읍 장현4리 381
17	이 사	인백준 진천읍 부영리 533-4
18	이 사	지하문 와부읍 도곡리 1049-13
19	이 사	오연근 와부읍 광답리 265-11
20	이 사	김병호 서울 성북구 석관1동 330-18
21	이 사	김순영 화도면 마의1리 292
22	이 사	이상수 진천면 용정리 812
23	홍보이사	변태윤 지곡동
24	감 사	이준성 와부읍 덕소리 528
이 대원장	I-2대 배동욱	구리시 수택동 437-7
교 분	이성호	도농동 291-1
	이종수	지곡동 159-7 남양주군청
	윤길렬	지곡동 156-8 남양주군 교육청
	김창환	지곡동 20-15 남양주경찰서
	구종서	와부읍 도곡리 705
	이기영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83-245
	이보인	행내동 49
	임백순	지곡동 138-29 남양주축협
	한명희	와부읍 도곡리 703
	홍영삼	진천읍 광야리 315
	이복근	진천읍 앞차리 166-15
	안민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80-6
	이연익	호명동 205

■ 1984년 남양주문화원 상임고문 및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1. 원장	백동옥	구리읍 수택동 419-50
2. 부원장	우종길	화도면 마석우리 295
3. 부원장	한재봉	구리읍 우백동 475
4. 총무이사	장소일	외부읍 천소리 528
5. 이사	윤효식	구리읍 수택동 409
6. 이사	정동진	구리읍 수택동 449
7. 이사	윤해원	진접읍 연평리 396
8. 구리읍 분원장	이장국	구리읍 교문리 194
9. 외부읍 분원장	이환하	외부읍 도곡리 185
10. 미금읍 분원장	김철취	미금읍 금곡리 158
11. 화도면 분원장	백의현	화도읍 차산리 177
12. 진접면 분원장	김용운	진접읍 장현리 5
13. 수동면 분원장	박종효	수동면 임석리 331
14. 원사진면 분과위원장	김문식	구리읍 수택리 614
15. 도서관리 분과위원장	이종진	구리읍 인창리 289
16. 지역사회개발 분과위원장	이상운	구리읍 수택리 468
17. 사회교육 분과위원장	조근표	화도읍 복현리 163
18. 문예진흥 분과위원장	서연원	진접읍 장현리 676
19. 평생교육 분과위원장	이완석	구리읍 수택리 636
20. 대한운동 분과위원장	김용효	구리읍 교문리
21. 향토문화개발 분과위원장	이덕규	화도읍 칠산리 343
22.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윤영식	미금읍 지금리 194
23. 청소년지도 분과위원장	김종규	구리읍 수택리 442
24. 감사	구창서	외부읍 월문리 117
25. 감사	최영환	구리읍 수택리 496-64
상임고문	김영선	구리읍 인창리 411
	김용순	화도면 마석우리 215
	김용식	구리읍 교문리 270
	이기영	외부읍 도곡리
	김순근	구리읍 인창리 314-8
	구종서	외부읍 도곡리 705

■ 초대·2대 임원명부 (1982 -)

직 위	성 명	주 소	
1	원장	배동운	와부읍 도곡리 18
2	부원장	구종석	와부읍 도곡리 187
3	부원장	우종길	진경면 용정리 812
4	총무이사	박명식	
5	이사	황기성	
6	이사	박성권	
7	이사	최만영	
8	이사	김용호	
9	구리읍 분원장	이강국	
10	와부읍 분원장	이환하	
11	미금읍 분원장	구본승	
12	진경면 분원장	이재신	
13	별내면 분원장	김병태	
14	화도면 분원장	백의현	
15	진철면 분원장	김효은	
16	수동면 분원장	박종호	
17	원사관리 분과위원장	김문식	
18	도서관관리 분과위원장	장소영	
19	지역사회개발 분과위원장	김창배	
20	사회교육 분과위원장	구창서	
21	문예진흥 분과위원장	이민재	
22	레저운동 분과위원장	이상은	
23	향토문화개발 분과위원장	서연원	
24	공보활동 분과위원장	조영원	
25	청소년지도 분과위원장	김만태	
26	감사	신만근	
27	감사	곽영근	

회 료	김조진, 문종이, 이길박, 김황준, 김진백, 이백	신광선, 구석희, 구근복, 안수학, 국성일, 영민 영원, 홍남병, 홍민순, 장인식, 채종광, 박태중 김조진, 문종이, 이길박, 김황준, 김진백, 이백	사분위원	남김박, 권공, 권양, 김린, 김한, 김립, 이이, 문 홍수, 손운근, 영은희, 조희중, 손길성, 학 삼웅, 정학, 필영수, 용순규, 명기대, 홍종태 이구, 김침이, 윤침이, 장아침, 권연김, 김!	결핵구락회로오의교결성마침책성 의명실명 원종연동강당영호준학 이구김침이 윤침이 장아침권연김!
명예회원	홍표, 손상우, 손은근, 남철성, 황재은, 임! 명기대, 학연, 송강, 용중의, 영중, 영희, 손순! 조홍순, 유국, 김영이, 조이매, 김오우, 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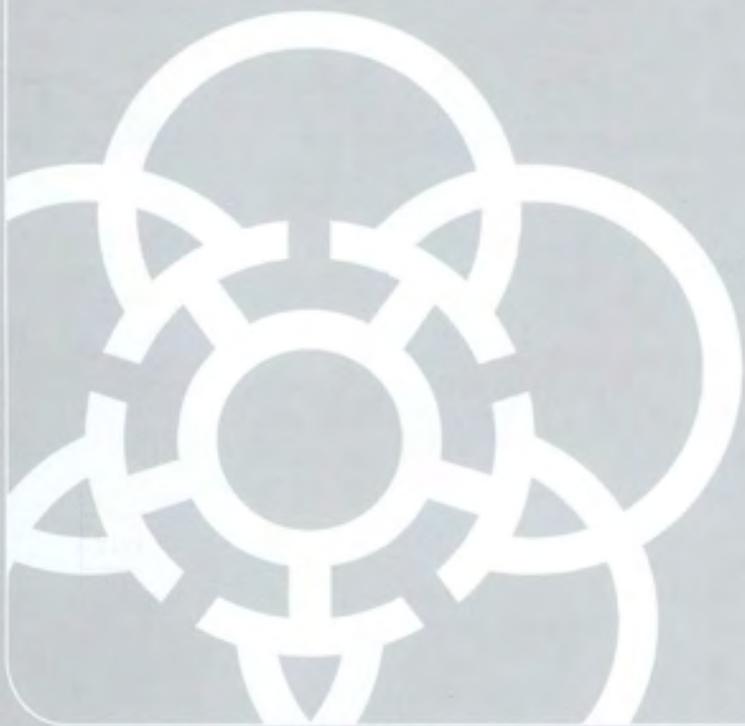
■ 1983년 신 영입 고문 자문위원 및 임원명단

고 문	최영곤 백승광 이광오 안오성	심준경 이기훈 신홍보 이보인	자문위원	이세훈 이상동 안영필 박연만	김종배 김낙태 김기성 김구자
임 위	연영희 이흥수 이안석 정해운 한재봉 김장선 김동진		미금릉 원장 별내면 본원장 병생교육본과 위원장 청소년지도본과 위원장 도시관 관리본과 위원장 이사 이사		

남양주문화원 발간 도서목록

총서	도 서 명	편 저 자	발행년
1	「다산징약용」	배동욱	1986
2	「남양주문화원 10년사」	우종길	1991
3	「대운 변인엽과 그 후예들」	서동천	1994
4	「고산유고」 영인본	임병규	1997
5	「고산유고 한글 해석본」	임병규	1997
6	「남양주의 문화유적」	최상인	1997, 1999
7	「남양주의 금석문해관」 제1집	임병규	1998
8	「석실서원 지표조사 보고서」	윤종일	1998
9	푸른숲 맞은물 「남양주 문화관광 길잡이」	최상인	1998, 1999
10	「남양주시 수해해침수기 모음집」	최상인	1988
11	「퇴계원 산대놀이」	민경조	1999
12	남양주시 역사문화길잡이 「우리고장 남양주」	최상인	2000, 2001
13	「남양주의 전통사찰」	임병규	2000
14	「남양주의 글씨와 서화가」	임병규	2001
15	「남양주 사찰의 주련과 의미」	민경조	2001
16	「남양주의 문화유산과 명승」	최상인	2002
17	「남양주문화원 20년사」	최상인	2002
18	「다산사상 논총」	최상인	2002
19	「남양주의 농원지」	민경조	2002
20	「남양주역사인물연구논총」	최상인	2003
21	「남양주 근대 100년사」	임병규	2003
22	「남양주사찰과 춘원이쟁수」	민경조	2005
23	「다산사상 논총 Ⅱ」	최상인	2007
24	「목민심서 영문판」	윤동관(번역:유명우)	2007
25	「남양주시 지명유래집」	남양주문화원 합토사연구회	2009, 2012
26	「남양주문화 20호 킨마산의 백」		2012

권화원
연구



2011



01.21	총동(고종황제)기신제 봉행
01.24	제37차 정기총회
03.17	남양주문화원 제8 9대 원장 마취임식
03.27	제9대 미술복원장 취임
04.05	제14회 천마산 신신제 개최
04.25	유동(순종황제)기신제 봉행
04.30	대외문화교류(영동-진경문화제 참가)
05.17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라이브콘서트 개최
05.20	사릉(창순황후)기신제 봉행
05.28 ~12	시안 및 청소년 우리문화유적탐사 프로그램 운영
06.07	광해군 추모제 봉행
08.09 ~11	제14기 남양주향토순례단 운영
08.19 ~21	대외문화교류(강진문화제 참가)
09.30 ~10.02	제25회 남양주다산문화제 문예대회 개최
10.04	광릉(세조대왕)기신제 봉행
10.08	홍릉(영성황후)기신제 봉행
11.05 ~10	제25회 남양주다산문화제 문예대회 우수작품 전시회(아트센터)
11.13	고종황제 대경의제 반향기념 문화제 주관
11.19	심포니오케스트라 창간연주회 개최 주요실용음악 사업 법간도사 남양주문화 20호 천마산의 맥 남양주지말유래전

2010



01.21	총동(고종황제)기신제 봉행
02.28	제9주년 3.1독립만세운동 재현 광복대행진 개최
03.31	사릉(정순황후)기신제 봉행
04.16	제13회 천마산신신제 개최
04.24 ~12	시안 및 청소년 우리문화유적탐사 프로그램운영
04.26	유동(순종황제)기신제 봉행
07.21 ~23	제13기 남양주향토순례단 운영
08.07 ~09	대외문화교류(강진 향지문화제 참가)
08.14	광해군추모제
09.03 ~11.08	천리제이 체험지도지(강성과정 운영)
10.01 ~03	제24회 다산문화제 문예대회 운영
10.08	홍릉(영성황후)기신제 봉행
10.15	광릉(세조대왕)기신제 봉행
11.05 ~10	문예대회 우수작품전시회 개최(아트센터)
11.08	문예대회 시상식 개최(다산홀) 천리제이체험지도사 시민강사활동 사업운영 노인실용음악 전습사업 법간도사 남양주문화 19호 천마산의 맥

2009



01.21	홍릉(고종황제)기신제 봉행
02.18 ~20	제12기 황토순례단 운영
02.29	제90주년 3.1독립만세운동제헌 첫봉대행진
03.25	사릉(정순왕후)기신제 봉행
03.29	제12기 천마산신신제 개최
04.10 ~08	남양주시의 우리문화유적당시 운영
04.08	새터투어와 연계한 덕분체험 운영
04.25	유릉(순종황제)기신제 봉행
04.25 ~26	대외문화교류 (영월-단종문화제 참가)
08.08 ~10	대외문화교류 (강진-천지문화제 참가)
08.22	광해군 추모제
10.08	홍릉(명성황후)기신제 봉행
10.25	경릉(세조대왕)기신제 봉행
	전통민속놀이 발굴 지역디지(가) 전시사업
	지방유래집 발간사업
	남양주 삼봉농박 복원 재현화사업
	발간도서 : 남양주문화 18호 천마산의 맥

2008



01.11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우리문화유적당시
01.21	홍릉(고종황제)기신제 봉행
01.28	제34차 정기총회
02.20 ~22	제11기 남양주황토순례단 운영
02.29	제89주년 3.1독립만세운동기념 첫봉대행진 개최
03.25	사릉(정순왕후)기신제 봉행
04.08	제11회 천마산 신신제 개최
04.25	유릉(순종황제)기신제 봉행
04.25 ~26	대외문화교류 (영월-단종문화제 참가)
05.10 ~08.30	시민 및 청소년 우리문화유적당시 프로그램 운영
07.01 ~12.30	다산실학 창의학교 운영
08.01	제22회 다산문화제 사무국구성
08.09 ~11	대외문화교류 (강진-천지문화제 참가)
10.06	경릉(세조대왕)기신제 봉행
10.08	홍릉(명성황후)기신제 봉행
10.10 ~12	제22회 다산문화제 개최
	(원다례 다산대상 시상 및 축하공연(민속놀이) 각종 체험 및 공연 행사, 문예행사(백일장, 마술대회, 서예공모전) 등)
11.11 ~15	다산문화제 문예대상 시상식 (시창, 다산축)
11.11 ~21	다산문화제 문예대회 우수작품전시회 (가)토센터
11.20	경기도 문화원 문화계 방동연수 참가
	발간도서 : 남양주문화 17호 천마산의 맥

2007



01.02		진접문화집 위탁운영
02.28		제88주년 3.1독립만세운동 기념 횡행대행진 개최
03.23		남양주문화원 제7, 8차 완창 마취담석
03.27		제8차 마천수공방 취임
04.19		제10회 천마산신신제 개최
04.28	-11.30	황토문화학교 - 시민 및 청소년 우리문화체질 프로그램 운영
05.12	-13	제10기 황토순례단 1차 운영
05.26	-27	제10기 황토순례단 2차 운영
06.25		탈원핵과기공지원사업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유적탐사)(남양주시 가족야생과 저소득층 아동·대안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등기노인)
10.06	-8	제21회 다산문화제 개최 (재래시회 및 해다래 제1회 다산대상시상식 및 축하공연(별빛놀이) 각종체험 및 참여행사, 문예야행(백일장, 미술대회, 서예공모전 등), 우수문예작품전시회)
11.16		다산문화제 문예대회 시상식 (농업기술센터)
11.16	-11.21	다산문화제 문예대회 우수작품전시회 (아트센터)
		말간도서 - 남양주문화 16호 천마산의 옛 다산사상 논총 1, 백일장서 열문만

2006



02.15		제32차 정기총회
02.22	-24	황토순례단 운영
02.28		제87주년 3.1독립만세운동 기념 횡행대행진
03.31		제9회 천마산신신제
04.22	-09.30	황토문화학교 - 주말가족단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만속5일장, 문화체험, 전통민속놀이, 공연관람 등)
10.14	-16	제19회 다산문화제 개최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제 전시 및 공연) 말간도서 - 천마산의 옛 15호 다산의 방자리를 찾아서

2005



02.18		제31차 정기총회
02.22	-24	제8기 황토순례단 운영
02.28		제86주년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및 횡행대행진
04.11		제8회 천마산신신제 개최
04.23	-12.30	황토문화학교 - 주말가족단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만속5일장, 문화체험, 전통민속놀이, 공연관람 등)
10.07	-09	제19회 다산문화제 개최 -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제 전시 및 공연
10.07	-09	2005 실학추진 실학제철 행사

10.12 ~11.15 통합보편기금지원사업 (문화소외 지역주민 대상 문화유적답사)
 (수동정매인사실 두리원 및 후포지원봉사지 퇴계원노인회 천관동
 노인복지회관 수강생 가양초교 도동노인회 외부노인회 환경청회
 한마음회 등 320여명 참여)
 밭간도서 전마산의 맥 14호
 남양주문화사/남양주 사랑과 후원 이장님

2004



02.19 제30차 정기총회
 02.24 ~26 제7기 향토순례단 운영
 02.29 제85주년 3.1독립만세운동기념식 및 햇볕대행진
 04.21 제7회 전마산 산신제 개최
 06.24 ~25 전국문화유적탐방 (경북국제관광민속촌 및 단오제 참관)
 08.01 ~11.30 남양주시 문화유적답사 운영
 06.05 ~11.30 향토문화학교 - 주말가족단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속5일장 문화체험, 전통민속놀이 공연관람 등)
 08.01 ~11.30 통합보편기금지원사업 (문화소외 지역주민대상 문화유적답사)
 (수동정매인회 금곡동노인복지회관 퇴계원노인회 금곡동노인회
 외부노인회 환경청회한마음회 등 320여명 참여)
 09.16 ~17 제5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해설축제 참가(수동중-웃다리문화) 연호
 두수전통민속놀이 지원(성석고등학교-퇴계원산대놀이반 육성지원)
 10.10 ~12 제16회 디산문화제 개최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제 전시 및 공연)
 밭간도서 전마산의 맥 13호, 남양주문화재단과 수정보안 2권발간

2003



01.24 제29차 정기총회 제7대 부위원장 조원근원선 재방 선출
 02.25 ~27 제6기 향토순례단 운영
 02.28 제84주년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및 햇볕대행진
 04.04 제6회 전마산산신제 개최
 06.04 ~5 전국문화유적탐방 (경북 단오제 참관)
 06.05 ~11.30 향토문화학교 운영 - 주말 가족단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속5일장 문화체험, 전통민속놀이 공연관람 등)
 10.05 ~7 제17회 디산문화제 개최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제 전시 및 공연)
 밭간도서 전마산의 맥 12호

2002



02.19 제28차 정기총회

02.24		제22회 월간월성 성공기원 남양주 연회제 개최
02.25 -27		제6기 향토순례단 운영
02.28		제63주년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및 향토대행진
04.06		청렴승식수품관 및 단종제 향관
04.15		제5회 천마산 신신제 개최
07.28 -29		전국문화유적탐방 (경진-청자문화제 향관)
09.28 -29		제4회 경기도 청소년만족예술제 참가
10.04 -06		제16회 다산문화제 개최
10.15 -16		제9회 전국청소년만족예술제 참가
11.08		제12회 다산문화제 시상식 및 작품전시
11.18		천행민속놀이 및 예능활동지원사업 (초등학교 5명, 중·고등학교 10팀, 일반 2명) 향토문화학교 운영, 주민가족단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구현화 성, 용주시립 문화유적탐방 5회, 향토체험교실, 민족5갈래, 문화재 관, 천행민속놀이 공연 및 관람 등)
11.19		다산사실 경연회 (향토사료관)
11.20		요약의 제도 및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 강연회 (향토사료관)
11.25		남양주 조선시대 문명학박람회 (향토사료관) 별간도서 남양주문화재단과 다산사실학술총론 문화원20년사 제16회 다산문화제 문예대회 우수작품집 남양주의 눈썹 요 천마산 맥 11호

2001



02.16		제17차 정기총회
02.21 -23		제4기 향토순례단 운영
02.28		제62주년 3·1독립만세운동 기념 향토대행진
03.27		제4회 천마산 신신제 개최
04.05		청렴승식수품관 및 단종제 향관
07.30 -08.01		전국문화유적탐방 (운천도유적지 향진-청자문화제 향관)
10.06 -08		제15회 다산문화제 개최
11.12		제15회 다산문화제 시상식 및 작품전시
05.15 -10.27		우수전행사업 - 신성고등학교 퇴계왕선대놀이 전승반 향토사료관 민족문화자료 유물수집사업, 향토문화학교 운영(향토사 연구탐사반, 연꽃수재회(대행진, 사진반, 퇴계왕선(대놀이)전승반, 꽃 꽃이반, 경기문화유적탐방반) 별간도서 남양주의 글씨와 시(하) 남양주 시골의 풍경과 의미 천마산의 맥 10호

2000



02.18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	--	--------------

02.22 -24	제5기 향토순례단 운영
02.29	제4주년 3·1독립만세운동기념 책발행행사
04.04	정령송식수관과 및 단종제 참관
04.07	제3회 천마산 산신제 개최
06.30	산국문화유적탐방 (공주지역, 백제문화권 탐사)
08.25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전북민속연구소 협력 및 소장 및 위임 개편
09.23 -24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10.05 -7	제1회 디산문화제 개최
11.10	제1회 디산문화제 시상식 및 작품전시
11.34	생신적 신진생활문화 강연회 개최
	향토문화학교 운영 (향토시연구당시반, 일어난 사진반, 퇴계원산대 놀이전승반, 꽃꽃이반, 경기문화유적답사반)
	발간도서 : 우리고장남양주 남양주의 전통서찰, 천마산의 맥 3호

1999



01.25	제25차 정기총회개회(임원선출, 임장 조영근, 부원장 최출연, 우영숙)
02.07	제1기 향토순례단 운영
04.07	제6대 조원근원장 취임
04.17	제2회 천마산 산신제 개최
04.19	명월 장릉 '정령송 식수'
04.17 -06.30	향토시연구팀 글씨문화본체험교실
06.16	청소년문화예술체험교실 (경기문화재단주최)
06.19	제1회 디산사상계승 출판대회
06.24	전국문화유적 탐방 (인동하회마을)
07.24	문화유적 사진 전시회
08.07	글씨문화본체전시회
09.01 -02	퇴계원산대놀이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10.05	제3회 녹색이거미 선방대회
10.06 -08	제13회 디산문화제개최
10.07	제2회 디산사상계승 출판대회
10.08	남양주역사인물 화살대회 개최
10.23 -24	경기북부지역 민속예술공연 한마당 (대부출장소 주최)
11.10	제13회 디산문화제 시상식 및 작품전시
12.03	청소년 남양주시내 문화유적 탐사
12.16	경기도지회주최 제2건국운동십천 백일장대회 참가
	향토문화학교(꽃꽃이연구반, 산대놀이전승반, 일어난사진반, 경기문 화유적답사반), 퇴계원산대놀이 화원 및 전승공연
	발간도서 : '퇴계원산대놀이' 보원자료집, 천마산의 맥 4호

1998



02.16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	--------------

09.30	제1회 천마산 산신제 개최
09.25	남양주 의사인문학술대회
09.22	제12회 다산문화제 및 향토사진·유적박람회 전시회
11.25 ~25	제1회 천개민선대놀이 북망 리움제이리나 개최
12.18	남양주 향토시립관 개관 (시우박물관)
12.24	수해재원수가 공모전 시상식 개최
12.28	시인을 위한 송년 음악회
	팔간도서 남양주 도립관광 길잡이, 생활서원지표조사보고서 금석문대리1집 천마산의 맥 7종

1997



01.22	문화원 인사 이전 (재계에서 새마을회관으로 이전)
02.10	서울대 박물관 방문 - 선대발 전시 사업
04.01	고산유고 번역본 1,000권 팔간 배급
06.27	제1차 임시총회 - 민보민원장 추대의결
08.30	한여름밤의 음악회 개최
09.08	이거영원장 취임식 개최
09.08 ~27	남양주문화원 유적사진 전시회 개최 - 남양주문화유적 안내 책자발간
09.30	천동관수미술연구소 설립 - 민경조(장시)
10.02 ~30	제11회 다산문화제 개최
10.29	청소년을 위한 '토요일음악회' 개최
11.10	제11회 다산문화제 시상식 및 직공전시회
11.19	청소년 향토문화유적탐사 - 서부권
11.24 ~25	전국문화유적탐사 (문화가족 전남 - 강진 배영)
	팔간도서 남양주의 문화유적 고산유고 번역해석본 남양주문화원

1996



06.07	이거영원장 취임
06.11 ~21	'96 대은문화예술제 및 경로잔치 (남양주 학생예술발전회)
06.21	'96 대은문화예술제 시상식 및 경로잔치
10.07	제10회 다산문화제 개최 (강변회 기념식 (새마을회 등))
12.01	향토사료집 '고산유고' 영인본 발간

1995



02.10	제1차 정기총회
	제1차 임시총회 영원선출 의결
11.02	제1차 임시총회 영원선출 재확정 결의 (원장 이거영, 부원장 이원희, 이창수, 감사 반태호, 서방)

1994

- 05.23 '대은번안골 선생과 그 후예들' 책도사료집 발간
- 07.18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제14차 임시총회
- 08.02 남양주문화원 설립 제1차
발간도서 '대은번안골과 그 후예들'

1993

- 04.02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 08.30 구남선 후원회 개최

1992

- 02.02 제15차 정기총회개최
- 10.15 제7회 다산문화제 및 제7회 다산국민문화대상 시상
- 10.26 조안면 근동재 후원 개최

1991

- 02.08 유치원 초·중·고 우수졸업생 선발시상
- 02.26 제14차 정기총회 제3대원장 무정길 퇴선
- 04.17 문화원 임시 마당 (구리읍에서 남양주 보건소 2층으로 이전)
- 04.27 제1회 풍망신문사 소녀소녀림창단 정기연주회 후원
- 05.10 '91대은문화예술제 지도교사 협의회의
- 05.23 '91대은문화예술제 및 경로잔치
- 05.28 경기도내 문화원장 회의 (부천문화원)
- 06.27 다산장학용의 달 기념 작품공모전 시상식
- 06.27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초대 리카 배덕숙원장 3대 부총장원장 김희
일석 (군청감당)
- 10.16 제6회 다산문화제 전야제 다산사상 강연회
- 제6회 다산문화제 기념 문화행일 리홍식, 봉선사
- 10.17 제6회 다산문화제 개최
- 11.15 제6회 다산문화제 시상식
발간도서 '남양주문화원 10년사'

1990

- 02.28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 03.01 제71주년 '91독립만세운동 기념행배
- 05.24 '90대은문화예술제 및 경로잔치
- 10.16-17 제5회 다산문화제 개최
- 10.16 문화원창립 10주년 기념 제5회 다산문화제 통일기념 다종식(봉선사)

1989



- 02.19 제1회 민속시전 촬영대회 (원경시전방송회 - 영구동)
- 03.19 제1회 민속시전 촬영대회 시상식
- 03.01 제70주년 3.1독립운동세운동 기념식 개최 (철산교회 주최)
- 03.05 민속시전 촬영대회 후원 심사 시상식
- 05.20 '다산의 불광' 발간
- 05.24 ~25 제6대온화예술제 및 경로잔치 (서동삼육고)
- 09.24 ~25 제4회 다산문화제 개최
- 10.28 제7회 여조 고향제 제례봉행 (구리남양주문화원 후원)
- 12.19 청소년 문화강진 개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
발간도서 '다산의 불광'

1988



- 05.26 제6회 다산문화예술제 및 경로잔치
- 06.28 제7회 다산문화예술제 시상식
- 08.19 남양주문화원 영구문화원 교류 발은
- 09.15 ~16 제5회 다산문화제 개최
- 09.15 제8회 다산문화제기념 다산시상일련회 (영순교 광명)
- 09.15 ~23 제8회 다산문화제기념 낙천초창 도예대전
- 10.28 제3회 다산문화제 미술화가 시에 백일장 시상 (군북회백일)
- 11.19 안주방씨 시전 9차 착선
- 12 친침본원 창기홍희 (친침가)
- 12.19 청소년문화강진회 신임강진회

1987



- 02.26 제6차 창기홍희
- 05.28 제5회 다산문화예술제 및 경로잔치
- 08.29 강원도 시단법인 영구문화원 남양주문화원방문
- 10.12 ~14 제2회 다산문화제 개최
- 11.11 제2회 다산문화제 시상식 (백일장 백성대의 미술화가대회)
- 10.13 평화통일기원 타종회 (분선사)
- 10.14 제2회 다산문화제 개최 (다산유적지)
- 10.25 제6회 영구문화제 개최 (영구동)

1986



- 02.14 청소년 생활지도 문화강진회 2회
- 03.27 신민문화관 선진지견학 (영월 - 강주문화원) 2차원 참가
- 05.27 제4회 다산문화예술제 및 노인문화제 개최
- 05.28 제4회 다산문화예술제 및 경로잔치 개최

- 06.30 제4회 다산문화예술제 시상식 및 청소년 문화캠프
 - 09.19 제5회 경기도지사기 만속경연대회 후원
 - 09.19 제4회 동구문화제 기념 평화통일기원대축식 (봉천사)
 - 11.14 제1회 다산문화제 개최
 - 12.05 제4회 동구문화제 및 제1회 다산문화제 시상식 (교육청광교)
- 발간도서 : 다산정약옹 구리남양주문화 5호

1985



- 02.19 초대자기 시화전(장수분) 개최
 - 03.16 선진지연학
 - 05.30 제3회 동구문화예술제 및 경로잔치 (삼육고강당)
 - 06.21 제3회 동구문화예술제 시상식 및 문화기초 연주회
 - 06.21 남양주를 빛낸 분들의 환영식 (군청강당)
 - 10.17 -18 제3회 동구문화제 개최 (동구동)
 - 12.02 제1회 내고장문화논단 및 제5회 동구문화제 시화 시예 백일회
시상식 (군청강당)
- 발간도서 : 남양주문화 4호

1984



- 03.30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광주진박사 본원개방
 - 05.30 제2회 동구문화예술제 개최
 - 06.19 백남자 총선당: 초대자기전(구리남민회관)
 - 08.22 -28 불우이웃돕기 일회시청 (구리중앙극장 앞)
- 발간도서 : 남양주문화 3호

1983



- 01.28 경기도대 문화원 원장단 결의회 (문화원)
 - 외부 회도 친척 친간 수동 구리분원 개원
 - 03.26 '남양주문화' 3,000부 발간
 - 03.26 남양주문화원 회관연수교육
 - 04.05 -07 제17회 단종제 '철혈의상봉' 소나무 (이석(시골·침방))
 - 07.14 제1회 동구문화제 개최(서울삼육고등학교 강당)
 - 10.19 -20 제1회 동구문화제 및 초·중·고 사생대회 개최(동구동)
 - 11.03 제1회 동구문화제 시상식
- 발간도서 : 남양주문화 2호

1981



- 06.25 남양주문화원 창립총회 개최
- 07.18 제1차 창립총회 (다산묘소에서 개최)

08.10	남양주군 도서관 지하에 문화원사무실 입주
10.09	이주영을 '새종제' 작가 지명강연회 교환
11.11	문화원 개원기념 서예전(군립도서관) 개원식기념 국립국악원초청 민속대잔치(구리극장)
12.02	구리분원 개원회의
12.09	고문 및 자문위원 회의
12.13	남양주문화원 법인설립 회
12.14	정거총회 별간도시 남양주문화 향리호 발간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문화원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발전방향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제언



여 백

문화원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발전방향



문화원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발전방향

가.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 초부터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초창기 미국 공보원으로부터 기자재 등을 지원받은 바 있는 지방문화원은 말 그대로 자생적이었던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의존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따르면 이 당시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은 있었으나 전적으로 봉사자원에서 지역 문화활동을 전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화정책이 시작된 시기인 격동의 60년대 들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어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공공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 법을 바탕으로 향토문화 계발과 전통문화 진흥사업을 전개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법에서의 지방문화사업자로서 지방문화원이 규정되고 지방문화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협조 하에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 향토문화를 계발 보급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규정되고 있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근거한 지방문화원은 그 후 지방자치체가 착근되기 시작한 1984년 7월에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새로이 제정되어 보다 분명하게 지방문화원의 법적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의미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지방문화원의 활동 범위가 또한 명시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과 보급 보존 권송 및 진양
- (2) 향토사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과 보존
- (3)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문화 육성
-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상의 사업내용 규정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이 할 수 있는 문화사업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향토문화는 물론 문화 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예술 활동보다는 일반적인 문화 활동을 지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드물게 작생적으로 생겨 난 민간조직인 문화원은 오늘날 법적 근거까지 갖고 있지만 동시에 급격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능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왜냐하면 사회변화에 비추어 보아도 원조로 국가의 근간을 힘겹게 이니거던 50년대에 설립, 산업화를 지향하던 근대화 지방문화진흥법이 제정, 보호를 받게 되었던 만큼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향후 지방문화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날 지방문화원의 수, 독립원사의 마련, 재정적 지원 내용 등에서 이미척지 않은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추구에 맞추어 그에 부응하는 문화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감과 맞물리면서 오늘날 나시 한 번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지금까지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과정을 겪어 온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이 당면한 현실은 과거보다 더욱 격렬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로 요약되는 변화과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 사회 경제적인 환경 및 여건 역시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정책 역시 그 방향과 내용에 있어 변화가 심했으며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정책 역시 과거의 그것과 크게 나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화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원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가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자.

1) 세계화의 심화 : 세계와 지역의 의미와 중요성 부각

우선 세계화의 심화는 잘 알려진 대로 삼업분화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유

행하는 문화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가치에 새삼 눈뜨도록 하는 계기를 가지오기도 한다.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매체의 발달은 문화를 소비로 간주하도록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삶과 관련이 없는 문화를 소비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및 지역문화의 발전은 이러한 문화적 현상에 대한 반발로 대두된다. 또한 정치적 공감을 중심으로 한 지역중심의 문화소비경향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강화될 움직임도 엿보인다. 최근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한류열풍도 따지고 보면 세계화의 심화과정 속에서 공감대를 중심으로 문화소비행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적 질서 나이가 지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 및 이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변으로부터 공간을 얻는 문화는 일정부분 그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방문화로 불리던 한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들의 가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그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뒷받침하는 이론 및 운동이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5년 10월에 유네스코에서 공포된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에 잘 나타나있다.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문화는 강하고 약한 혹은 지배적인 패배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가 그 동등한 가치를 부여 받아 공존을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문화를 재생산해 내는 자체능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화 다양성의 의미는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가치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부각

고급문화를 비롯한 몇몇 주도 문화가 가치를 결정했던 시대로부터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태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제협약이 유네스코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향토문화 토속문화의 가치는 물론 개별국가의 문화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도 문화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문화다양성 논의가 진행될수록 우리나라 내의 향토문화와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이 증폭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외국인들의 문화정책성 보호 및 문화 활동 보장 중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지방문화활동에 영향을 주고 받을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한류와 동아시아 문화지형의 변화

이러한 문화다양성 가치의 확산은 당연한 결과로서 한 지역 및 국가 내에서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대미문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우리문화의 확산은 상당한 영향력을 이 지역에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류의 확산 및 아시아지역을 겨냥한 우리문화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 문화지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의 영향은 비방 곳곳을 관광지로 인식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위한 연소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및 우리문화에 대한 동아시아에서의 관심의 증가와 함께 아시아를 향한 우리 문화정책의 변화 역시 아시아권 문화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증가는 우리의 지역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단위의 아시아권 국가 및 지역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이는 다시 우리 지역문화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문화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역시 하나의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4) 정치 사회적 여건변화 심화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더불어 남북 간의 문화 교류도 전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남북의 지역간 문화교류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도 연변 등 중국을 경유한 남북 간의 문화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의 발전은 남북의 지역 간 문화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예상 각 지역은 이러한 현실의 도래를 준비와 역할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간의 문화교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문화가 문화정체성의 중요한 바탕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당성의 주장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될 것임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해 왔던 우리도 이런 다양성의 문제를 구체적 인 현실로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인 구구성에 있어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에 국한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문공 인 수준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작이나 세계적 차원에서 다양성 문화적 기풍되고 우비의 현실에서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수로 증가한다면 문화적 차원에서 문제를 심각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의 문화원 역시 이러한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를 비롯한 외국인 문제를 문화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치사회적인 여건변화는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와 같은 특수한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령사회 시대로의 진입 역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의 노인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생산력의 저하로 인한 각종 문제의 발생은 이미 여러 곳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을 오늘날과 같이 최소한의 복지적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총체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삶의 환경과 행적이 다르게 살아온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가 오늘날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 많아지는 고령사회에서의 문화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문화원이 고령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령사회에서의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고령사회에서의 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성찰은 여가시간의 확대라는 사회적 트렌드와 더불어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변화가 될 것이다.

5) 여가시간의 확대 및 자기개발 욕구 상승

우리나라 사회적 여건 및 현실의 변화 가운데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특히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주민들의 여가시간 확대와 이를 계기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

에 어떻게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이 부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도시민들은 지역으로 체험의 기회를 얻거나 이가를 보내기 위하여 떠날 것이며 지역민들은 지역민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의 여건 및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지방문화원의 증장기 발전방안과 맞물려 주목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이러한 여가시간의 확대가 미니더라도 지역민의 상승하는 문화욕구 및 이의 충족방안은 국가 및 지역의 중요한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시설의 확충 각종 프로그램의 공급등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인 정책적 부응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지역이 맞고 있는 난제로 이것은 일정부분 지방문화원의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시설 및 프로그램의 공급과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 그리고 전문 인력의보완 등이 모두 이러한 차원에서 제기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지방문화원의 증장기발전을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6) 사회전반의 문화 복지 수요 증가

우리사회에서 문화욕구의 팽창은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정보화와 다매체화, 소득의 증대 및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문화물에 접하는 기회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열려 있는 오늘날 문화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지은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 소득, 수용능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문화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과 심각한 격차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접근은 단지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창의적인 역량을 갖도록 하여 살브미 기회를 넓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욕구 증가는 곧 국가와 사회가 부분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문화가 복지적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간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및 기회의 불균형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실의 심화는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야할 과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국가균형발전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면서 문화의 비중도 중요요인으로 부각되는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의 문화원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 문화원의 역할은 과거의 향토문화 보존이나 지역정체성의 구심체로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 복지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이자 기관으로도 변화 되어야 한다.

2) 자율 참여 분권의 정책이념 및 지역 균형 발전

위와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미흡 수 없는 면면의 도래에 주목하면서 또한 국내의 정책적인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주요 방향은 자율 참여 분권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이념은 정부청의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며 문화정책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야기했다. 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 권한 및 지역문화정책의 강화 등이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시민사회가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은 물론 문화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정책이념은 지역의 자치단체 정책 및 행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정책에서도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권리를 가급적 보장하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념의 구체적인 실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특히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조되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강조 등과 부합되면서 지역문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념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의 강조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게 하고 지역균형위원회 라는 조직을 출범시켜 문화예산의 일부를 이 조직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에 문화예산을 포함시킨 것이 기기에 해당되며 이것은 현재 지역문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있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 이념이 반영된 문화정책이 지역문화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개별 문화원에서는 발전 계획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8)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 모색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문화다양성의 논의의 바탕에 놓여 있는 이념 가운데 하나는 발전의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발전은 환경과 문과가 경제와 함께 중요한 용인으로 고려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배려하면서 각기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발전의 가치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우리 문화원의 성장이 과연 개발위주의 발전시기에 크게 성장한 점을 고려하고 또 그에 어울리는 여러 조직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발전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새롭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기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여 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서서히 집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은 새로운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로서, 또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할 가치의 하나로써 문화정책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방문화원의 과제로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지야 할 것이다.

9) 정부의 중장기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이러한 정책이념 혹은 발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념의 수용문제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명목에서의 변화 역시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주목해 보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문화정책으로서 창의 한국이나 예술의 힘과 같은 중장기 발전 정책 비전서에 담기 노내요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비전서에서 지방문화원을 어떻게 다루고 지역문화정책을 어떻게 고려하는 지를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시행하는 정책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들에 우선순위로 인적 자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다시 지역문화정책 및 지방문화원의 여러 사업과 직간접의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오늘날 추진되고 있는 지역문화○인 흥법과 같은 사안도 그런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다.

아래의 표는 참여정부가 표명한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본 구도인 만큼 문화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자생력 배양을 통한
특색있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구현



지역문화발전
체제 구축

지역문화거점
확충과 환경조성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확산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

지역문화육성
재원확충과
합리적 배분

여기서 잠시 위의 표가 보여주는 기본 구상을 알아보기로 하자. 협의한국에서 제시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비전에 따르면 지역의 궁극적 문화발전상은 "자생력배양을 통한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체제구축, 거점확충, 프로그램개발, 인력양성, 재원확충 및 배분 등이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중심으로 지역문화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전환 유도
- (나) 주민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공간 운영
- (다) 지역적으로 특색 있고 자생적인 문화프로그램 개발기반 마련
- (라) 민간의 문화역량 강화와 지식문화 전문 인력 양성
- (마)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재원 확충과 행정성 합리성의 원칙에 입각한 재원배분

다. 지방문화원의 문제 및 발전 방향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은 그 역사적인 전개과정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비관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중심의 개발과 발전전략이 최우선시 되는 열악한 국가적 지역의 현실에서 문화라는 장르를 고수하며 향토문화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증진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등 결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공영역으로부터의 지원에 있어 특

별한 위치를 확보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보아 현재 문화기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이 지속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위낙 외적 환경의 변화가 심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 문명사적 변화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변화는 물론,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려는 새로운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활동의 바양모가 내용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방안모색은 지방문화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지방문화원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지방문화원의 문제점

가)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유연성 부족

주지하다시피 지방문화원은 개발시대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변화하는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해 오면서 경쟁력을 키워온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성장과정에서의 가치를 성찰하여 새로운 가치와 지향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현실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문화원은 일정부분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문화원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점 발견과 방향을 정립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영역의 지원에 대한 의존 부분이 크며 또 오랜 시간을 지원에 의존 방식금로 운영되어 온 것도 유연성 부족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 부족은 결국 지역의 문화육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동원할 자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파인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프로그램, 재원, 전문 인력 부족 등이 모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유연한 접근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으날아도 되는 상황에 존재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 설정의 부족

모든 조직의 건강성은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과 그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보하고 자원을 동원하려는 노력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

원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의 미래비전은 당면한 문제해결 자원이 아니라 국내외 자원의 변화를 바라보고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변화하는 여건을 파악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 주체의 통합 및 연결부재

문화원이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단체이며 또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문화원으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게 독점적인 세력으로 비추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단체와 활동의 활성화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원칙 없게 발전과정에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배타적인 기능이 있다면 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세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전을 조성하는 일 역시 문화원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 여러 문화단체와 활동세력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작업 역시 문화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한다.

2) 지방문화원 증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

가) 자생력 강화

지방문화원이 증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단체의 역사는 대체로 공공영역의 보조에 의존에 의해 성장해온 만큼 지방 문화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공공영역으로부터의 밀착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지원이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이 과연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보조 없이 얼마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빈 설의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문화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임을 전제한다면 지방문화원의 자생력은 언제나 중요한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생력쟁 의란 주장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자생력을 위한 증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하겠다.

이를 위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협조를 강화하여 기관운영에 일부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의 문화원 역할과 지능 가운데 공공성 영역과 수익성 창출 가능영역을 확실히 구분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경영개념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개방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운영

지방문화원은 앞서 거론한대로 60년대와 90년대에 그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여건에 비추어 지방문화원이 나아가 할 방향과 활동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 여건이 오늘날 너무 변화했기 때문에 개별 지방문화원은 각자의 입장에서 중상기적인 발전계획 및 전략수립을 모색하여야 한다. 시대에 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외부에 대한 개방성의 확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에 입각한 활동 등이 그 주요방향이 될 것이다. 단지 열정이나 지역에서의 영향력에 의한 활동만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지역과 함께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의 장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 지방문화원의 정체성 확립

앞서 말한 대로 향후의 시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타의 정체성을 용인하고 타와 활발히 교류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것은 미하기 어려운 하나의 시대정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은 지방문화원 활동을 위해서도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방문화원은 향토분화를 보춘 발굴함으로서 지역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문화 정체성이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단지 향토문화보존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부분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냄으로서 지역문화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문화의 바탕이 되는 향토문화 등과 보존계승과 더불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지방문화원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문화원 자체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와 다르게 지역 간 발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문화원간

적차상파는 오늘날 문화원공존에 있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권
 쟁적 차이로 여건과 활동 내역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정체성
 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미려한 정체
 성의 바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것은 문화원간 격
 차 해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전문성 강화와 문화 활동 영역의 다양화

지방문화원의 전문성 강화는 여러 방향에서 논의되었으며 오래 전부터 지
 적되어 왔던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문성의 내용에 대한 지적
 에 있어서는 분명한 답이 주어지지 않은 사실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않
 았던 인력이 문화원 운영을 담당하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잣대로 흔히 언
 급된 것이 전문 인력 강화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성강화는 중요한 것
 이지만 그 내용이 앞으로 보다 분명해 질 필요가 있다.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문화원의 활동이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
 하여 보다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지방문화원 관련법에 문
 화원의 고유 기능을 적시해 놓았따 하더라도 그러한규정 내에서도 문화활동
 의 다양성추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특히 변화하는 경제 사회여건과 관련하
 여 노령사회를 대비한 문화활동,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비율의 증대현상을 반
 영하는 문화다양성 이념 문화 활동, 추 5일제 실시에 따른 국민여가시간 확
 대 등에 따른 문화원 자원의 문화 활동사업,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반영한 문
 화 활동, 양성평등 사회적 확산에 따른 문화 활동프로그램 등에 지방문화원
 이 문화사업 혹은 활동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주목해야 할 영역이라고 하겠다.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제언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제언

가. 자율성 투명성 주민참여 제고

경영능력제고와 재원 확충은 지방문화원이 자율적인 역량을 마련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오래 전에 자율적으로 생겨난 지방문화원이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는 것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그들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재원 확충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재원확충방안은 문화원 스스로 경영능력을 제고해서 보다 재원을 늘려나가는 방법과 지원의 소스가 다원화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역전이 서로 다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경우를 동일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대도시 는 보다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중소도시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지원 그리고 회원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농어촌의 저소득우 중형 기업과의 연결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현재의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은 교부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얼핏보면 지역의 잠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방문화원의 경우 지역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문화원 호리성과 특히 자율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운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투명성은 한국 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을 의미하는데 지역에 문화관련 시민단체가 존재한다면 투명성에 대한 시비는 비교적 적을 수 있다. 투명성 확보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홍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만큼 지역에서 문화원의 투명한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후에 문화원 평가에 투명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여건이되면 개별문화원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원은 고유 목적성 수로 활동문화보전 및 자료발굴에 힘을 기울였으나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상승한 이후에는 문화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불구하고 문화원 활동이 지역주민들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와닿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물론 여기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시설 및 기자재의 열악함, 위탁사업 위주의 사업진행 등 그 문제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 및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문화원이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호라치 배려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의 여러 문제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까지 전개한다면 문화 역량에 비추어 부담스러울 수 있음도 사실이나, 진부하게 진행되어 오던 사업을 중단하고라도 이렇게 새로운 영역의 문화 활동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위한 실버문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역량이 닿는 한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외국인 거주자가 있는 지역은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 그리고 순수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문화 소개 및 상호 교류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시 문화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지역여건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진행함은 물론이다. 다만 강조하는 것은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미래를 내다보는 문화 활동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의 핵심역할 수행

지방문화원은 그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그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과고와 같은 방식, 즉 자치단체 사업을 무리하게 독점한다던지 - 현실과 다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비판이 회자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지나친 경쟁관계를 견지하여 지역의 문화단체들과 편편치 않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지역의 문화원들은 오히려 지역의 문화기관, 시설, 그리고 단체들과 연결망을 구성하여 시설과 기자재, 프로그램, 나아가 인력에 이르기 까지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구심점에 설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이며 이를 위한 주도역할을 문화원이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결망 구축은 지역의 개별 문화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다.

라. 변화에 부응하는 유연한 문화원의 조직구성

지방문화원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문화와 예술과 관련 없는 인사들의 운영에 대한 개입입니다. 일부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지역 문화와 예술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대한 개선은 물론 지역정치로부터 문화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직구성의 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문화원이 지역의 구심점이 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자원봉사 인력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인력은 단지 노동력의 활용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획에서부터 행사 도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의 구성이 가능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관리 전담 인력도 자원봉사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재화가 필요하다.

앞서 사무국장에 대한 언급을 하였지만 이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개선되어야 더욱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인목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의성 모임이나 교양강좌가 아닌 전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유사한 해외기관의 참관도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 문화부 등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 지방문화원 인사 조직체계 개선

지방문화원은 일부의 비판대로 노쇠한 조직이미지가 강하고 기득권수호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전반적으로 문화원 원장의 연령이 고령이며 사무국장들이 비전문적이라는 비판이 그러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사실 문화원발전방안과 본질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 어느 한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보다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인력이 담당하도록 제도의 변경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운영보조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히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중원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문화원 운영 역시 기존에 강조되었던 부분을 점검하면서 운영위원회의 보안, 회원제의 강화 같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 문화원 운영에서 경영개념의 도입

문화원 자율성은 궁극적으로 재정적인차립도를 높이고 공공성이 뛰어난 사업을 선정하여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는데 있다. 공공성이 뛰어난 사업의 선정은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위탁사업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문화정체성확립에 도움이되는 사업들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사업영역을 만들어 지역의 관련 전문인들을 모아 위원회를 구성 사업선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방식을 자치단체의 일방적 위탁 대신에 지역전문가들의 사업선정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이러한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개념의 문화사업 영역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별 문화원 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일정비용의 목표를 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많은 문화원들이 끊임없이 몇몇 운영진과 자치단체의 보조에 더욱 의존하려고하는 한 문화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달성은 불가능하며 더욱 더 의존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역에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 개세나를 응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개별 문화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유도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경영개념 도입이 매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문화원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역도 출향 기업인 등을 찾아 연결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다양한 재원 창출을 독려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사. 여건에 부응하는 문화시설의 복합화 및 리모델링 및 첨단기자재 확보

문화원이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제 이러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문화원의 현안이 단독 문화원사 확보에 있으며 이것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문화원사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마련이 필요한 만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설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부와 한국문화연합회 등은 전국의 문화원 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파악하여 수용에 부응하는 공간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하여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영상 및 관람시설이 보안된 복합문화공간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첨단기자재를 통해 문화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 지역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문화원의 주도적 역할

여러 번 지적한대로 오늘날 지방문화원은 여러 많은 일을 했으며 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옹호단체로 비판받고 있다. 이것은 문화원이 지역의 여타 문화예술 단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이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원은 향후 지역의 문화와 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상호 네트워크 관계를 갖도록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주도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 기관, 인력, 사업, 정보, 공간 등의 수준에서 문화원이 주도하도록 한다.

자. 실버문화의 지점으로서의 문화원 기능 강화

노령사회로의 진행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노령사회로의 진행은 매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것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다. 다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걱정했으나 향후 문화적인 측면의 고려는 절대로 필요하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복지사회로의 진행은 현재의 노인보습과는 다른 노인들이 생겨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허우하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시급할 것이다. 해체된 가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며 노인복지관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한계가 있다. 이에 문화원은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좋은 기관이자 시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별로 문화원의 특성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지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을 위한 활동 거점으로서의 문화원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향토문화에서부터 문화 예술 전문해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력은 자원봉사로서의 의미도 큰 만큼 문화 자원봉사 영역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만큼 각 영역을 대표하는 단체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유형별 문화원을 시범으로 신청 운영해 본 후에 전국적인 확

산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차. 향토문화자료 및 자원 수집 및 지적 컨텐츠화

향토문화진흥은 문화원 고유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이며 이것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향토문화진흥 사업은 주로 향토 역사자료 수집이었으며 문화원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향토자료관을 갖춘 곳이 있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향토자료의 수집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향토문화를 내재화하지 않는다면 단지 자료수집의 의미만 있는 만큼 이러한 방안을 더욱 더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토의 고유자산을 지적재산화하는 방안을 문화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집 지역의 고추장 된장과 같은 양념은 물론 특산물, 유무형의 인물 및 그와 관련된 이야기 등도 오늘날은 모두 지적재산으로 확보하여 지역의 브랜드 및 각종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비가 요구된다.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자원을 지적재산화 하는 작업은 그동안의 업무에 비추어 다소 낯선 작업인 만큼 전문분야인력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문화부나 문화원컨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걸쳐 사업으로 채택하여 문화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인력훈련과 평가의 수행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명실상부한 연합회로서 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그것은 조정과 훈련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주로 국고사업의 선정과 개별 문화원에 대한 중재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요구되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은 개별문화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수준의 인력훈련과 개별문화원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에서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력훈련과 평가강화는 결국 개별문화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을 임명조건에서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강화 훈련과 외국의 좋은 사례들에 대한 전수를 넓혀주는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들도 함께 실시하여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전통문화연구

지역전통문화연구 - 삼봉 두레풍물

전통주 - 제조방법에 대한 소고

문학연구 - 준원 이광수선생의 문학세계

남양주와 조지훈의 만년유택



여 백

지역전통문화연구
삼봉 두레풍물



여 백

I. 풍물의 기원과 역사

1. 용어의 정리

▶농악(農樂)

1860년대 관소리 존향가에서 '두레굿'이라 쓰였는데 일제 강점기 '조선의 연중행사'라는 보고서에서 '농악(農樂)'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농업장려 목적에 한해서만 '풍물'을 허용하고 '농악'이라는 이름만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농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리나 잡단등의 음악적인 요소만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풍물'이 가지고 있는 대중놀이적인 신명과 성격은 포함된 성격이 아니었다. 또한 일제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하하기 위해 농민들이 하는 저속한 음악이란 뜻으로 '농악'이라는 말로 불렀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80년대 대학가와 문예패에서 '농악'이란 말대신 '풍물' '풍물놀이' 혹은 '풍물굿'이란말로 자주 쓰이게 되면서 '농악'에서 '풍물'이란 말로 일반화되었다.

▶풍장

김매기등 농사일에 많이 쓰이는 말로 호남지방에서 노동과 관계된 풍물을 흔히 '풍장'이라 불렀다. 김매기 할 때 두레굿을 치는 '두레풍장'과 서해안에서 만선귀향을 축하하는 뜻으로 마을 사람들이 풍물에 맞추어 배치기 노래를 부르는 '배치기 풍장' 등이 있다.

▶두레

두레는 마을, 부락 단위의 노동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상호부조, 공동모락, 협동노동 등을 목적으로 마을 단위로 조직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다. 농사철에는 서로 힘조하여 농사에 힘썼고, 기쁜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가지 놀이를 하며 함께 즐겼다. 조선 후기 이앙법이 전개되면서 보편적인 농민 생활 풍습으로 정착되었으며 특히 농민 문화중에서 '풍물'을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두레'와 '농악(풍물)' 및 '공동노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결립(乞粒)

마을에서 하는 결립은 주로 경월 대보를 전후와 추석 전후에 하며 마을사람이 직접 농

악대를 꾸려 농악을 치며 길림을 방문하여 돈과 쌀을 거두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예가 뛰어난 농악수들이 모여 직업적으로 길림 행위를 하기도 했는데 이를 길림패라고 불렀다. 길림의 형태는 마을에서 하는 곳, 길에서 하는 곳, 부당이 하는 곳 등이 있었으며 길림곳의 순서는 지방에 따라 다르나 대개는 문굿, 들당산굿, 샘굿, 김동이, 날당산굿 순으로 하여졌다. 길림굿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길을 새로 짓거나 중수할 때는 길길림패, 나뭇매를 새로 전조할 때는 나무길림패, 서당을 새로 지을 때는 서당길림패, 다리를 새로 놓을 때는 다리길림패 등이 굿을 벌이는데, 여기서 거둔 돈과 곡식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

▶길공(乞工)

집단노동을 할 때나 임금을 줄이기 위해 행해졌던 순수한 농악의 형태를 벗어나 오락적 요소와 다소 수익성을 노린 변질된 농악형태로 길림(乞工)굿과 비슷한 성격을 띠었다. 이 농악을 전문적으로 치는 농악대를 길공패(乞工隊)라 불렀다.

▶굿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며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벌이는 잔치 또는 축제를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무속의 제의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매굿 / 매귀(埋鬼)

나쁜 귀신이 나오지 않도록 문과 밭하는 뜻으로 보통 선당 그림에 하는 풍습을 매굿이라 했다.

▶매구

주로 영남지방에서 쓰이는 말이며 정과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풍물의 연행을 뜻한다.

▶군고(軍鼓) / 금고(金鼓)

전라도 해남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며 행진하면서 치는 풍물이런 뜻으로도 해석되어 행정군사적 성격으로서의 '군악' 적 특징이 많이 드러난 용어이다.

▶풍물(風物)

남사당놀이 6종목 가운데 첫번째 놀이이자 '농악' 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민족 고유 음악의 본디 이름이기도 하다. 중부지방에서는 '풍물' 호남에서는 '풍상' 영남에서는 '매구' 라 하기도 하며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 이를 '농악' 이라 부르는 것은 일제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며 또한 일제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비하하기 위해 농민들이 하는 저속한 음악이란 뜻으로 '농악' 이라는 말로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 80년대 대박자와 문예대에서 '농악' 이란 말 대신 '풍물' '풍물놀이' 혹은 '풍물굿' 이란말로 자주 쓰이게 되면서 일반화되었다.

2. 풍물의 역사

▶기원

- '마한에서는 5월 파종이 끝나면 양상 귀신에게 제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부리를 지어 추야로 쉬지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과 음식을 베풀었다. 그중은 여러명이 한줄을 이루어 땅을 밟고 등을 구부리고 뛰기도 하며 손과 발을 서로 맞추는 것이었는데 이는 중국의 탁무(踏舞)와 비슷하다.....10월에 농사가 끝나도 그리하였다...' - 삼국지(위지동이전) -

여기서 탁(踏)이란 금속제 타악기이며 탁무는 타악기에 맞추어 춤을 말한다. 고대인들의 제천의식과 연관지어 볼 때 무엇인가를 두드리며(타악기) 어떤 의식과 놀이를 하였다는 것에서 '풍물'의 기원을 알 수 있겠다.

- 또 다른 문헌에서는 동이(東夷)의 음악으로서 매악(麻樂)이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풍물의 또다른 이름인 매굿, 매귀동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풍물의 역사가 대단히 오래되었음을 알수있는 자료이다. 이류 풍물은 연말과 연초에 귀신을 쫓는 매귀의(埋鬼戲), 그리고 나래(儺禮)와 결합하면서 전승되었으며 오늘날 확인할수있는 지신밟기는 그 후대적 형태라고 할수있겠다.

▶삼국시대

삼국시대때 풍물은 군악(軍樂)으로서 연주되었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알수있다. 이것은 고려시대까지 미이져 풍물은 군사예술로 자리잡았는데 전쟁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나 적을 교란시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고려시대때 팔관회(八觀會)와 연등회(煙燈會)에서 벌어진 백희가무(百戲歌舞) 속에는 현재의 풍물과는 다르지만 의례악(儀禮樂)과 놀이반주 형태로 풍물이 활용되었음을 알수있다.

▶조선초기

조선초기는 지신밟기 형태로 풍물이 널리 사용되고 후기에 이르러 이양법의 확산과 경제력의 증대로인해 성장한 자연부락을 배경으로 풍물이 발달하게 된다. 집단노동의 발달에따라 두레조직이 늘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풍물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군대의 진법을 수용하면서 풍물의 진법이 더욱 다채로워졌다. 이후 전문예인들과 마을 풍물패의 교류및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현재 볼수있는 풍물의 판국의 형태가 시적되었다고 볼수있겠다.

▶일제강점기

풍물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일제시대때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농촌 공동체 문화의 쇠퇴로 그 전승력이 약화되었다. 일제는 우리민족의 신앙을 말살하고 농업장려의 목적으로만 풍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풍물의 음악적 요소만 계승되었고 공동체적이고 종합 예술적인 다양성은 전승되기 어려웠다고 볼수 있겠다.

▶해방기

해방 이후 풍물은 전쟁과 산업화에 밀려 역사적인 단절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풍물은 무형문화재의 차등으로 주목받았으나 형식적인 측면만 복원이 되었다는 안타까움을 남겼다. 이후 어떤 와중에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풍물의 전면복원을 시도하고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각 대학과 사회단체에 풍물대가 조직 결정되었으며 풍물을 모티브로한 '사물놀이'라는 장르 또한 탄생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풍물이 일종의 문화운동과 교양적 예술행위로서 인식되어 사물놀이와 함께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3. 풍물의 분포와 특징

풍물은 크게 한반도 중부이북 지방에서 연행되어지는 '웃다리 풍물'과 중부이남지역에서 연행되어지는 '아랫다리 풍물'로 나누어볼수있다

▶웃다리 풍물 (영백, 안성, 미천 등)

경기, 충청, 강원 영서지방을 포함한다. 분포지역으로는 영백, 안성, 미천, 양주, 원주, 홍성, 단양, 개천, 음성, 천안, 대전, 부여, 논산, 영동등을 들수있다.

쇠가락이 다양하고 분열하며 압축 스티치 가락의 변화를 구사하는 짜쇠가 발달하였다. 소고와 맧고의 구별이 없고 채상놀음과 무동이 발달하였으며 반군의 책임새가 매우 다양하다.

▶전라좌도풍물 (진안, 임실, 구례, 남원 등)

조선시대 바깥마가 지나가는 길을 경계로 좌측 산간지역이 '좌도' 이고 우측 평야지역이 '우도' 이다. 좌도 풍물의 발달지역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는 소백산맥과 전라도 서쪽의 평야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노령산맥 사이인 전라도 동쪽 산간지역으로 급산,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곡성, 화순, 경양, 보성, 여수등이있다.

쇠와 장구가 중시되며 상쇠는 부들을 쓰고 모든 치배들이 거의 대부분 상모를 쓰는 경우가 많으며 복색이 간소하며 웃놀음이 발달하였다. 가락은 빠르고 단순하며 무박하고 힘이있다. 가락이 빠른만큼 모든 치배들의 동작도 빠르고 단체놀이가 발달하였다.

▶전라우도풍물 (정읍, 이리, 김제등)

우도풍물의 발달지역은 전라도 서쪽의 평야지역으로 전라도 서해안에서 동쪽의 노령산맥 사이의지역인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부안, 이리, 전주, 나주, 목포, 영암, 함평등이있다. 쇠치배의 복색이 화려하고 번상모를 쓰며 다른 치배들은 고깔을 쓰고 면희한다. 율놀이 에 치중하지않고 아랫놀음이 발달하였고 장구의 가락이 중요시되며 평야지대의 여유로움으로 주로 느린가락이 많으나 가락이 매우 다채롭고 개인놀이가 발달하였다.

▶영남풍물 (경상도 지역의 풍물)

영남풍물은 경상북도풍물과 경상남도풍물로 나눌수있으며 경상북도 풍물은 청도 차산 풍물과 비산풍물, 금릉및내풍물이 현재 주요 전승되고 있고 안동, 예천, 영주, 인천,

영덕, 군위, 달성등의 지역에서도 연행되었다.

안동이나 영주와 같은 동북지방은 영동풍물의 영향을받아 그 특징이 나타나고 김천등은 경기 충청 풍물의 특색이 나타나기도 한다.

북을 많이 사용하여 기락이 힘차고 박진감있으며 처세의 입장순서또한 다른곳과는 다르게 장 다음에 장구가 아닌 북이 배치되는 특색이 있다. 모든 지배들이 두레로 나누어 모의 권쟁놀이를 하며 상모놀이의 발달로 소고쟁이의 제상놀이가 뛰어나다.

경상남도 풍물은 진주, 삼천포, 함안, 통영, 마산, 함양, 지창, 고성, 합천, 밀양, 울산, 부산, 진해등의 지역이다. 경북풍물과 비슷하게 군대의 지휘체계를 방불케하는 일시불란한 단체행동을 중시하며 북가락과 북놀이 발달하였으며 제삼모의 경우 소고놀이와 자반뒤집기와 같은 고난이도의 기량을 보여준다.

▶영동풍물 (강원도 지역)

강원도 풍물은 영서풍물과 영동풍물로 나뉜다.

영서풍물은 원주, 횡성, 춘천등지로 경기풍물과 내용과 형식이 거의 같고 영동풍물은 강릉, 속초, 동해, 삼척, 정선등의 지역에서 연행되어진다.

영동풍물은 험준한 산악으로 각기 지역 나름의 고유한 형태와 맛을 지닌 민속놀이, 민요, 토속신앙과 함께 풍물도 이어져오고 있다. 지신밟기가 성행하고 고사소리가 다양하며 달맞이굿과 뿔불놀이가 있으며 일풍물 이라고하여 두레 풍물이라고 할수있는 김매기 풍물이 다양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4. 풍물의 계통적 분류

▶두레풍물

마을 사람들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풍물의 주체이며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축제와 놀이판을 이끄는 비상업적인 풍물을 말한다

▶촌쇠풍물

전문예인의 풍물로 일명 촌쇠라 불리는 예인들이 전문적인 기량을 가져오 각처를 돌며 절집풍물을 연행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대표적으로 남사당패가 있다.

두레풍물과 촌쇠풍물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하였다.

5. 풍물 전승의 맥락

▶풍물 연행의 시기와 장소

장기적연행과 비정기적 연행이 있었고 연행의 공간은 마을전체였다.

- 정기적 연행

매년 초에 벌어지는 마중굿 또는 고을굿에서 연행
김매기가 끝나후 일어치는 쫓굿 (도미씻이) 에서 연행
단오나 추석등의 명절에 연행

- 비정기적 연행

오심기 논매기 등의 노동과 결합되어 연행
각종 잔치와 놀이때 연행
마을의 특별한 사업승위에 기금이 필요할 때 연행 (나리결집, 결집할 점)

- 연행의 장소

마을 전체가 공동 연행의 공간이었고 마을의 광부장초나 마당이 넓은 집에서 판굿을 연행했다.

▶ 연행의 종류

- 마을굿 (당산굿, 천왕굿, 서낭굿 등)

마을신을 위한 의례가 행해지는 연행에서 연행되어지는 풍물이다. 쫓굿이나 마을에 큰 재난이 있을 때 먼저 그마을의 신성한 공간인 당산에 가서 당산신께 액사신고를 하였다. 지역에 따라 낭제, 동계, 원왕매구 등으로도 불리며 때로는 지역에 따라 무덤이 들새를 친하기도 하였다.

- 쟁굿

마을에는 공동우물이나 하나씩은 있는데 이 우물에서 풍물을 치며 굿을 하는 것을 쟁굿이라한다. 쟁은 마을의 생명수와도 같은 절대적인 뜻이며 마을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중의 하나가 물인데, 이 물이 항상 마르지않고 깨끗하기를 기원한 굿이라고 볼수 있다.

- 마당밧기 (치신밧기)

쫓물굿때가 치날당에서 치날들 모시고 풍물을 치며 마을로 내려와 집집마다 돌러 액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공동우물에서 죽원하고 집집마다 돌러서 고시굿을 치는데 문굿, 마당굿, 청주굿, 조왕굿, 터주굿, 장독굿, 마굿간굿, 쟁굿, 축간굿등이있고 구석구석을 돌며 죽원을 한다. 여기서 벌어드린 수입은 마을의 공공기금으로 관리하였다.

- 판굿

판굿은 마당밧기가 끝나는날 마을광터에 모닥불을 피우고 두레 구성원인 마을주민들이 한바탕 신명난 놀이판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각 풍물 치배들이 자기의 장기를 보여주기도하고 기름진 음식과 함께 술판도 벌이며 신명을 풀었다. 이러한 신명이 나중에 다시금 강한 노동의 힘으로 분출 되기도하고 마을 사람들간의 결속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 걸림굿 (걸궁굿)

걸림은 돈을 걷는 목적과 굿때의 성격에 따라 서낭걸림, 나무걸림, 신칭걸림, 남걸림, 절걸림, 포장걸림등이 있으며 특히 포장걸림은 돈을벌기 위하여 포장을치고 구정꾼에게 돈을받고 판굿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걸림과는 또 다른 흥행적이고 연예적인 공연이었다.

- 두레굿 (두레풍상)

두레매들이 주르 김매기하며 연주하는 풍물을 두레굿, 또는 두레풍장이라고 한다. 두레는 모심기두레, 김매기두레, 갈쌈두레, 모 두레, 풍베기 두레 (소동두레) 등 여러 가지 노동조직체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렇게 임의 농활을 올리고 노동과 함께매은 풍물을 두레풍물이라 정의 내릴수 있겠다.

II. 삼봉 두레 풍물의 역사

1. 삼봉리의 역사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광주군 지역이었다. 1906년 양주군 좌부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삼봉리 그리고 평촌리와 하도면 백월리 각 일부를 통합하여 '삼봉리'라 하고 좌부면에 소속되었다. 세 봉우리가 있으므로 삼봉 또는 삼봉을 새김하여 구봉이라 하였다. 1963년 조안출장소의 관할이 되었는데, 1986년 4월 1일 와부읍에서 조안면으로 분리되었다.

2. 삼봉 두레 풍물의 유래

삼봉리는 구봉, 하양이라는 2개의 자연부락으로 50호가 살아오고 있으며, 현재는 8~9명의 노인들만 120여년 전(1890년경) 풍물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 삼봉리 부락 강전너 갯을 흐르고 있는 형상의 가우산(歌鳥山)은 큰 스님, 삼봉리의 세 개의 봉우리는 작은 스님 형상으로 '삼봉부락은 풍물을 배워 동네가 편한하다'고 하는 어느 스님의 말씀에 풍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삼봉풍물은 정월에 칠성제를 지내지 않고 고사소리과 마당놀이를 하였으며 권승되어 오는 가락의 시작을 알 수 없으나 저울질 농한기에 양평군 강삼면, 강하면에서 삼쇠를 초빙하여 겨우내내 풍물을 배우고 정월에 각 집을 돌며 고사반과 마당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2대말의 상쇠인 이치용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여주, 이천에서도 상쇠를 초빙하기도 하였고, 고사반(공명가, 방아타령, 재비가 등)는 남양주시 와부읍 월촌리에서 배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 연희를 전승하고 있는 노인들은 어릴 적 일상적인 놀이 문화로 12차 가락이 있었으나 현재는 서너개의 가락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삼봉풍물은 기본적으로 무늬, 오무동타기 등 정기 중형 일대의 못다리 풍물에 해당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칼상모장단, 다릿가락 등 삼봉종물에서만 불려지는 장단명칭이 있고 옷다리의 관재에서 고깔을 사용하지 않지만 장구, 북, 징은 고깔을 사용하고 있으며, 굿거리로 만을 구성하며 삼모늬음을 하고, 제의 없이 발을 쓰고 하는 연희 내용은 일반적인 옷다리 풍물과 차별화 되는 내용들이다.

삼봉두레풍물은 2008년 2월 21일 재연을 통해 활발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40여명의 풍물을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삼봉두레 풍물의 발전과 전승 보전을 위해 매월 정기모임과 복원 공연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책자와 VCR등을 제작하며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3. 계보

□ 제 1 대

- 상쇠 : 최성환, 김재연(김기남의 딸), 부쇠 : 이용순
- 장구 : 심달성
- 북 : 김명천
- 토적 : 최악훈, 최학동
- 3등받침 : 이의수(이차용의 딸), 5등받침 : 정동식
- * 수기 할아버지(최성룡의 父) : “농랑” (북치며 노래하는 것)
- * 무동 : 이변성, 손현달

□ 제 2 대

- 쇠 : 이변성(상쇠), 최인성(부쇠), 이차용(쇠, 장구)
- 장구 : 김원남, 이은동
- 북 : 이덕성, 최봉수(북, 상모), 김명천
- 징 : 심달성, 이성룡(징, 12발 상모)
- 상모 : 손현달(삼백구), 최익수(최상운의 父), 김연성, 장경희
- * 고사반 : 김기남, 최순룡
- * 무 동 : 김환기, 최경수, 최재영, 김복남

□ 제 3 대

- 쇠 : 이차용, 김환기
- 장구 : 최경수, 최재영, 김복남
- 북 : 이민교, 이기천
- 징 : 최혜수, 최상경, 최상운, 최상문
- 상모 : 이기천, 최상운, 장경희

〈고사반 유래〉

이일천(삼백구, 삼봉1리) → 최순룡 → 김기남 → 김환기, 이석교

〈상식〉

최정환(1대) → 이병승(2대) → 김완기(3대)

4. 삼봉두레 풍물의 편성과 복색

○ 삼봉두레 풍물의 편성은 윗다리 농악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풍어를 압박하여 만든 락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편성은 쇠, 징, 북, 장구, 제금(바라), 벽구쟁이와 잡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치배의 행진순서를 보면 맨 앞에 농기

(농작권한지대본 - 農新天下之大本, 비례율 : 황색 2, 홍색 2줄, 평장독)가 앞서고 풍목기 뒤를 명기(命旗) 청홍(靑紅)의 2개가 뒤따르고, 그 뒤를 태평소가 따른다.

○ 그 뒤를 치배 상쇠와 부쇠 이하 ~ 관쇠, 수징, 부징, 수북 ~ 관북, 선창구 ~ 끝창구, 제금(바라 : 1대에서 연주), 벽구쟁이, 잡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잡색은 양반 1명, 할미 1명, 조리춘 1명, 라시 1명, 오무동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삼봉두레 풍물의 복색은 흰색 바지저고리에 남색조끼를 입고, 조끼위에는 삼색띠(적색, 청색, 노란색)를 좌측어깨에서 우측으로 청색을 두르고, 우측어깨에서 좌측으로 적색을 두르고 허리에는 황색 드님을 두르는 것을 기본 복색으로 하고 있다.

○ 상쇠는 머리에 종이로 만든 들삼모를 쓰는 복장으로 고사반을 진행할 때는 흰색종이로 만든 고깔을 쓴다.

○ 징, 북, 장구, 벽구쟁이는 기본 의상이다 두꺼운 고깔판에 청색, 백색, 적색, 황색 사색 색깔의 담배꽃 모양의 꽃을 맡아 받위에 앉는 색깔의 꽃을 붙여 고깔을 만들어 쓴다.

○ 벽구(상모)는 물체(45cm가량)와 생피지는 100cm, 50cm 두줄을 사용하며 흑포 대신 흰색 장목을 사용한다.

○ 잡색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래신앙(傳來信仰) 의식에서 복을 빌어주고 길귀를 아주는 풍물굿맥을 이끌었지만, 판굿에서 서민들이 시름을 달래던 연극형태로 해학과 미상스럽게 민의 양념과 깊은 농이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놀이이다.

Ⅲ. 삼봉 두레 풍물의 음악적 특징

1. 가락의 구성

연행되던 가락은 12차 가락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5~6차 가락만 전해져오고 있다.

(1) 길가락

길가락은 두레 구성원이었던 마을 사람들이 이동할 때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가락으로 굿거리형 ①긴가락과 자진부리형인 ②단가락으로 구성되어있다.

①긴가락

- 행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
- 경기굿거리 살단과 유사하다.

▶ '긴가락'의 기본가락

〈쟁과리〉 tempo: ♩ = 60~70

- 경기굿거리의 기본가락과 유사하며 다양하게 변주한다.

(2)

♩	♩	♩	♩	♩	♩	♩	♩	♩	♩
쟁		쟁	쟁		쟁	쟁		쟁	쟁

〈징〉 tempo: ♩ = 60~70

- 한장단에 4번을 치는것이 주로 보여진다.(4재)
- 경우에 따라 1회 또는 2회를 치기도 한다.

(2)

♩		♩		♩	♩	♩	♩	♩	♩
징	-	-	징	-	-	징	-	징	-

〈장구〉 tempo: ♩ = 60~70

- 팽과리 밑채 가락을 기본으로 비슷하게 연주한다
- 궁채를 사용하지 않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연주하는 경향이 있다.
- 가락의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

12/♩



덩		덩	덩		덩	덩		덩	궁	따	궁
---	--	---	---	--	---	---	--	---	---	---	---

〈북〉 tempo: ♩ = 60~70

- 팽과리와 장구의 기본틀에서 간결하고 단순하게 쳐서 연주한다

12/♩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	--	---	---	--	---	---	--	---	---	--	---

▶ '긴가락' 의 주요 변주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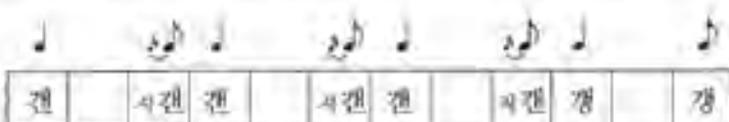
- 팽과리 겹가락과 장구장단을 중심으로 재보하였다.
- 더욱더 다양한 장단의 복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팽과리의 변주의 예〉 tempo: ♩ = 60~70

12/♩



깁		깁	깁		깁	깁		자깁	깁		깁
---	--	---	---	--	---	---	--	----	---	--	---



깁		자깁	깁		자깁	깁		자깁	깁		깁
---	--	----	---	--	----	---	--	----	---	--	---



깁	깁	깁	깁	깁	깁	깁		자깁	깁		깁
---	---	---	---	---	---	---	--	----	---	--	---

갱	개	개	갱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갱	갱
---	---	---	---	---	---	---	---	---	---	---	---	---

〈장구 변주의 예〉 tempo: ♩ = 60~70

12/♩

열편
 궁편

덩		덩	덩		덩	덩		덩	콩	따	콩
---	--	---	---	--	---	---	--	---	---	---	---

열편
 궁편

덩		덩	덩	따	콩	덩		덩	덩	따	콩
---	--	---	---	---	---	---	--	---	---	---	---

열편
 궁편

덩		기	떡	콩	따	콩	덩		기	떡	콩	따	콩
---	--	---	---	---	---	---	---	--	---	---	---	---	---

열편
 궁편

덩		기	떡	덩		기	떡	덩		기	떡	콩	따	콩
---	--	---	---	---	--	---	---	---	--	---	---	---	---	---

열편 ♩ ♩ ♩ ♩ ♩ ♩ ♩

일편 ♩ ♩ ♩ ♩ ♩ ♩ ♩

당		따	둥	따	둥	당		당		당
---	--	---	---	---	---	---	--	---	--	---

<북> tempo: ♩ = 90~110

평과리와 장구의 기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게 강하고 단순하게 쳐서 연주한다

12/♩

♩ ♩ ♩ ♩ ♩

둥		둥		둥		둥		둥
---	--	---	--	---	--	---	--	---

▶ '단가락' 의 주요 변주가락

-평과리 권가락과 장구장단을 중심으로 채보하였다.

-다육터 다양한 장단의 복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평과리 변주의 예> tempo: ♩ = 90~110

12/♩

♩ ♩ ♩ ♩ ♩ ♩ ♩ ♩ ♩

경		개	겐		지	경	겐		지	겐	개	경
---	--	---	---	--	---	---	---	--	---	---	---	---

♩ ♩ ♩ ♩ ♩ ♩ ♩ ♩ ♩

겐		지	개	겐		지	개	겐		지	개	경
---	--	---	---	---	--	---	---	---	--	---	---	---

♩ ♩ ♩ ♩ ♩ ♩ ♩ ♩ ♩

겐		지	개	개	경		경		경		경
---	--	---	---	---	---	--	---	--	---	--	---

♩ ♩ ♩ ♩ ♩ ♩ ♩ ♩ ♩

겐		지	개	겐		지	개	경		경	경
---	--	---	---	---	--	---	---	---	--	---	---

♩ ♩ ♩ ♩ ♩ ♩ ♩ ♩ ♩

개	경		겐		지	경		경		경
---	---	--	---	--	---	---	--	---	--	---

〈장구 변주의 예〉 tempo: ♩ = 90~110

12/♩

얼편 ♩ ♩ ♩ ♩ ♩ ♩ ♩ ♩

궁편 ♩ ♩ ♩ ♩ ♩ ♩ ♩ ♩

덩		카	디	콩	카	디	콩	덩		덩		덩	
---	--	---	---	---	---	---	---	---	--	---	--	---	--

얼편 ♩ ♩ ♩ ♩ ♩ ♩ ♩ ♩ ♩ ♩

궁편 ♩ ♩ ♩ ♩ ♩ ♩ ♩ ♩ ♩ ♩

덩		따	콩	따	콩	덩		따	콩	따	콩
---	--	---	---	---	---	---	--	---	---	---	---

〈북 변주의 예〉 tempo: ♩ = 90~110

12/♩

♩ ♩ ♩ ♩ ♩ ♩ ♩

둥		두	둥		두	둥		둥		둥	
---	--	---	---	--	---	---	--	---	--	---	--

♩ ♩ ♩ ♩ ♩ ♩ ♩

둥		두	둥		두	(웃)	둥		둥	
---	--	---	---	--	---	-----	---	--	---	--

▶삼봉 두레 풍물 '단가락'의 특징

-모든 농악에 쓰여지는 작전모리형(당의종이) 장단이다.

-가락의 끝부분을 끊어서(↓↓) 연주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진명을 중히 여기는 두레군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두박한 가락으로 전세된 신명을 표출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다.

-행과리의 다양한 변주가 보여지며 쇠뿔이의 기량에 따라 접가락의 연주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지겐,그라들 접타법의 적용)

-장구는 공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장구(공채를 옆편쪽으로 넘겨가며 치는 장구)를 치지 않지만 이후 공채의 복원과 함께 양장구의 복원 또한 필요하겠다.

-북가락은 그리 다양하지는 않으나 전체 리듬형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두박하지만 간결하게 연주한다. 가락을 흐트러지나 말이 치는 형태가 아니며 강하게 때서 친다.

-관곳에서 단가락(작전모리)을 치면서 본격적으로 삼모를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쓰이는 단가락을 '갈삼모 장단'이란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갈삼모'라 하는것은 오늘날 빠른 사사와 일사, 양삼 등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삼모의 초리가 날렵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을 본뜬 말이라 여겨진다.

이런 삼모농용에 사용되어지는 빠른 장단인 '단가락' (작전모리) 또는 '휘모리 장단'을 '갈삼모' 장단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좀더 세밀한 복원과 고증이 필요하겠다.

-긴가락에서 단가락으로 가락이 바뀔 때 점점 빨리 울이 가속화 시키지나(accel)가락을 끊어 간결하게 쉽게 신호를 주기도 한다.

-행진가락으로서 단가락은 긴가락와 어우러져 느리게 또는 빠르게 자연스레 지배들의 보폭과 호흡을 조절 할수 있었다.

(2) 휘모리

휘모리는 ①자진가락과 ②벌어배기형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자진가락(제1휘모리형 장단,김상모 장단)

- 제1 휘모리형 장단이다.
-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장단이며 판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주로 사용한다.
- 쇠쟁이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타법의 구사가 가능하다.

▶ '자진가락'의 기본가락과 변주

〈쟁과리〉 tempo: ♩ = 120~180

-가장 빠른 형태의 휘모리 장단이다.

4/4 〈신호〉

♩	♩	♩	♩	
쟁	쟁	쟁	객	

♩	♩	♩♩	♩	
쟁	쟁	개개	쟁	

♩	♩♩	♩♩	♩♩	♩
쟁	개개	개개	개개	쟁

♩	♩♩	♩♩♩	♩♩	♩
쟁	지쟁	지개개	개	쟁

♩	♩♩	♩♩	♩♩
쟁	지쟁	지쟁	지쟁

♩♩	♩♩	♩♩	♩♩
지쟁	지쟁	지쟁	지쟁

〈장〉 tempo: ♩ = 120~180

4/4

- 한창단 첫박에 1회 연주한다.

〈장구〉 tempo: ♩ = 120~180

4/4

얼편 ♩ ♩ 7 ♩ ♩

중편 ♩ ♩ ♩ ♩

덩		덩		중	파	중	
---	--	---	--	---	---	---	--

얼편 ♩ ♩ ♩ ♩ ♩

중편 ♩ ♩ ♩ ♩

덩		덩		덩	파	중	
---	--	---	--	---	---	---	--

얼편 ♩ ♩ ♩ ♩ ♩ ♩

중편 ♩ ♩ ♩ ♩

덩		덩	파	덩	파	덩	
---	--	---	---	---	---	---	--

얼편 ♩ ♩ ♩ ♩ ♩ ♩

중편 ♩ ♩ ♩ ♩

덩		덩	파	덩	파	덩	
---	--	---	---	---	---	---	--

얼편 ♩ ♩ ♩ ♩ ♩ ♩

중편 ♩ ♩ ♩ ♩

덩	파	중		덩	파	중	
---	---	---	--	---	---	---	--

열편 ♪ ♪ ♫ ♪ ♪ ♪ ♫ ♪

궁편 ♪ ♪ ♪ ♪

명	따	궁	따	명	따	궁	따
---	---	---	---	---	---	---	---

열편 ♫ ♪ ♫ ♪ ♫ ♪ ♫ ♪

궁편 ♪ ♪ ♪ ♪

명	따	궁	따	궁	따	궁	따
---	---	---	---	---	---	---	---

(북) tempo: ♪ = 120~180

가락을 모두 펴서 연주한다.

4/4

♪ ♪ ♪ ♪

둥		둥		둥		둥	
---	--	---	--	---	--	---	--

② **읽어내기**(제2 위모리형 장단, 갑상모 창단리)

- 제2 위모리형 창단이다.

- 작전가락보다 다채로운 가락이 쓰여지고 앞쇠 숫쇠의 구별이 있다.

- 판굿에서 상모의 다양하고 빠른 놀음에 주로 쓰이는 장단이다.

▶ **'읽어내기'의 기본가락과 변주**

〈뿔과리〉 tempo: ♩ = 120~180

- 앞쇠 숫쇠의 구별이 있다 보니 다양한 곡쇠의 연주가 가능하다.

4/4



꺽		꺽	꺽	(※)	꺽	꺽	
---	--	---	---	-----	---	---	--



꺽	꺽	(※)	꺽		꺽	꺽	
---	---	-----	---	--	---	---	--



꺽		꺽	꺽	꺽	꺽	꺽	
---	--	---	---	---	---	---	--



꺽	꺽	꺽	꺽		꺽	꺽	
---	---	---	---	--	---	---	--

〈침〉 tempo: ♩ = 120~180

4/4

- 한장단 첫박에 1회 연주한다.

〈장구〉 tempo: ♩ = 120~180

4/4



땡		따	따	(※)	따	땡	
---	--	---	---	-----	---	---	--

열편

중편

덤	다	다	다	(웃)	다	덤	
---	---	---	---	-----	---	---	--

열편

중편

덤		따	따	쿵	따	쿵	
---	--	---	---	---	---	---	--

열편

중편

덤	따	쿵	따	쿵	따	쿵	
---	---	---	---	---	---	---	--

<복> tempo: ♩ = 120-180

-가락을 모두 펴서 연주한다.

-첫박만 강하게 치거나 첫째 셋째박을 강하게 치기도 한다.

4/4

둥		둥		둥		둥	
---	--	---	--	---	--	---	--

둥		둥		둥		둥	
---	--	---	--	---	--	---	--

▶ 상봉 두레 풍물의 '취모리' 장단의 특징

-가락은 숫다리 풍물의 기본 취모리형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쇠가락을 절박하고 또박또박하게 연주하며 쇠쟁이의 기능에 따라 겹가락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락을 구사한다.

-암회 숫사의 구별이 있다.

-짧은 가락을 다 띄서 연주한다.

-장구는 궁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암장구를 치지않고 열채가락을 돌보미게 하기 위하여 왼손은 막음새 하듯이 칠어주는 형태로 연주한다.

-다채롭고 빠른 가락을 구사하며 판굿에서 심보놀이와 주요하게 쓰이는 장단이다. (김상모 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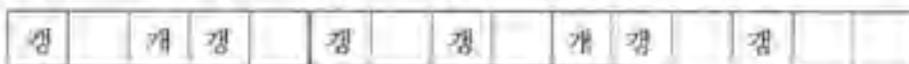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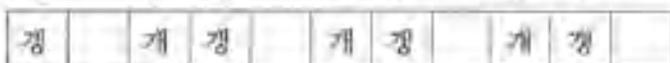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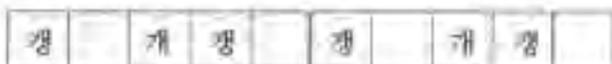
(3) 칠채

-칠채는 평균이나 판곡을 행할 때 발이 잘 맞지 않아서 신명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그 가락은 전해지고 있다.

-기본 가락은 옷다리 풍물의 칠채와 대동소이하나 뒷박을 끊어 치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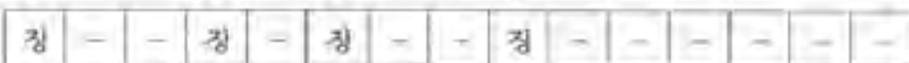
〈행곡리〉 tempo:(♩, + ♩) = 60~80

$$5/\text{♩} + 5/\text{♩} + 11/\text{♩} + 5/\text{♩} + 10/\text{♩} = 36/\text{♩}$$



〈쟁〉 tempo:(♩, + ♩) = 60~80

$$5/\text{♩} + 5/\text{♩} + 11/\text{♩} + 5/\text{♩} + 10/\text{♩} = 36/\text{♩}$$



〈장구〉 tempo: (♩ + ♩) = 60-80

$$5/\text{♩} + 5/\text{♩} + 11/\text{♩} + 5/\text{♩} + 10/\text{♩} = 36/\text{♩}$$

일편 ♩ ♩ ♩ ♩ ♩ ♩

중편 ♩ ♩ ♩ ♩ ♩ ♩

명		더	명		명		더	명	
---	--	---	---	--	---	--	---	---	--

일편 ♩ ♩ ♩ ♩ ♩ ♩ ♩

중편 ♩ ♩ ♩ ♩ ♩ ♩ ♩

명		더	명		더	명		더	명	
---	--	---	---	--	---	---	--	---	---	--

일편 ♩ ♩ ♩ ♩ ♩ ♩ ♩ ♩ ♩

중편 ♩ ♩ ♩ ♩ ♩ ♩ ♩ ♩ ♩

명		더	명		명		더	명		명	
---	--	---	---	--	---	--	---	---	--	---	--

〈북〉 tempo: (♩ + ♩) = 60-80

$$5/\text{♩} + 5/\text{♩} + 11/\text{♩} + 5/\text{♩} + 10/\text{♩} = 36/\text{♩}$$

♩ ♩ ♩ ♩ ♩ ♩

둥		두	둥		둥		두	둥	
---	--	---	---	--	---	--	---	---	--

♩ ♩ ♩ ♩ ♩ ♩ ♩

둥		두	둥		두	둥		두	둥	
---	--	---	---	--	---	---	--	---	---	--

♩ ♩ ♩ ♩ ♩ ♩ ♩ ♩ ♩

둥		두	둥		둥		두	둥		둥	
---	--	---	---	--	---	--	---	---	--	---	--

2. 삼봉 두레 풍물의 특징

① 길가락에서 '긴가락'은 경기, 충청 웃다리 풍물에서는 드물게 보여지는 굿거리형 창단으로 삼봉 풍물의 매우 특징적인 요소라 할수 있겠다.

굿거리 창단이 발달했다는 것은 흔히 이 지역에서 두레가 매우 성행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② 삼봉풍물은 여느 웃다리 풍물처럼 쟁과리 가락이 발달해 있고 다른악기는 쟁과리의 기본 리듬형을 바탕으로 넘치지 않게 연주하며 그 맛이 두레농악의 특징처럼 소박하고 간결하며 여유롭다.

③ 장구는 궁채를 사용하지 않고 연주하는데 이는 무용이나 탈춤 반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지역에 중이나 팔중이 널리 성행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장구는 궁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장구는 치지않는다 대신 왼손은 반주장구를 칠때 처럼 소박한 막음새를 구사하며 열채가락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장구는 열채가락이 발달해있고 쟁과리의 가락과 유사하게 연주되어진다.

④북가락은 웃다리의 특성상 그리 다양하지는 않으나 전체 리듬형을 지습리지 않으면서 투박하지만 가락을 여서 간결하게 연주한다.

⑤ 삼봉 풍물은 가락의 끝부분을 끊어서() |) 연주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실명을 중히 여기는 두레곳의 율리에 바탕을 두고 투박한 가락으로 형제된 신명을 표출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다.

⑥ 삼봉 풍물은 상모가 발달 되어있다. 판굿에서 탈가락(자진보리)을 치면서 본격적으로 상모를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쓰이는 가락을 '칼상모 절단' 이란 별칭으로 불렀다. '칼상모'라 하는것은 오늘날 빠른 사사와 일사.양상처럼 상모의 조리가 날렵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을 본뜬 말이라 여겨진다.

⑦ 삼봉 풍물에서 칠채가락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한 것은 다른 웃다리 풍물 지역에 비해 삼봉리가 남사당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연행되는 웃다리 풍물의 판계 및 가락구성은 거의 남사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삼봉 풍물은 오히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생적이고 독창적인 두레풍물로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삼봉두레풍물 과정 및 순서

1. 두레풍물 및 고사반

삼봉 무락의 농민들은 하루의 노동을 시작하면서 풍물두레패를 편성하여 농기를 선두로 악기를 치면서 「방아타련」을 부르고 춤을 추며 힘든 농고(農苦)로부터 위안이 되고 공동의 연대감을 확인하고 작업장에서 공동작업의 능률을 높기하며 상호의 농작을 빈같이 도왔다. 노동을 끝내고 여유를 즐기며 힘든 노동의 피로를 풀었다. 뿐만 아니라 농한기인 정월에는 마을의 각급을 영송하기 위해 이웃마을에 가서 고사반과 신명난 판굿을 하기도 하여 빠른 가락과 느린 가락을 골고루 사용하여 경쾌한 소리를 연출하였다.

가락의 기본 순서는 내는가락 → 길가락(긴가락) → 길가락(단가락) → 휘몰이 → 길가락(긴가락) → 휘몰이로 위 가락을 굿관의 분위기에 따라 반복하기도 한다.

● 7책가락은 마지막에 하면서 가락의 끝부분에서 멈춘다.

● 짝책이 가락은 두통을 태울 때 가락을 연주하였다.

가. 내는가락

올어적 있는 치레들이 듣고 가락을 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취 신호가락으로 삼쇠가 단터로 '개겐 - 겐 - 겐 - 겐겐겐개르르르르 깃' 과

/겐 / / 겐/겐 / / 겐/겐 / / 지겐/겐 / / 겐/을 먼저 치고 길가락(긴가락)로 넘어간다.

나. 길가락(긴가락)

이 가락은 판굿을 시작할 때와 길입을 나갈 때 치는 가락으로 삼봉두레 풍물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락이다.

입장순서는 농기, 두레 풍물기, 영기와 치레순(쇠 → 장 → 북 → 장구 → 상모 → 잡색)대극신이 나 울자간에서 원진을 구경하고 '인사굿' 으로 입장을 마무리 한다.

〈기본가락〉

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징	징			징			징			징			징					
장구	뎡		뎡	뎡		뎡	뎡		뎡	뎡		기떡	궁	딱	궁			
북	궁		궁	궁		궁	궁		궁	궁		궁	궁		궁			

〈변주가락〉

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징	징			징			징			징			징					
장구	뎡		기떡	궁	딱	궁												
	뎡		뎡	궁	딱	궁	궁		기떡	궁	딱	궁	딱	궁				
	뎡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뎡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뎡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북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인사가락>

쇠	꺼			개	르르	르르	개	개	깁	깁		갯
장	징											징
장구	명											
북	궁											

다. 길가락(단가락)

삼봉두레 풍물에서는 행진가락인 '길가락' 중에서 '길가락'의 행태이며 자진모리형 기본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소고젍이들을 놀리는 가락이다. 치배들과 소고젍이는 상대편을 보면서 1자진을 형성하여 삼쇠의 소리에 맞추어 소고놀음을 한다.

<기본가락>

쇠	꺼		직	꺼		직	꺼		개	개	꺼	
	꺼		개	개	꺼	직	꺼		개	개	꺼	
장	징						징					
	징						징					
장구	명			명			명		딱	궁	딱	
	명		딱	궁	딱	궁	명		딱	궁	딱	
북	궁			궁			궁		궁		궁	
	궁		구	궁		구	궁		궁		궁	

〈변주가락〉

최	개	겐		개	겐		개	겐		개	겐	
	겐		개	개	겐	지	겐		개	개	겐	
	겐		개	개	겐		겐		개	개	겐	
	겐		개	개	겐	지	겐		개	개	겐	
	개	겐		개	겐		개	겐		개	겐	
	개	겐		개	겐		겐		개	개	겐	
	겐		개	개	겐	지	겐		개	개	겐	
	겐		개	개	겐	지	겐		개	개	겐	
	개	겐		개	겐		개	겐		개	겐	
	겐		개	웃	겐	지	겐		개	개	겐	
	겐		개	개	겐	지	겐		개	개	겐	
	개	개	개	개	겐	지	겐		개	개	겐	

창구

더	명		더	명		더	명		더	명	
명		파	궁	딱	궁	명		파	궁	딱	
명		파	궁	딱		명		파	궁	딱	
명		파	궁	딱	궁	명		파	궁	딱	
더	명		더	명		더	명		더	명	
더	명		더	명		명		파	궁	딱	
명		파	궁	딱	궁	명		파	궁	딱	
명		딱	궁	딱	궁	명		파	궁	딱	
더	명		더	명		명		파	궁	딱	
명		딱		딱		명		파	궁	딱	
명		딱		딱		명		파	궁	딱	
명		더	궁	딱	궁	명		파	궁	딱	

라. 길가락(긴가락)

칼상모 장단(자진물이)에서 지배와 잡색은 1자진을 형성하고 소고쟁이도 지배의 앞에 1자진으로 모양을 갖춘 다음 휘물어로 소고놀음을 한다.

상쇠의 특별한 개인놀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고놀음을 하면서 상쇠도 개인의 기량을 뽐낸다.

※ 삼봉두레풍물의 칼상모 장단은 상모쟁이를 놀릴 때 쓰는 가락으로 길가락과 휘물어를 포함하여 표현 한다. 칼상모 장단이라 부르는 것으로 일반적인 덩덕궁 가락에 소고쟁이들을 놀리는 가락이다

마. 고사반

고사반을 하기 전에 고사 상을 차리는데 말 통에 쌀을 붓고 명태 한마리에 흰 실타래를 감은 다음 꼬리가 밑으로 가도록 잡고 삶은 돼지머리와 세 그릇의 맑은 물(삼신님께 올리는 점수)을 떠 놓는다. 삼위에는 초를 두개 켜 놓는다.

고사반을 하는 사람은 흰색종이로 만든 모자를 쓰며, 북은 태를 치면서 장단을 맞춘다. 한편 '쫄'이라는 잡색이 있어 삼쇠의 말을 성주굿을 하는 주인집에 전달을 하면서 고사반의 흥을 돋우며 춤을 추기도 한다.



2. 삼봉두레풍물의 판굿 :

삼봉 두레 풍물과 거의 동일하며 판의 순서와 개인놀음을 부가하여야 함.
주기할 사항 : 상쇠, 부포놀음, 칠장곡, 수고놀음, 2발 삼포, 북춤(놀람) : 북춤하며 노래하는 것)

〈길놀이〉

울림(난타) → 휘몰이 → 굿거리 입장 → 자진몰이(당덕궁) → 휘몰이 → 인사굿

가. 울림(난타)과 휘몰이
상쇠의 신호로 시작하여 웃다리 휘몰이로 마무리를 짓는다.

나. 굿거리
굿거리로 치배가 두줄로 입장을 한 후 2개의 원진을 형성한다.

다. 자진몰이(당덕궁)와 휘몰이, 인사굿
굿거리에서 형성된 두개의 원진으로 자진몰이와 휘몰이로 옮겨간 후 인사굿으로 입장을 마친다.

〈놀이굿〉

자진몰이(떡드름) → 휘몰이 → 난타

자진몰이 가락으로 태극진(또는 을자진)으로 소고를 판 가운데로 하고 치배는 소고 외곽으로 원진을 형성하여 휘몰이로 짧게 앞상치기로 마침을 한다.

당덕궁 초기에 두개의 원으로 돌다가 치배는 한줄로 합치면서 1자진을 구성하고, 소고도 두개의 진이 하나의 원진으로 합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치배와 같은 형식의 1자진을 만든 후 휘몰이와 난타로 맺는다.

〈당산벌림〉

자진몰이 → 울림(난타) → 휘몰이 → 울림(난타) → 자진몰이(비우놀이) → 잡색놀음

상쇠는 소고껍이들을 휘몰이로 끌어내어 원진을 만든 다음 소고놀음을 시킨다.
소고는 원진의 전, 후진과 적음상, 앞음상 등으로 놀이를 마친 후 상쇠의 지시에 따라 치배와 두개의 원진을 만들며 소고는 바깥쪽, 치배는 안쪽의 원진을 만든다.
만든 원진의 형태는 쇠, 가죽, 소고와 잡색 3원을 형성한다

〈달팽이 말기〉

자진물이 → 리릭이 → 자진삼채 → 휘물이 → 멧기 → 칠채 → 육채 →
지진심채 → 휘물이

3개의 원을 구성된 원칙은 두줄로 달팽이 길을 쓴 후 2개의 치배군을 형성하여 천오방을 구성한다.

2개의 치배군이 4방을 달팽이길으로 형성하고 쓴 후 두 줄로 가운데에서 달팽이 길을 형성하면서 3개의 원을 구성하여 6채로 가락을 달아가면서 휘물에서 열삼치기로 맺는다.

〈기본가락 : 길군악 칠채〉

쇠	겐		지	겐		겐		지	겐		지
	겐		지	겐		겐	겐	지	겐		지

림	칭				칭				칭		
	칭				칭			칭			

장구	뎡		더	뎡		뎡		더	뎡		더
	뎡		더	뎡		뎡	뎡	더	뎡		더

북	궁		구	궁		궁		구	궁		구
	궁		구	궁		궁	궁	구	궁		구

〈기본가락 : 6채〉

쇠	겐		겐		지	겐		저	겐	
---	---	--	---	--	---	---	--	---	---	--

림	칭									
---	---	--	--	--	--	--	--	--	--	--

장구	뎡		뎡		더	뎡		더	뎡	
----	---	--	---	--	---	---	--	---	---	--

북	궁		궁		구	궁		구	궁	
---	---	--	---	--	---	---	--	---	---	--

〈사릉백이〉

자진물이 → 휘몰이 → 좌우치기

자진물이 가락으로 원진을 풀면서(올자진, 달팽이 진) 치배 두줄, 상모 두줄을 만든 후 서로 자리를 바꾸어가면 진물이 놓이게 한다.

마주보는 치배와 가세치기 2회 후 라 사릉별보 원을 만들어 놓는다.

두 번의 진물이 놓이가 끝나면 사방의 껍이들은 각각의 원진을 만들면서 하나의 큰 원진을 만든다.

큰 원에서 휘몰이(옆상치기)하고 맺는다.

〈좌우치기〉

좌우치기 1 → 난타 → 태줄밧들기 → 휘몰이 → 좌우치기 2 → 꺾꺾이

큰 원에서 좌우치기 1(우, 좌, 안, 밖)을 하고 난타를 치며 본부식을 향해 악기별(쇠, 꽂, 장구, 잡색)로 진을 구성한 다음 휘몰이로 맺은 다음 좌우치기 2(치배 : 우, 좌, 뒤, 앞, 상 쇠 : 좌, 우, 앞 뒤)를 한다. 좌우치기를 한 후 명익궁으로 하나의 원진을 만들면서 꺾꺾이가락으로 넘긴다.

〈기본가락 : 좌우치기〉

쇠	꺾			꺾		치	꺾		치꺾	꺾		치
	꺾			꺾		치	꺾		치꺾	꺾		치
	꺾			꺾	꺾	꺾	꺾			꺾		

장	장											
	장											
	장											

장구	명			딱		딱	궁		따	궁	딱	
	명			딱		딱	궁		따	궁	딱	
	명			터	터	터	명			딱		

북	궁			구			궁		구	궁		
	궁			구			궁		구	궁		
	궁			구			궁			궁		

〈개인놀이〉

자진몰이 → 휘몰이 → 개인놀이

자진몰이로 하나의 큰 원을 만들로 바로 달팽이 진을 만든다. 달팽이 진 형성 후 휘몰이(옆상치기)로 맺은 후 난타를 치며 대형을 바꾸어 개인놀이를 한다.

〈마무리〉

자진몰이 → 휘몰이 → 인사굿 → 굿거리(퇴장)



부록1) 삼봉두레풍물의 가락보와 진풀이

1. 길놀이 : 올림(난타)→휘몰이→굿거리

- 본부석 좌 혹은 우측에 의지해 차례별로 정렬
- 올림과 휘몰이로 티벌림을 한 후
- 굿거리 장단을 치며 두줄로 입장한다.



2. 자진몰이→휘몰이→인사굿

- 두줄로 입장하여 두개의 원을 만든다.
- 원이 만들어지면 자진몰이→휘몰이(옆상치기)장단으로 이어져 뗏고, 인사를 한다.
- 인사굿은 1회를 치면서 원 바깥쪽을 향해 돌아 인사한다.



3. 자진몰이(짜드름)→휘몰이

- 자진몰이(짜드름, 까치걸음)가락을 치며 각각의 원에서 양쪽으로 테극진을 돌아 나온다.
- 이때 소고 치배는 원안에 남아 각각의 두개의 원을 형성하게 되며, 각기 반대 방향으로 돌게된다.
- 휘몰이 장단으로 넘어가 옆상치기를 한 후 맺는다.



4. 고사반 : 자진몰이(도입2장단→반삼채)→고사반

- 자진몰이 도입 2장단 후 반삼채를 치며 원을 풀고 고사반 대형을 갖는다.
- 고사상을 중심으로 V자 대형을 갖추고 고사반이 진행된다.
- 고사반이 끝나면 휘몰이로 맺고 고사상을 향해 고사 인사를 풍물소리 울리며 3회 하게된다.



5. 당산벌림 : 자진몰이(도입2장단)→울림(난타)→휘몰이→울림(난타)→자진몰이(버꾸놀이)→잡색놀음

- 반삼채를 치며 당산벌림을 한다.
- 삼채를 맺고 울림으로 풀고 휘몰이
- 휘몰이에서 소고치배를 불러내어 양상을 친다.
- 휘몰이(양상) 맺고 울림으로 풀때 소고 치배는 뒤로 물러서며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자진몰이로 이어지며 소고놀음과 잡색놀음이 차례로 펼쳐진다.



6. 달팽이 말기 : 자진몰이→찍찍이→자진삼채→휘몰이→맷기

- 자진몰이를 치며 달팽이 말기를 한다.
- 달팽이 진에서 찍찍이 장단을 친다.
- 찍찍이 장단 후 자진삼채로 몰아 휘몰이로 넘어간다.
- 휘몰이 장단에서 가락의 변화를 주며 그에 따라 걷기→놀이→옆상치기를 변화하여 맷는다.



7. 칠채

- 칠채로 달팽이를 풀며 2줄
- 서로 반대 방향에서 달팽이 말기
- 풀고 또 다른 방향에서 달팽이
- 다시 가운데로 모여서 하나의 달팽이



8. 육채→자진삼채→휘몰이

- 달팽이 진에서 육채→자진삼채→휘몰이로 이어진다.
- 휘몰이에서 옆상치기하고 맷는다.



9. 사롱백이

- 자진몰이로 달팽이를 풀어 사롱을 형성한다.
- 마주보는 치매와 가세치기 2회
- 가세치기 후 각 사롱별로 원을 만들어 논다.
- 상쇠가 각 사롱을 이동하며 풀어 하난의 큰 원을 중앙에 만든다.
- 큰 원에서 휘몰이(엽상치기)하고 맺는다.



10. 좌우치기1→난타→네줄 만들기→좌우치기2

- 큰원에서 좌우치기1(우, 좌, 안, 밖)
- 좌우치기 끝나자마자 곧바로 난타를 치며 뒤이가 본부석을 향해 네줄(악기별)을 만든다.
- 네줄로 휘몰이를 치고 맺는다.
- 좌우치기2 : *치매 : 우, 좌, 뒤, 앞 *상쇠 : 좌, 우, 앞, 뒤



11. 자진몰이 치며 큰원→달팽이→휘몰이→맺고→개인놀이

- 자진몰이를 치며 하나의 큰 원을 만들고
- 이어서 곧바로 달팽이진을 만든다.
- 달팽이가 형성되면 휘몰이로 넘어가고
- 휘몰이 장단에서 가락의 변화를 주며 그에 따라 걷기→놀이→엽상치기로 변화하여 맺는다.
- 난타를 치며 대형을 바꾸어 개인놀이가 이어진다.



12. 개인놀이 : 쇠, 북, 소고, 장구, 버나, 12발



〈북놀이〉



〈상쇠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버나돌리기〉



〈12발 상모〉

13. 자진몰이→휘몰이→인사굿→굿거리(퇴장)

- 개인놀이가 끝나면 자진몰이를 치며 하나의 큰 원을 만든다.
- 큰원이 형성되면 휘몰이를 흥겹게 울리고 맺는다.
- 인사굿을 치며 인사하고 굿거리를 치며 퇴장한다.



※ 2009년 12월 20일(삼봉두레풍물 재연)



※ 2010년 10월 1일(남양주시 다산문화제)





※ 2010년 10월 17일(화도 장터축제)





※ 2010년 10월 28일(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명 기술대전)





※ 2010년 10월 31일(남양주시 국악지부 국악발표회)





※ 2009 ~ 2010년 연습장면





※ 가락채보장면



여 백

전통주 -
제조방법에 대한 소고



전 통 주

2011

金聖圭

목 차

I. 전통주 제조의 기원	100
II. 원료의 선택	162
III. 누룩의 기능	166
IV. 양조용수	173
V. 미생물의 종류와 멸균	174
VI. 전통주 제조	180
VII. 전통주의 품질 평가	188
VIII. 양토 음식의 종류	191

1. 傳統酒 製造의 起源

지금부터 8,000~8,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과 이라크 티그리스 강 주변에서 생활하던 슈메르인은 곡물(보리)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었으며 일본인 시미즈 세이지는 산속에서 생활하던 중 월송이치 도토리야 벼루로 술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왕운기, 삼국사기 위지동이전(고구려 원)에서 술과 발효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일본은 백제인 수수보리(= 술 지르는 사람)가 누룩과 술 제조법을 전한 것으로 고사기의 중권(웅신권황초)에서 언급하고 있다.

1. 주류의 정의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분해 작용으로 알코올과 기타 여러 성분으로 생성된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용액을 말한다.

발효는 당분(유기화합물,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변화되고 산소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과 효소가 작용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탄산가스등이 생성되는 과정을 발효라고 한다.

2. 여과에 따른 분류

(1). 탁주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되어있는 원료나 전분당과 극, 알을 첨가하여 발효 후 여과 하려 제정된 것을 말한다.

(2). 약주류

곡류, 전분이 함유되어 있는 원료 또는 전분당과 극 및 물을 혼합하여 발효한 술 맛을 이라 제정된 것이다.

3. 전통주 제조의 기본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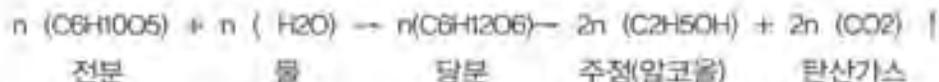
(1). 전한물 유기농 배, 찹, 부러 등 맛이 좋은 잡곡과 물을 이용한다.

- (9). 여름철에 적정 온도에서 발효가 잘된 자연누룩과 배양효모를 사용한다.
- (10). 쌀과 누룩을 혼합할 때 청결하고 위생적인 도구와 발효용기를 사용한다.
- (11). 부기물이 풍부하고 향기 있는 자연생수를 사용한다.
- (12). 친환경 스테인레스 발효용기에 원료를 담아 온도가 25 ℃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 (13). 발효 초기 2일간은 산소가 공급되어 효소가 활성화되도록 잘 저어준다.

4. 발효용 원료

곡류나 감자 등 서유는 전분질 원료이고 포도, 사과 등 과일류는 당분질 원료라고 한다. 곡류(starch)는 전분당화효소(dianstase), 누룩을 첨가하여 당분(sugar)으로 만들고 다시 효모(Yeast)를 첨가하여 에틸알코올 = 에탄올 = CH₃CH₂OH 을 만든다. 그러나 에틸알코올 = 에탄올 = CH₃CH₂OH 은 눈을 멀게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한편 과일류는 자체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당분에 효모(Yeast)를 첨가하여 에틸알코올 + 물(H₂O) + 이산화탄소(CO₂)를 생성한다.

- (1). 전분을 주성분으로 한 곡류 및 감자류가 있다.
- (2). 당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과일 등이 있다.
- (3). 특유의 종류는 뭉쌀, 찹쌀, 보리, 기장, 콩, 밀, 초, 갈자, 수수, 기장, 옥수수, 고구마 등이 있다.
- (4). 누룩을 만드는 원료는 밀, 녹두, 콩, 멥쌀, 찹쌀, 보리, 메밀, 쌀 등이 있다.
- (5). 약용으로 사용하는 원료에는 계피, 생지황, 당귀, 오미자, 대추, 전피, 생강, 송이버섯, 부처, 복향 등이 있다.
- (6). 향을 낼 때 사용하는 원료는 진달래, 연꽃, 국화, 냉이, 배화, 갈미, 복숭아꽃, 동백꽃, 산구꽃, 송명유, 송잎, 송화, 죽엽 등이 있다.



당화할 때는 당화효소제(아밀라아제)가 관여하므로 발효할 때는 효모가 필요하다.

쌀 1 kg 으로 술을 만들면 25 ℓ(5%) 술이 1.82 ℓ 생산되고 고구마 1 kg 은 25 ℓ(5%)

습이 0.82 ℓ 가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전동주(박진리)는 쌀 1 kg 을 담으면 대략 6 ~ (5) 습 7 ℓ 가 생산된다. 불과 고두밥의 비율은 쌀 1 kg 당 13-16 ℓ 의 물을 사용하는데 1.0 ℓ 의 양이면 16도, 1.5 ℓ 의 양이면 17도, 1.4 ℓ 의 양이면 18 도 정도의 알코올이 생성된다. 보통 쌀 1 kg + 누에 100 g + 효모 3 g + 물 1.5 ℓ 로 발효하거나 쌀 5 kg + 물 5 ℓ + 개량누룩 220 g + 건조효모 30 g 정도로 발효하기도 한다.

II. 原料의 選擇

일반에 따라 옥수수 전동주, 보리, 보리알, 메밀 전동주(쌀의 10 % 첨가), 참알, 참알보리, 쌀 옥수수, 현미 전동주(5-10% 첨가), 밀가루 전동주(쌀 50% + 밀가루 20%), 좁쌀, 쌀 + 군고구마 알 전동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쌀, 참알, 밀, 보리, 옥수수, 수수, 고구마, 김차, 갈래류, 과일류, 코코아, 커피 등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쌀

현미는 껍에서 알겨름을 제거한 것이고 백미는 쌀겨를 제거한 것이다.

현미는 과피, 종피, 배유, 호분층, 배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겨름은 과피, 종피, 호분층으로 되어 있다.

호분층에는 지방, 단백질등을 함유한다. 현미는 백미보다 알알은 많지만 맛과 소화율이 떨어진다. 쌀 진분은 2-3 μm 정도의 미세입자이며 호화온도가 65-70℃ 정도로서 안정된 호화상태를 유지하고 전도가 낮다.

가능한 알에는 (a) 대립미(대립미 1호) : 튀김 및 알조림 (나) 반찬알(백진주 품종) : 알조림, 식혜 (c) 배알엿알(칠강) : 식혜, 술, 찰누복등 (e) 향미 : 식혜 및 술맛증진 (f) 고식이성유(고아미 2호) : 다이어트용 (g) 흑자색쌀 : 안토시아닌계 색소 (h) 표전주벼(유색미) 등이 있다.

〈쌀의 성분 조성〉

조 성	백 미	현 미
수분(%)	11.8	11.0
단백질(g)	6.8	7.3
지방(g)	1.4	2.5
탄수화물(당질 g)	79.3	76.8
탄수화물(섬유질 g)	0.7	1.3
회분(g)	0.5	1.2
무기질(mg) 칼슘	11.0	41.0
무기질(mg) 인	103.0	284.0
무기질(mg) 철	1.0	2.1
비타민(mg) B1	0.15	0.3
비타민(mg) B2	0.06	0.1
비타민(mg) 나이아신	4.9	8.1
비고		

2. 보리

보리는 부피, 라미 및 종피, 호분층, 내배유로 되어 있는데 겉보리는 부피, 라미, 종피 및 호분층을 도정하여 정백으로 이용하고 쌀보리는 과피, 종피 및 호분층을 도정하여 정백으로 이용한다. 겉보리는 소화율이 83% 정도, 쌀보리는 소화율이 85% 정도 된다. 보리는 조식이 탄탄하여 소화율과 호화를 높이기 위하여 알맹이 하에 낱자보리로 이용한다. 겉보리는 쌀보리보다 회분, 섬유소, 비타민류는 많지만 당질은 적게 함유되어 있다.

〈보리의 성분 조성〉

조 성	겉보리	낱자보리	쌀보리
수분(%)	13.8	13.5	14.0
단백질(g)	10.6	10.5	10.2
지방(g)	1.8	1.7	2.0
탄수화물(당질 g)	68.2	71.2	70.4
탄수화물(섬유질 g)	3.9	1.8	0.7
회분(g)	2.7	1.4	0.9
무기질(mg) 칼슘	43.0	44.0	40.0
무기질(mg) 인	360.0	240.0	140.0

부기질(mg) 총	5.4	3.3	3.0
비타민(mg) B1	0.91	0.26	0.18
비타민(mg) B2	0.1		
비타민(mg) 나이아신	8.9	6.0	2.5
마고			

3. 밀

쌀과 보리는 매질이 단단하고 외피가 얇아 도립으로 외피제거가 유리하나 밀은 내부 매질도 함께 도립할 때 부서지기 때문에 분쇄하여 이용한다. 밀의 양과은 고량 의 권이 도립으로 세기가 더럽기 때문에 밀은 가루로 만들어 분을 가하여 반죽하면 단백질인 글루텐에 의해서 고유의 쫄면질이 생긴다.

4. 고구마

〈전분의 종류〉

구분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밀	쌀	타피오카
형태	다면형	달걀형	다면형	오목형	다면형	다면형
크기(μm)	20~40	5~100	6~21	5~40	2~8	4~35
평균(μm)	18	50	16	30	4	17
수분(%)	18	18	13	12	13	13
단백질(%)	0.1	0	0.3	0.38	0.07	0.02
지방(%)	0.1	0.05	0	0.07	0	0
회분(%)	0.3	0.57	0.08	0.17	0.1	0.16
인(%)	0.015	0.176	0.045	0.149	0.015	0.017
아밀로오스(%)	19	25	25	30	19	17
포화온도(℃)	72.5	64.5	86.5	87.3	63.6	69.6

옥수수, 밀, 쌀과 같은 곡류의 전분의 입자는 소형이나 고구마와 감자와 태형으로 분리가 용이한데 먼저 조직을 파쇄하여 전분을 씻어낸 후 함유된 섬유소와 단백질을 분리 제거한다.

고구마의 만수화율은 대부분 전분이나 지방, 포도당, 과당, 에스트린 등이 들어있다.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분은 감소하고 환원당은 증가한다.

5. 감자

감자는 0℃에 저장 시 전분이 감소하고 -2℃에 저장 시 얼어서 부패한다. 8~10℃에서는 감자가 잘 익는다. 원료감자를 세척하고 마쇄한 다음 세척하여 생전분을 분리하고 황수 및 건조 후 산쇄하여 알코올 발효용등으로 사용한다.

6. 옥수수

옥수수는 함옥수수, 일반옥수수, 고아밀로오스 옥수수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자 5.5~7%, 배아 8~12%, 배유 84.3~85%로 구성되어 있다. 유지성분을 함유한 배아가 12%, 전분 70%, 단백질 9%로 되어 있으며 전분에는 아밀로오스 15~33%, 아밀로 펙틴 67~85%로 되어 있다. 옥수수 전분은 원료를 아황산에 침적하여 제조하여 단백질에서 분리가 잘 되도록 하고 장균오염을 방지한다. 제조법은 건조법, 혼적법, 순환형 습식법이 있다.

7. 콩

단백질을 약 40% 함유하고 글루부린, 알부민, 라이진, 아소유신이 많다. 라놀레산이 없고 당질은 1% 이하 함유한다.

8. 수수

수수는 단백질(9.5~10%)과 지방(3.1%), 당질(7%)이 많이 들어있는 차수수를 이용하여 수수로 곶감주를 만들기도 한다.

9. 기장

기장은 단백질 11.4%, 지방 4.82%, 당질 64.5% 등이 들어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오크밥으로 이용하고 일본에서는 기장술을 만들어 이용한다.

10. 조

조는 동맥경화증을 경감시켜주는데 단백질 9~10%, 당질 72~73%, 섬유소 2~3%로서 식용이나 주류 제조에 이용한다.

11. 메밀

메밀은 rutin 성분이 들어있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며 단

박질 10~15%, 지방 2%, 전분인 아밀로호스 25 % 정도 들어있다. 매일 약정리도 발효하여 이용되고 있다.

12. 녹두

당질이 55%, 단백질 21 % 정도 들어있으며 소화가 용이하다. 콩이 찬식량은 한가 하는 것이 좋다. 녹두전은 녹두를 불에 충분히 끓여 껍질을 벗긴 다음에 먹서기로 갈아 마. 김치를 넣고 소금으로 녹두물의 간을 맞추고 물을 적당히 배합하여 파부려 국에 끓인다.

Ⅲ. 누룩의 機能

전통누룩에는 사상균, 효모, 세균, *Rhizopus*(기미줄 곰팡이), *Aspergillus*(약균), *Mucor*(뿔곰팡이) 등 각종 미생물이 들어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Aspergillus* 속에는 황국균, 백국균, 흑국균의 3 가지가 있는데

황국균(*Aspergillus oryzae*)은 전통주 제조에 사용하며 백색, 황색, 황록색을 나타내고 단맛과 전분당화력과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다. 백국균(*Aspergillus kawachii*, *Aspergillus shirogumii*)는 흑국균의 변이주인데 신맛과 단맛을 낸다. 흑국균(*Aspergillus niger*, *Aspergillus awamori*)은 각각 주정용, 흑갈색과 양조용, 갈색포자로서 단맛과 신맛을 낸다. *Saccharomyces cerevisiae* 5~10 μ m, 30 μ m 내외, Mold(곰팡이)는 영양생태의 대부분이 균사체(mycelium)를 형성하는 사상균. *Mucor* 속은 포자낭명이 균사의 임의 부위에서 발생하고 질량은 백색이다. *Rhizopus* 속은 *amylase* 생성력이 좋고 고구마 감자 전분을 분해한다. *Bacillus subtilis*(고초균)은 0.7~0.8 × 2.0~3.0 μ m 크기이다. *Aspergillus glaucus*는 *amylase* 효소 생성이 많은 국균속이다. *Saccharomyces cerevisiae* 효모는 당화와 발효력이 우수하다.

기미줄 곰팡이(*Rhizopus*)와 뿔곰팡이(*Mucor*)은 당화력이 높고 식주용 효모는 4~7 μ m이며 최적온도는 23~24 °C이며 클아빈으로 증식하고, 주형 생장 향력이 높다.

1. 누룩의 종류

기름에는 따뜻한 방에 벗질을 하고 그 위에서 10 여일 띄운다. 누룩 배양기를 이용하거나 그후 벗질으로 부어서 칩마 밑에 매달아 두면 후숙과 건조가 진행된다. 담

황색 또는 회백색을 띠고 특유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식물 재래누룩을 구입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2. 필수 기자재

- (1). 각종원료(쌀), 입국, 펄트병, 온도계, 비아리, 눈금실린더 (2). 비송재, 주정계
- (3). 멸균용 바중재 (4). 발효용기 (5). 누룩틀(제조용기), 천 (6). 여과망
- (7). 분쇄기 (8). 향온기(발효실) (9). 증사기(찜솥) (10). 기타 용기 등
- (11). 저울 (12) 선별기 (13). 건조기 (14). 저온저장고 (15). 멸균기 (16). 물
- (16). pH 측정기 (17). 당도계 (18). 현미경 (19). 시약 (20). 삼각 플라스크
- (21). 누룩(재래누룩 + 개량누룩) (22). 철산 (23). 효모 (24). 실날 (25). 알코올 측정기 (26). 벗살, 광복천, 비닐 (27). 배합용기 (28). 물

3. 원료의 종류

- (1). 쌀 (2). 밀 (3). 누부 (4). 누룩 (5). 황곡 (6). 백곡 (7). 효모 및 철산
- (8). 보리 등 기타 곡류 (9). 물 (10). 수수 (11). 벗살, 축 (12). 약전초 등

4. 누룩 성형

누룩에는 낱곡류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효소와 Rhizopus(거미줄 곰팡이), Aspergillus(국균), Absidia(황 털곰팡이), Mucor(털곰팡이) 등의 사상균과 Saccharomyces 속의 효모 및 고초균, 철산균 기타 균류가 다량 번식하여 각종 효소를 생성분비하고 있는 발효재의 일종이다. 입국은 Aspergillus kawachi, 분국은 Aspergillus stercorarii가 발효작용을 한다. 건분 당화력, 단백질 분해력이 많은 백곡 균은 3~4.5 μm 크기이며 30~35℃에서 당화력, 산(酸)생성력이 높다.

(1). 누룩 만들기 좋은날

- ① 여름철 삼복중이라도 장마기간은 피한다.
- ② 8월 말 9월 초순경 맑고 건조한 날씨가 좋다.
- ③ 외 가정에 건조기가 있더라도 맑고 건조한날을 선택한다.

(2). 누룩의 환경조건

① 수분 : 25 % 전후

② 온도 : 초기에 25 ° 수분함량으로 30-40°C 상태로 5-7 일 유지하고 다음 1 주일은 30-35 ° C 유지하며 그다음은 30 ° C 정도를 유지한후 천천히 건조시킨다.

③ 크기와 두께 : 직경은 16 cm 내외, 두께는 3.5 cm 정도

④ 천공철 : 중간에 공기층이 없도록 단단히 뭉는다.

⑤ 발효기간 : 7일 - 40일 간 발효시킨다.

(3). 원료 혼합 비율 (총 15 kg)

① 밀겉질(밀겨울) 65 % 9.75 kg ② 쌀 10 % 1.5 kg

③ 녹두 20 % 3.0 kg ④ 보리 5 % 0.75 kg

⑤ 원료 혼합 비율(총 44 kg)

콩알 15 %, 쌀 10 %, 녹두 20 %, 보리 5 % 비율로 혼합하는데 콩알(28.6 kg), 쌀(4.4 kg), 녹두(8.8 kg), 보리(2.2 kg)를 선별, 세척, 건조한다.(총 44 kg)

⑥ 밀을 100 % 사용하기도 한다.

(4). 누룩의 성형 및 배양

① 밀의 선별, 세척, 건조

합작물: 죽성아, 줄기 등을 선별하고 충실한 알과 사용한다.

② 분쇄 - 공개 분쇄된것은 5-6 % 고운체로 걸러내고 거칠게 분쇄한 것은 분말 전체를 사용한다.

③ 절수

원료부개의 30 % 정도 물을 적절하게 혼합한다.

(원료 15 kg 에는 물 4.5 l , 원료 44 kg 일 때는 물을 13.2 l 물과 혼합한다)

④ 침윤

수분을 흡수한 저부가 부드러워지도록 1-2 시간 밀어둔 후 다시 섞어 수분 분포를 고르게 한다.

⑤ 누룩덩기(성형)

일정한 무게를 달아 누룩과 균양에 원형 커박자를 놓고 원은 깔고 누룩을 넣으면서 바깥을 고르게 잘 밀어 성형한다.

증상부원이 내이도라 하면 열이 증상으로 집중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④. 배양

배양실 바닥에 실, 옥, 마른 켈임 등을 깔고 심어진 누룩을 올려놓는다.

- ① 초기 : 9 일간은 35~40 ℃ (또 45 ℃ 이하) 유지
- ② 중기 : 7 일간은 30~35 ℃
- ③ 후기 : 3 주째부터는 30℃ 유지하고 천천히 건조시킨다.
- ④ 말기 : 1 개월 정도 건조 숙성한 후 분쇄 사용된다.
- ⑤ 누룩의 무게는 1.1 kg 정도가 이상적이다.

수분 12 % 이하, 당화력 300 이상, 미생물이 충분히 번식하고 활회색의 표
는 회백색을 띠며 누룩 특유의 구수한 향취가 있어야 한다.

5. 효모

효모는 Yeast 또는 Hefe 라고 하는데 기원전 4000 년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소왕
의 주석산, 젖산 첨가로 유해 박테리아를 억제하여 이용하였다.

단세포 생활을 하고 출아법으로 증식을 하며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토양, 나뭇잎,
줄기, 꿀벌의 소화기관에 들어있어 알코올이나 비타민도 생성한다. 구형, 달걀형, 타
원형이며 3~4 μm 또는 7~8 μm 정도 크기이며 *Saccharomyces* 속 코리아누스종이 많
이 이용되고 있다.

①. 효모는 공기속에서 산소호흡을 하며 에너지를 만들고 이트르코를 사용하는 생
물체이다. 산소가 떨어지면 시트르코 사용을 중지하고 무산소 대사활동을 하여 발효
를 시작한다.

효모는 무산소 상태에서 실탄을 알코올과 이산화 탄소로 분해한다.

효모는 알코올이 14 %를 넘으면 죽는다. 효모류엔 제외된 진균류는 호기성이다.

최저증식온도 : 세균 11℃, 곰팡이 8℃, 효모 5℃, 대장균 8℃

최고 증식 온도 : 세균 90℃ 이상, 곰팡이 60℃, 효모 50℃ 전후, 대장균 48℃.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도 익은 상태를 발효라고하고 시어져 먹을 수 없게 되는 것
을 부패라고 한다.

호기적조건의 미생물은 최종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지만 혐기적조건에서
는 중간대사산물인 유기산이나 메탄등이 생성된다. 알코올을 발효시키는 효모균
(*Saccharomyces cerevisiae*, 이스트, *Yeast*)은 통상 혐기성 미생물 종류에 속한다.

효모는 탄수화물을 효모로 필요시킴 추정을 의식하여 만든 것이고 주정은 부수일 고음(음을 함유하지 않은 알코올)에 가까운 고농도의 알코올을 말한다.

효모균은 영양분이 분출분 껍 때는 원처럼 길게 늘어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증분할 때는 정상적인 줄아짐으로 증식한다. 전주효모는 수분함량이 80% 정도 된다. 알 안에서 일어나는 마생물에 의한 음식물의 분해 작용은 29% 정도의 온도와 용존산소가 없는 혐기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효모가 당을 분해하여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과도 매우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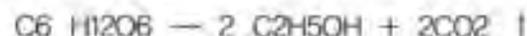
알코올 발효와는 달리 식초(vinogar)는 발효에 의해 생산된 알코올을 초산으로 산화시킨 것으로 식초는 100 ml 당 적어도 4 g 인 초산 4 % (40-grain vinegar)를 함유해야한다.



Acetobacter

(1). 효모의 작용

- ㉠ 포도당을 필요시킴 탄산가스를 생성한다.
- ㉡ 발효하여 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유기산등을 생성한다.
- ㉢ 혐기적 발효



- ㉣ 호기적 발효



- ㉤ 효모의 영양성분은 황산암모늄, 인산우소칼슘이다.

효소제는 α - 아밀라이제

- ㉦ 효모는 알코올이 13~20 % 가 되면 2-드레스를 알아 자개 효소 발생으로 상해한다.

- ㉧ 전분을 누룩에 들어있는 효소가 덩으로 분해하고 당을 효모가 알코올로 변화시킨다.

6. 효소

효소류의 생물체내 존재부위는 일정치 않다. 단백질 또는 단백질과 촉매작용에 필

수적인 저분자 화합물이 결합한 고분자 화합물이며 분자량은 대략 $10^4 \sim 10^6$ 범위에 있다. 유기산 대사에 관여하는 산화환원효소계(만수소효소, 수소보효소)는 주로 세포 내 과립체 mitochondria 에 존재하며 단백질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류는 주로 핵이나 미소과립체 조면 microsoma 에 존재한다. 온도가 $20 \sim 60^\circ\text{C}$ 의 중성부근에서 높은 촉매능력을 나타낸다.

생물체내에서 분비되어 생물화학적 변화를 촉매 하는 단백질 교질(이질자)이다. 저온에서 작용하고 고온(80°C)에서는 파괴된다. 온도, pH, 작용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분리해도 기능에는 변함이 없고 불, 약한 산, 알칼리에 녹으며 단백질 응고체에 침전된다.

㉑. α - 아밀라제는 타액이나 맥아에 있으며 고초균이나 국균(*Aspergillus*)에서 많이 생산된다. 전분의 α -1, 4- 글루코지드 결합을 가수분해하여 포도당 6 개로 된 호징(Dextrin)으로 만들고 맥아당을 생성한다.

㉒. β - 아밀라제

엠택균에 들어 있으며 아밀로스나 아밀로펙틴의 미환원성 말단에서 맥아당을 분리하므로 당화효소이고 아밀로말토시다아제(*Amylomaltosidase*) 라고도 한다.

㉓. 글루코아밀라아제(*Glucoamylase*)

전분의 미환원성 말단부터 포도당을 분리하는 당화형 아밀라아제이다.

㉔. 말타제(*Maltase*) : 국균, 발아곡류에 있으며 아밀라아제로 생성된 맥아당을 포도당으로 가수분해한다.

㉕. 인버타제(*Invertase*) : 효모, 국균에 있으며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한다.

㉖. 프로테아제(*Protease*) :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고 아미노산을 생성하는데 프로테아제와 펩티다아제가 작용한다.

㉗. 리파제(*Lipase*) : 동식물계에 있으며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으로 분해한다.

㉘. 산화효소 : 국균, 효모에 들어있으며 *Oxidase*, *Peroxidase*, 기타라제등으로 술의 색에 영향을 미친다.

㉙. *Zymase* : 효모에 들어있는 효소로 당당류(6 당당)를 주정과 탄산가스(CO_2)로 만든다.

㉚. 펙티나제(*Pectinase*) : 맥아나 곰팡이에 들어있고 펙틴이나 펙틴산을 가수분해하여 적분자로 만드는 효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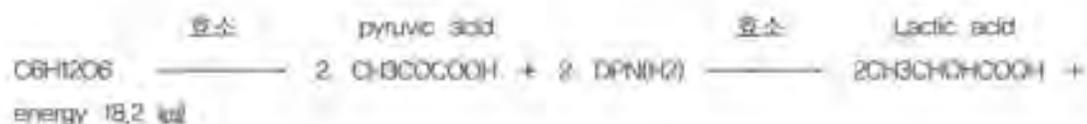
〈미생물과 관련된 酵素〉

효 소	기 질	주요 산물
Invertase	Sucrose	Glucose, Fructose
Maltase	Maltose	Glucose
Ribonuclease	Ribonucleic acid	Nucleotide
Lactate dehydrogenase	Lactic acid	Pyruvic acid
Proteinase	Protein	Peptidem amino acid
Amylase	Starch	Dextrin, maltose, glucose
Lipase	Lipid	Glycerol, fatty acid
Catalase	H ₂ O ₂	H ₂ O
Urease	Urea	CO ₂ , ammonia

* 유산(lactic acid) = C₃H₆O₃ 또는 CH₃CH(OH)COOH 1780년 K.W. 쉴레가 산매한 우유 속에서 발견하였으며 동식물계에 널리 존재한다.

① 아세트 알데히드 : CH₃CHO

면료가 밥알, 찹쌀, 밀, 옥수수, 콩, 완, 조 등 곡류로 만든 발효빵에는 전분누룩, 입작, 분곡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타액의 효소도 들어있는데 당화효소(amylase)는 전분을 분해하여 당분으로 전환시키고 단백 분해효소(proteinase)는 단백질을 분해시켜 아미노산(향기성분)으로 전환시킨다.



- * ATP and ADP = adenosine triphosphate and adenosine diphosphate
- * DPN = diphosphopyridine nucleotide, a coenzyme involved in hydrogen transfer
- * 에틸알코올 = 에탄올 = CH₃CH₂OH, 메틸알코올=메탄올=CH₃OH 에탄올은 부식, 액체로 휘발성, 휘발성이며 비중이 0.789 g 이다.
- * 박테리아는 하루에 한 마리가 약 2800억 배로 증식할 수 있으며 결핵균을 관찰하는 데는 평행현미경을 사용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평행현미경

의 측정한계는 0.2 μm 이고 전자현미경은 0.001 μm 이며 원자 현미경은 0.01 nm 가 측정한계이다.

1개의 효소는 1 개의 물질만을 분해하며 섬유소는 cellulase 로 분해하는데 포도당이 10,000 개 이상 연결되어있는 고분자물질이다.

코호균(Bacillus subtilis)은 모든 빛깔에서 재취할 수 있는 세균이며 단백질 분해 능력이 우수하다. 호냉형 미생물은 20 °C 이상에서는 사멸된다. 가정의 냉장고를 4-6°C 로 유지할 경우 오렌지 주스를 상할 수 있고 치즈에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

1897년 Buchner 는 효모세포들을 분쇄, 세포 없는 액체 상태로 만들어도 알코올 발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微生物은 온도의 일교차가 50 °C 에 이르는 고비서아에도, - 50 °C 에 달하는 극지의 빙산에도, 90 °C 에 이르는 온천에도 존재한다.

IV. 釀造用水

좋은 맛이 좋으면서 부패부영하고 잡미와 잡취가 없으며 중성-약알칼리성, 저염 유효성분 함유, 유해 미생물이나 성분이 없는 자연 영수인 정결한 물을 선택한다. 보통 사용량의 20 배 정도로 수량도 풍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료수의 수질기준에 준하고 있는데 pH : 5.8~8.5, 암모니아성 질소(ppm) : 0.5 이하, 철산성 질소 : 10 이하, 유기물 : 10 이하, 황분 : 0.3 이하, 망간 : 0.3 이하, 중합 잔류물 : 500 이하, 염소이온 : 150 이하, 경도 : 300 이하, 대장균 : 음성(-)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유효성분 : 칼륨, 마그네슘, 칼슘, 염소 등 이다.
- ② 유해성분 : 철, 망간, 동, 아질산, 암모니아, 유기물 등이다.
- ③ 칼륨 : 미생물의 생육과 발효에 필수적인 원소이다.
- ④ 마그네슘 : 미생물 생육의 필수 원소이며 염소, 탄산 등의 염강태로 물에 들어 있다.

(6). 철 : 주철의 착색에 관계되며 향미를 나쁘게 한다.

(7). 말긴 : 젖빛에서 착색의 촉매작용을 하는 유해성분이며 유산균 생육의 필수 원소이다.

(8). 동 : 필요치에서 용출될 수 있으며 흡착하게 만든다.

(9). 이온 : 아미노산과 관계되며 저장 중 착색에 주의한다.

(10). 인산 : 산성 인산칼륨을 사용하는데 효모의 증식과 발효에 필요하다.

(11). 염소 : 국의 당화효소 주중에 필요하다. 음기와 풍미를 좋게 한다.

(12). 탄산 : 발습과 함께 완증작용을 한다.

V. 微生物의 種類와 滅菌

(1). 세균(細菌, Bacteria)

세균은 구형 0.5 μ m 또는 막대형 0.2~0.5 \times 1.0~2.0 μ m 이고 단세포로 분열(Division)에 의하여 생육하며 세균과 광합이의 중간위치에 있는 방선균(Actinomycetes)도 광의의 세균류에 포함한다.

(1). 초산균 : 주철을 산화하며 초산(식초)을 만든다. 호기성 단감균이고 액체배양액(발효액)에서 균막을 만들어 식초생체가 난다.

(2). 유산균 : 탄수화물을 발효하여 젖산을 만든다.

(3). 낙산균 : 전분, 당분을 발효하는 대합성균으로 부패취취 대고 산에는 약하다 발육온도는 30~40 °C 이다.

(4). 고초균 : 포양, 전분, 곡류에 갖고 탄백질을 분해하며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며 고온, 파습시에 발생하고 37~40 °C 가 발육온도이다.

(5). 대장균 : 장내에 서식하는 혐기성 감균이다. 수질검사에서 대장균이 있으면 수질오염의 지표가 된다.

(6). 화학균 : 칸균으로 청주를 부패시킨다. 발육온도는 30~30 °C 이다.

식품독의 원인이 되는 세균에는 Clostridium, Staphylococcus, Salmonella, Proteus, Vibrio, Bacillus, Escherichia 등이 있다.

요구르트 등의 발효유제조에는 Streptococcus, Lactobacillus, Leuconostoc 등이 관여하고 치즈 발효에는 Lactobacillus, Streptococcus 등의 세균이 이용되고 있다.

원장발효에는 *Aspergillus oryzae*, *Zygosaccharomyces*, *Saccharomyces*, *Pichia*, *Hansenula*, *Debaryomyces*, *Torulopsis*, *Bacillus subtilis*, *Bacillus mesentericus* 등이 있다.

고추장은 *Aspergillus oryzae*, *Saccharomyces*, *Hansenula*, *Debaryomyces*, *Torulopsis*, *Bacillus subtilis*, *Candida* 등이 있다.

식초는 *Acetobacter aceti*, *Acetobacter acetorum*, *Acetobacter schutzenbachii*, *Acetobacter pasteurianum* 등이 있다.

Kefir 스타터는 *Saccharomyces fragilis*, 유산균 (*Streptococcus lactis*, *Streptococcus crameri*, *Leuconostoc dextranicum*) Kouris 스타터는 *Streptococcus lactis*, *Saccharomyces* 속 등이 있다.

Amylase 효소를 생성하는 미생물은 *Aspergillus oryzae*, *Aspergillus ussuri*, *Aspergillus awamori*, *Aspergillus inui*, *Bacillus subtilis*, *Bacillus mesentericus*, *Bacillus amyloliquefaciens*, *Bacillus stearothermophilus* 등이 있다.

Lactase 효소 생성 미생물은 *Saccharomyces fragilis* 가 있고 Protease 효소 생성 미생물은 *Aspergillus oryzae*, *Aspergillus niger*, *Aspergillus saitoi*, *Aspergillus awamori*, *Bacillus subtilis*, *Streptococcus griseus* 등이 있다. Lipase 는 *Candida cylindracea*, *Candida parapsilofitica*, *Sclerotinia libertiana* 등이 이용되고 있다.

(2). 세균의 형태

세균은 형태에 따라 구균(coccus), 간균(bacillus), 나선균(spirillum) 으로 분류하는데 구균에는 분열후에 세포가 떨어지는 단구균(monococcus), 2 개가 연결되어있는 쌍구균(diplococcus), 한방향으로 분열하며 길게 연결되는 연쇄상 구균(streptococcus), 2 방향으로 분열하는 4 연구균(tetrads, vibriococcus), 3 방향으로 분열하는 8 연구균(sarcina), 분열방향이 불규칙적이며 포도송이 모양의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등이 있다.

간균은 단간균(short rod) 과 장간균(long rod) 이 있고 세포의 양단은 보통 동등하게 되어있으나 각형 예각등도 있다.

Corynebacterium 속의 세포는 V, Y, L 모양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나선균중에서 \perp 처럼 회전된 모양을 한 것을 호균(vibrio) 이라 한다.

세균의 크기는 보통 구균은 0.5-1.0 μ m, 간균은 0.5-1 \times 8 μ m 정도의 크기를 나타

넓다(0.5 μ m - 3 μ m 정도)

그러나 작은 것은 0.1~0.2 μ m 이고 큰 것은 10~10 μ m 까지 있는데 필라리아의 가지할 때는 0.2 μ m 이므로 그 이하는 관찰이 불가능하다.

(3). 곰팡이

곰팡이는 진핵세포 생물이며 1개의 세포 속에 많은 핵을 갖는다. 곰팡이의 특색은 실 모양의 균핵 세포를 이루는 점이며 이것을 균사라 부르는데 관찰구조를 이룬다. 균사가 많이 모인 것을 균사체라 한다. 국균속(*Aspergillus*)은 전분당화력과 단백질분해력이 강한 균주가 많이 양조에 이용된다.

사카졸곰팡이(*Rizopus*)는 전분당화력이 강하여 주정제조에 이용된다. 발육온도는 25~30℃ 이다. 맥국균(*Aspergillus kawachi*) 은 보자가 황보색, 구형이고 3~4.5 μ m 이며 35~40℃ 가

발육온도로서 당화력과 산생성력이 강하여 미주나 맥주제조에 이용된다. 세포내에 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유포자세균이라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무포자세균이라 한다. 포자 형성균에는 조기성의 *Bacillus* 속, 후기성의 *Clostridium* 속이 있다.

포자 형성 시에 세포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인 것을 *Bacillus* 형이라 하고 세포의 줄기가 부풀어 오른 것을 *Clostridium* 형, 세포의 한쪽 끝이 부풀어 오른 것을 *Streptococcus* 형 이라고 한다.

- 유포자 : 넌포자, 집합포자, 각낭포자, 닭자포자 등
- 무포자 : 포자낭포자, 분생자, 분갈포자, 후막포자 등

식염과 완력이 있는 곰팡이는 대부분 집합균류이다.

* 곰팡이의 생육과 환경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세균이나 효모에 비하여 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즉 세균이나 효모에 비하여 낮은 수분활량, 즉 높은 pH와 온도영역, 높은 당농도 등의 조건에서도 생육한다. 또한 곰팡이는 세균이나 효모에 비해 보다 낮은 수분활량의 배지나 식품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곰팡이는 Aw(수분활성)가 1에 가까운 배지에서도 생육하며 내건성 곰팡이는 수분활성도 0.02까지도 생육이 가능하다.

곰팡이의 발육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은 균류에 따라 다르다. 곰팡이의 발육에 적합한 온도는 25~30℃로 중온성 이지만 최저 5~10℃로부터 최고 50℃까지 범위가 넓다.

온도는 25~30℃로 중온성 어지지만 최저 -5~-10℃로부터 최고 50℃까지 범위가 넓다. 냉동식품에는 이런 것들이 관여하여 품질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효모

효모는 생활의 대부분을 구형, 제란형 등의 단세포로 생활하며, 주로 줄아에 의해 생식하는 진균류의 총칭이지만 곰팡이나 비섯의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균들과는 구별하여 취급한다. 효모는 응용 미생물학상 매우 중요하며 일코를 발효능력이 강한 종류가 많아 옛날부터 주부의 양조, 빵의 제조에 이용되었다.

* 효모의 형태와 크기

효모의 형태는 배지조성, pH, 배양방법, 배양온도, 배양시간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으나 영양세포의 기본 형태는 구형, 제란형, 타원형, 신장형, 소시지형, 레몬형, 방모양형, 삼각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 효모의 생육방법 - 영양생육 : 효모의 영양세포는 대부분 줄아에 의하여 생육한다. 즉 성숙한 세포의 표면에 딱과 같은 돌기가 생기고, 그것이 점차로 신장되고 핵이 이동되어 원래의 세포와의 사이에 절개가 생겨 새로운 세포가 된다. 원래의 세포를 모세포, 줄아세포를 낭세포라고 한다.

- 포자형성에 의한 생육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서 또는 생활 사이클의 일부로서 사냥포자를 형성하는 효모가 있다. 이러한 효모를 유보자효모 또는 저장포자효모라 부른다. 여기에 비하여 포자를 만들지 않는 것을 무포자효모라 한다. 학주효모(*Saccharomyces cerevisius*)는 산이 많은 pH 2.0~8.5 배양기에서도 주정발효기 우수하고 향취가 명료하다. 원형, 타원형이며 3~7 μ m 크기이다.

주정효모로는 당발원료에는 사카로마이세스 포모셀시스(*Saccharomyces fortisueansis*)가 사용되고 전분발원료에는 사카로마이세스 아와모리(*Saccharomyces awamori*), 발효효가 사용된다.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는 발효이용이 잘 된다.

(5). 바이러스

바이러스라는 말은 독소라는 뜻으로 식물 병원인을 연구하던 초창기에 어과성 독소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즉 세균을 여과할 수 있는 여과막을 통과하면서 병원성을 보이기 때문이었다. 바이러스는 미생물과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 바이러스의 분류

바이러스는 숙주계의 수준에 따라서 식물 바이러스, 동물 바이러스, 미생물 바이러스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식물 바이러스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TMV), 감자 X 바이러스와 같이 식물에 병을 일으키며, 식물조직의 상처를 통하여 감염하거나 곤충의 매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균 바이러스는 흔히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혹은 그냥 파지라고 부른다. 거의 모든 세균의 종에서 한 가지 이상의 파지가 발견되고 있다.

* 편모

세균에는 편모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과 편모가 없고 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다. 편모의 유부, 학생부위, 편모의 수는 세균분류에 있어 지표가 된다.

(6). 열 균

물침중의 모든 미생물을 사멸 또는 제거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열균류는 80-85℃, 5-6 분 + 140-145℃, 3 초간 실시하는 것이고 歐美에서 열균류는 80-85℃, 5-6 분 + 135-150℃, 0.5 - 6 초 범위에서 열균을 실시하고 있다.

(7). 살균

유해 미생물을 일시간에 살균하는 작용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우유를 살균할 때 저온살균은 63℃에서 30 분, 고온 순간 살균은 72-75℃, 15 초, 초고온 살균은 80-85℃, 5-6 분 + 130-135℃, 2-3 초 정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저온살균을 63℃, 30 분, 고온 순간 살균은 72℃, 15 초간 범위를 경하여 살균하고 있다.

병원성 미생물의 저항성을 보면 Mycoplasma 는 70℃에서 10초,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은 72℃에서 20초, BS 균에서 10초, 비릿균의 아포는 85℃에서 5 분정도, 외피 없는 바이러스는 100℃에서 1-25분, Mycobacteria 는 72℃에서 20 초, 세균의 내열포자는 121℃에서 15 분, 원생동물(Protozoa)은 75℃에서 총에 따라 20 분까지, Prions 는 132℃에서 4.0 시간동안 극도의 저항성을 보이므로 세균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식품의 안정성 문제에 관하여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으며 영양소 과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다음은 식품의 저장에 대한 보관온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 세균의 성장과 부패(변질)에 관한 예방법

방 법	적 용 범 위	비 고
4℃에서 냉장	* 병원성 세균과 부패 미생물 생장의 방지 * 리스테리아균 monocytogeneo, yersinia종과 수 많은 균질의 종과 같은 병원성세균은 4℃에서 성장할 수 있다.	
-20℃에서 냉동	* 식품의 장기간저장 미생물 증식이 방지된다. * 생존하는 미생물은 해동시 빠르게 증식한다.	
100℃로 끓임	* 식품에서 세균과 전균류 생장의 불활성화 * 수많은 아포들은 오랫동안 끓여서 없앨 수 있다.	
72℃에서 15초간 살균	* 가장 증식이 잘되는 세균의 불활성화 * 열치르는 급속한 냉각에 의해서 인접아 일어나야 하며 세균이 살아 남 수 있다.	
산성화	* pH를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세균성장방해 * 야채같은 식품의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	
삼투압증가	* 미생물의 증식방해, 식품보존 용도로 사용 * 설탕 또는 소금의 첨가는 삼투압을 증가시킨다. 식품에서 제한된 범위로 적용할 수 있다.	
진공포장	* 고기와 기타 썩기 쉬운 식품의 포장 * 산소의 제거는 호기성 균류의 성장을 방해한다.	
방사선요법 (조사)	* 병원성 세균과 변태 미생물의 불활성화 * 몇몇 나라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VI. 전통주 제조

가. 필수 기자재

- (1). 위도(쌀) (2). 누룩(곰팡이, 세균 등) (3). 효모 (4). 효소 (5). 물 (6). 환경 (온도) (7). 저울 (8). 여과망 (9). 세척기구 (10). 온도계 (11). 측정기구 (12). 기타 부재료 (13). pH 측정기 (14). 주향제 (15). 증자기 (16). 발효용기(大, 中, 小) (17). 당도계 (18). 냉장고 (19). 발효실 (20). 건조기 (21). 차온 저장고 (22) 세척 및 배합용기

(1) Recipe 1 : 찰 옥수수

옥수수 전통주는 2 단계급을 하는데 우선 1 차 때는 쌀을 증미하고 누룩을 혼합하여 밑술을 만든 다음에 2 차로 옥수수와 수수를 세척하여 건조한 다음 분쇄할 때 사용한 엇거름(옥수수의 10분의 1) 을 넣고 갈아서 옥수수 가루와 물을 끓여서 맑은 물이 되도록 옥수수 가루가 비오를 배 까지 끓인다. 바깥할 정도로 식힌 다음에 나머지 엇거름 1 을 넣고 찬물에 타서 적당히 감고후 뿌린다. 술에 있는 쌀의 절반만 1 차 섞어주고 조금 있다가 중간정도 식으면 다시 밑바닥까지 완전히 섞어주어 식힌다. 다시 술에 넣고 2 차로 끓이는 작업을 한다. 피내어 찌꺼기는 따낸 다음 다른 불문 첨가하지 않고 다린 다음에 조량이 되기 전 단계인 별강 색깔이 되었을 때 미리 받들어 놓은 밑술을 첨가한 다음 발효시키고 발효되면 맑은술을 따내고 찌꺼기는 붓과 함께 여과하여 전통주를 만든다.

(2) Recipe 2 : 찰

㉠ 고두밥 준비

- (1). 찰 3 kg을 정립세척후 최소 6~12 시간 물에 불려다가 건지낸다.
(고두밥은 3.75 kg)
- (2). 찰을 바구니에 담아 1~2 시간동안 물기를 뺀다.
- (3). 광복칼에 담아 절통에서 김이나가 시작하면 40~60 분간 쪄다.
- (4). 찰을 쪄고 20 분정도 뜸을 들인다.
- (5). 고두밥이 살짝로 쪄 분리되도록 펼쳐서 누룩을 감고후 섞은 후 발효용기에 넣고 다음에 효모(24 g) + 물(4.2 l)을 첨가한다.
- (6). 이때 효모는 미리 미리에 물 800 cc + 설탕(30 g)을 넣어 효모를 넣고 혼합하여 첨가한다

어 첨가한다.

(7). 발효가 잘 되는 곳에 (23 ℃) 두고 뚜껑을 느슨하게 닫아 발효될 때 기스가 나오도록 하며 1~2 일간은 잘 지켜준다. 온도가 25~27 ℃ 이상 오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일반적으로 발효기간은 25 ℃ 에서는 1주일 정도 걸리고 30 ℃ 에서는 2주일 정도, 15 ℃ 에서는 1개월 정도 소요된다.

ㄷ 원료 비율

쌀(kg)	재래누룩(g)	효모(g)	물첨가량(l)	발효온도(℃)	비 고
3.0	300	24	4.2	25	

ㄹ Recipe 3 : 입국

(1). 백국 : 유기산이 많아 오염되지 않는다.(최고온도 38~40℃)

신맛이 있으며 구연산이나 효소의 기능을 한다.

소주 만들 때 사용한다. 입국 만들 때는 알람비가 좋다.

(2). 황국 : 유기산이 없어 무배하기 쉽다.(최고온도 30~32 ℃)

단맛이 있으며 효소의 기능을 한다.

청주 만들 때 사용한다.

(3). 배양효모는 원료(쌀)의 0.2 %를 사용한다.

가능하면 빵효모(Yeast)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입국의 작업순서

㉑. 처음에 쌀 1 kg을 2 시간 이상 삶에 끓인 다음(손으로 미백시 쌀이 부서질 정도)

3 시간 이상 물 빼기를 한 후 고두밥을 찐다.

㉒. 쌀알이 서로 붙어있지 않도록 고르게 찐다.

㉓. 쌀 1 kg 에 백국 1 g 을 넣고 골고루 혼합하여 고두밥을 보자기에 넣고 보쌌 하여 백국균을 증식시킨다.

㉔. 예전 들어 오는 오후 5 시경에 입상(보쌌 제거)하였다면 보쌌내부의 온도를 35℃를 유지하면서 12~18 시간(하룻밤) 지낸다.

이때 온도계를 보쌌 보자기 안에 넣고 관찰하는데 온도는 38~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내일 아침 9 시 정도에 1자로 보자기를 풀고 다시 쌀알을 골고루 찐다. 다음 다시 보쌌 하여 온도를 35 ℃ 정도 유지하고 오후 3~4

사가 되면 그 차로 보사기를 췌어 고두밥에 진수가 없으므로 산소량 부족하여주고 배
국균이 쌀알에 붙고우 붙어있게 가볍게 고루 비벼준다.

- ⑥. 그 후 8시간 정도 보습 하여 두면 쌀알내부의 온도가 40℃ 정도 된다.
이때는 보사기를 췌어 쌀과 부피가 5-6 cm 정도로 고르게 편 상태로 둔다.
- ⑦. 처음 입국 새로할 때부터 약 34 시간 정도 지나면 그날에 말리거나 냉장고
에 넣어두고 전종주 만들 때 사용한다.
- ⑧. 오래 아침 9 시정도에 줄주(완리)한다. 나머리는 3 일 걸리는 셈이 된다.

⑧. Recipe 4 : 고온당화주조

- (1). 쌀 1 kg(고두밥 1250 g) (2). 물 1.5 ℓ (3). 70℃에서 알코 만든 주조 300
㎖ 분산 20 ml 를 넣는다. (4). 온도가 30℃ 되었을 때 효모(주화) 6 g 첨가
- (5). 2일간 배양후 5 ℓ 에 냉장 보관하여 사용한다.

전종주를 제조할 때는 (1). 쌀 30 kg (=고두밥 25 kg) (2). 고온당화주조원기양
(20~30%) 5kg (3). 물 30 ℓ (원료 쌀의 1.5 배) (4). 발효온도는 35℃ 보다 낮은
경우에는 7-10 일정도 소요되고 높은 경우에는 발효기간이 5 일정도로 단축된다.

⑨. Recipe 5 : 쌀 (10 kg 용량)

원료(밀가루, 쌀, 누룩) → 향차(과립화) → 증숙 → 냉각 → 증숙원료 → 세
국(중국) → 입국(주조, 물) → 발균(1단 담균, 주조, 쌀) → 입법철거(2단 담
균, 물, 누룩) → 숙성여과(제성) → 제품완성

⑩ 고두밥 만들기(증미)

현미에서 알겨층과 배분 제거하고 백미를 만든다.

새미, 증미를 하는데 하절기에는 6 시간, 동절기에는 12 시간 물에 담가놓으며 물을
교체한다. 최소한 물기를 1 시간정도 잘 뺀 다음에 약한 불부터 점차적으로 높게 지
열하여 증미 하는데 증미는 대략 40 분정도 실시하며 녹두 + 밀, 쌀 + 보리 인 경우
는 1 시간정도 증미 한다. 증미 후에는 온도를 40 ℃ 정도로 식힌다.

예. Recipe 6 : 속양주모

① 실습

고두밥 + 누룩(전통누룩 + 개량누룩) + 물을 혼합하여 잘 섞은 후에 젖산을 넣고 25℃ 정도 되었을 때 효모를 넣는다.

ㄱ 제 1 단계

쌀(일반미) 1 kg(고두밥 1.25 kg) 개량누룩 300 g 젖산 15 ml 지하수 1500 ml
25℃에서 건조효모 4.5 g 을 넣고 발효시킨다.

ㄴ 제 2 단계

2일후에 쌀(일반미) 2.0 kg 물 3000ml 개량누룩 40 g 을 전날 만들어 놓은 주모와 함께 혼합하여 발효시킨다.

날 자	재 료	규 격	단 위	1단	2단	비 고
1일	쌀(일반미)	고두밥	kg	1.0(1.25)		냉 각
	개량누룩	총합	g	300		
	물	지하수	ml	1,500		냉 수
	젖산		ml	15		
	효모(라파리장)	건조	g	4.5		수 과
2일	쌀(일반미)	고두밥	kg		2.0	냉 각
	물		ml		3,000	냉 수
	개량누룩		g		40	

1주일 후 결과 : 알당 1 및 경과시간 : 134 시간 pH : 4.19 온도 : 22.8 ℃
알코올 : 18.4 산도(AC) : 4.0 아미노산(AAI) : 2.1 당도 : 14.0 침양부족

② 실습 2

실습 1 과 주모 공정은 동일하나 몇 달음에서 진통누룩을 사용한다.

날자	재료	규격	단위	1단	2단	비고
1일	쌀(일반미)	고두밥	kg	1.0(1.25)		냉각
	전통누룩	송학	g	200		
	물	지하수	ml	1,500		냉수
	젖산		ml	15		
	효모(라파리장)	전조	g	4.5		수화
2일	쌀(일반미)	고두밥	kg		2.0	냉각
	물		ml		3,000	냉수
	전통누룩		g		200	

1주일 후 결과 : 담금 1회 경과시간 : 134시간 pH : 4.2 온도 : 23.8℃

알코올 : 18.2 산도(AC) : 3.4 아미노산(AA) : 2.0 당도 : 13.2 쓴맛이 강함

③ 실습 3

고두밥 + 누룩 + 물을 혼합하여 쌀 용액 후 70℃로 하여 당화와 냉각을 동시에 진행하고 40℃ 이하에서 젖산을 넣고 30℃ 이하에서 효모를 넣는다.

날자	재료	규격	단위	1단	2단	비고
1일	쌀(일반미)	고두밥	kg	1.0(1.25)		냉각전
	대량누룩	송학	g	200		
	물	지하수	ml	1,500		냉수
	젖산		ml	20		
	효모(라파리장)	전조	g	4.5		수화
2일	쌀(일반미)	고두밥	kg		2.0	냉각
	물		ml		3,000	냉수
	대량누룩		g		40	

1주일 후 결과 : 담금 1회 경과시간 : 134시간 pH : 3.05 온도 : 23.5℃

알코올 : 17.7 산도(AC) : 4.0 아미노산(AA) : 1.9 당도 : 12.6 쓴맛 약함

④ 실습 4

원구두밥) 50ℓ + 백국 50ℓ의 주모, 고두밥 + 백국 + 물 + 젖산 + 효모

날자	재료	규격	단위	1단	2단	비고
1일	쌀(일반미)	고두밥	g	500		냉각
	입국(백국)		g	500		
	재래누룩	송아	g	100		
	물		ml	1,500		냉수
	효모(라빠리장)	건조	g	4.5		수화
	젖산		ml	10		
2일	쌀(일반미)	고두밥	kg		2.0	냉각
	물		ml		3,000	냉수
	재래누룩	송아	g		40	

1주일 후 결과 : 담금 1 및 경과시간 : 134 시간 pH : 5.93 온도 : 22.6 ℃
 알코올 : 17.7 산도(AC) : 7.5 아미노산(AA) : 3.0 당도 : 14.8
 쓴맛 단맛이 강함

⑤ 실습 5 (재래 누룩 이용)

날자	재료	규격	단위	1단	2단	비고
1일	백국		kg	1.0		
	효모(라빠리장)	건조	g	4.5		수화
	물	지하수	ml	1,500		냉수
2일	쌀(일반미)	고두밥	kg		2.0	냉각
	물		ml		3,000	냉수
	재래누룩	송아	g		200	

1주일 후 결과 : 담금 1 및 경과시간 : 134 시간 pH : 3.91 온도 : 22.7 ℃
 알코올 : 17.6 산도(AC) : 8.4 아미노산(AA) : 4.5 당도 : 17.0 조화양호

⑥ 실습 6

입국(황국)과 재래누룩 사용, 입국 + 물 + 젖산 + 효모

날자	재료	규격	단위	1단	2단	비고
1일	입국	황국	kg	1.0		
	젖산		ml	10		
	물	지하수	ml	1,500		냉수
	효모(라빠리장)	건조	g	4.5		수화
2일	쌀(일반미)	고두밥	kg		2.0	냉각
	물		ml		3,000	냉수
	재래누룩		g		200	

1주일 후 결과 : 담금 1 및 경과시간 : 134 시간 pH : 4.15 온도 : 22.7 ℃
 알코올 : 17.4 산도(AC) : 4.2 아미노산(AA) : 4.3 당도 : 16.8 향 좋고 쓴맛 강함

㉔) Recipe 7 : 쌀 2 단 담금

- 일습 400 ml + 쌀 8 kg + 물 4.6 l + 개량누룩 53 g 또는(1) 개량누룩 99g)을 발효 용기에 담는다.
- 발효온도 : 23~25 ℃를 유지하고 30 천 이상 흐르히 압포를 한다.
- 2~3 일간은 하루에 1~2 회 섞어준다.
- 5~7일후 압포한다.

㉕) Recipe 8 : 쌀 (물 첨가량 비교)

구분	쌀(고두밥)	물 첨가량	누룩 (개량 2배, 개대 7배)	효모
일습1	쌀 4kg(5.5kg)	6.24ℓ (1.2배)	쌀 1.2KG, 170g	10g
일습2	쌀 4kg(5.5kg)	7.8ℓ (1.5배)	쌀 1.2KG, 170g	10g
일습3	쌀 4kg(5.5kg)	9.36ℓ (1.8배)	쌀 1.2KG, 170g	10g
일습4	쌀 4kg(5.5kg)	10.4ℓ (2.0배)	쌀 1.2KG, 170g	10g

㉖) Recipe 9 : 동동주

쌀알이 솟위에 동동 떠있는 모양이 마치 개미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하여 부익주(浮蟻酒) 라고도 한다.

동동주에서 밥알이 위로 떠 오른 것은 쌀의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고 전유질인 쌀의 껍질이 남아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동동주는 발효 도중에 고두밥을 추가해 첨가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달이 남아있게 되어 당맛이 강한 전통주(막걸리)가 된다.

□ 제조법

처음에 순미할 달은 밥 5 kg, 물 7.5 l, 개량누룩 100 g (개대누룩 500 g), 전효모 30 g 과 발효용 물을 준비한다.

발효용에 쌀 4 kg(고두밥으로 5 kg), 개량누룩 100 g (개대누룩 500 g), 물 8 l, 효모 30 g 를 7 일간 발효시킨 후에 순미제이를 걸러낸다.

순미제이를 걸러낸 다음 쌀 1 kg 으로 고두밥을 써서 첨가하거나 고두밥 대신 일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쌀 여과된 원액을 4 열정도 연장하여 발효를 계속하면 밥알속의 전분질이 당으로 분

해되고 섬유질인 껍질만 남아 술위에 동동 뜨게 된다.

동동주는 쌀알의 모양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쌀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오래두고 사용할 때는 쌀알이 고스란히 남아있도록 세로 조심스럽게 긴지내어 술에 띄워 동동주를 음용하도록 한다. 기호에 따라 희석하거나 감미료를 첨가하기도 한다. 냉장고에서 단기간 숙성하여 마시면 더욱 좋은 맛을 기대할 수 있다.

(9) Recipe 10 : 쌀 + 찹쌀

* 제조방법

멥쌀 5.4 kg (고두밥 0.48 kg), 찹쌀 3.6 kg (고두밥 4.32 kg), 물 14.5 l
새래누룩 1.35 kg, 효모 15 g, 알량 90 g 총 25.758 kg 을 30 ℃ 발효용기
에 넣고 온도 23 ℃에서 15 일간 발효한 후 온도 10 ℃ 이하에서 12 일간 숙성한다.

(10) Recipe 11 : 3 차 전동주(막걸리)

(1) 1 차 담기(1 단계)

- ① 쌀 3 kg (고두밥은 3.75 kg 이 된다.)
- ② 물 3.5 l
- ③ 누룩 450 g
- ④ 효모 8 g
- ⑤ 소제 8.700 kg

(2) 2 차 담기(2 단계)

- ① 쌀 15 kg(고두밥은 18.75 kg 이 된다.)
- ② 물 22.5 l
- ③ 누룩 2.25 kg
- ④ 밑술이 효모역할을 하므로 효모를 첨가하지 않고 1차 량과 혼합한다.
- ⑤ 소제 13.5 kg

(3) 3 차 담기(3 단계)

- ① 쌀 3 kg(고두밥은 3.75 kg 이 된다.)
- ② 물은 첨가하지 않는다.
- ③ 누룩은 450 g 을 넣는다.

- 10) 이것을 2 차량과 혼합하여 100 리터 지닌 후 음용한다.(식온발효)
- 11) 소제 4.2 kg
- 12) 바리시 총량은 56,400 kg 을 남아 필요하다.

㉔. Recipe 12 : 쌀 (발효제 비교)

번호	쌀(kg)	Koji g	제래누룩 g	개량누룩 g	효모 g	물 ml
1	4	백1,000	150	30	40	7,500
2	4	백 500 황 500	150	30	40	7,500
3	5		250	50	40	7,500
4	5		250	50	40	7,500
5	5		500		40	7,500
6	5			100	40	7,500
계	28	백국:1,500 황국: 500	1,300	260	240	45,000

□ 쌀 10 kg 을 전동주(막걸리) 담을 때 작업 순서

1). 제 1 단계 (주모 만들기)

쌀 500 g(고두발은 60%) 물 700 ml 개량누룩 10 g(제래누룩 100 g)
효모 5 g 구연산 3 g 을 넣고 30~25 ℃ 온도에서 2 일간 배양한다.

2). 제 2 단계

쌀 3 kg 물 4.5 l 개량누룩 60 g(제래누룩 450 g) 1 단계에서 얻은 주모를
넣고 30~25 ℃ 온도에서 2 일간 배양한다.

3). 제 3 단계

쌀 0.5 kg 물 7.25 l 개량누룩 330 g (제래누룩 980 g)을 2 단계의 쌀과
혼합하여 25~28 ℃에서 2~3 일간 배양한다. 그러나 발효온도는 20~ 27 ℃ 를 원
내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결과적으로 전동주(막걸리) 담는 총량은

쌀 10 kg 물 15 l 개량누룩 180 g (제래누룩 1120 g) 효모 5 g
구연산 3 g 을 혼합하여 배양기간은 6~7 일이 소요된다.

※. 동동주 배합비율

잡알 4 kg 증자 + 엇기름 40 g + 누룩 800 g + 물 4 l + 효모 10 g

※. 쌀을 증자하지 않고 전통주 만들기

※. 무증자 1 단(2 시간 물에 불린 다음 분쇄)

잡알 880g + 효모 10 g + 누룩 20 g (어찌망) + 물 1.5 l 25 ℃에서 2 일간 효

※. 무증자 2 단

쌀 2 kg + 장제효소 1 g + 물 2.6 l (130 ml) 25 ℃에서 2~4 일간 발효 한다.

Ⅶ. 전통주의 품질 평가

(1). 도수의 측정

밀표용기에 있는 전통주(약질리)를 잘 섞어서 눈금 실린더에 100 ml 를 먼저 담고 물 100 ml 를 합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담고 콘덴서가 설치된 장치에서 끓인다. 78.4 ℃ 정도에서 알코올이 기화되어 날아온다. 알코올은 냉수가 통과되는 관을 지나면서 기화되어 응고하여 알코올이 비커에 모이게 된다. 계속하여 알코올 70 ml 에 증류수 30 ml 합하여 알코올을 15 ℃ 로 냉각한 다음에 알코올 주정제로 비중을 재면 된다. 또는 전통주 시료를 눈금 실린더에서 100 ml 를 측정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붓고 물 10 ml 재취수로 눈금실린더를 2~3 회 반복하여 삼각플라스크에 부어서 총량 130 ml 를 끓여서 증류액 70~80 ml 를 받아 증류수로 100 ml 를 재운 다음에 15 ℃ 온도에서 눈금실린더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주정제로 측정한다.

(2). 산도 측정

여과지로 여과한 시료를 눈금 피펫으로 10ml 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콘덴서시 약 2~3 방울을 넣은 후 삼각플라스크를 완전히 흔들면서 0.1 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떨어뜨려 담녹색이 되면 중지하고 소모된 수산화나트륨량을 산도로 한다.

(3) 당도

당도는 술에 녹아있는 환원당의 총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는데 감질당도계와 digital 당도계가 있다.

(4) 아미노산도

여러한 시료 10 ml 를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메틸프탈레인 지시약 2~3 방울을 떨어뜨린 후 0.1 N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담홍색이 될 때까지 떨어뜨려 중화한 다음 증식 포르말린액 5 ml 를 넣어 흔들면 다시 원래의 색으로 된다. 여기에 다시 0.1 N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떨어뜨리면서 흔들어 삼홍색이 되면 소모된 양이 아미노산이 된다.

(5) pH (Potential of Hydrogen Ion) = 수소 이온 농도

mH 측정기로 측정한다.

(6) 시약 만드는 법

- (1) 0.1 N NaOH 용액은 수산화나트륨(시약) 4.3 g 을 증류수에 녹여 1,000 ml 로 한다.
- (2) 혼합지시약은 브롬티몰 청부 0.2 g 과 뉴트랄 레드 0.1 g 을 95 % 알코올 300 ml 에 녹여 사용한다.
- (3) 메틸프탈레인 지시약은 메틸프탈레인 시약 0.5 g 을 95 % 알코올 50 ml 에 용해하여 사용한다.
- (4) 증식 포르말린은 포르말린 50 ml 에 메틸프탈레인 지시약 2~4 방울을 떨어뜨려 0.1 N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담홍색이 될 때까지 중화한 다음에 증류수를 넣어 100 ml 가 되도록 한다. 이 액은 불휘발 배 까지 조제하여 사용한다.

전통주의 맛에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짙은맛,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쓴맛, 매운맛, 청량감도 맛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혀는 9,000 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어 맛에 매우 민감하다. 입정한 맛을 내기 어렵거나 기호성이 다른 때 맛을 조미료로 조절하기도 한다.

단맛과 신맛이 있을 때 소금을 첨가하면 맛이 깊하게 느껴지고, 신맛이 있을 때 단맛을 첨가하면 신맛이 줄어들고, 쓴맛이 있을 때 미원을 넣으면 쓴맛이 감소한다. 짙은맛일 때 단맛, 신맛을 넣으면 강도가 낮아지고, 대체로 차, 커피, 코코아, 조류

맛, 배주에도 쓴맛이 들어있으며 전통주에서 쓴맛이 강하게 느껴질 때는 조미료를 넣으면 부드럽게 느껴진다.

감미료는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아세실람산류, 자일리톨, 에리스톨, 스퀘알로스 등이 있고 산미료에는 구연산, 주석산, 젖산, 사과산, 초산 등이 있으며 전통주 1ℓ 에 구연산결정 0.72 g 미나 80 ℓ 액상 젖산 0.83 ℓ 을 넣으면 산도 1 이 올라간다.

VIII. 향토음식의 종류

전통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지방에서는 신선초, 설렁탕, 우메기바 강원도에서는 찹쌀과 쇠해, 갑자, 옥수수, 메밀, 보리를 이용한 음식과 막국수와 닭갈비가 잘 알려져 있고 충청지방에서는 인분생선, 도리뱅뱅이, 도토리묵밥, 울쟁이 국밥, 해장국 등이 있으며 중남지방은 된장, 보리밥, 늙은 호박요리, 연삼어죽, 바속나지탕, 어리굴젓, 국풍넬매 굴과 초갯살, 닭과 소함을 많이 이용한다.

전라북도에서는 비빔밥, 추어밥, 콩나물국밥, 깨알면, 토란탕, 버섯탕이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내나무요리, 보리일국, 홍어, 모시일떡, 보리떡, 갯김치, 나주곰탕, 꼬막부침이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맵고 짠 편이나 사치스럽지 않고 소담인편이다. 배추전, 감자, 고구마, 메밀, 도토리를 이용한 요리, 어래류 요리, 문경 호박차 요리 등이 있다.

경상남도지방에서는 산주 비빔밥, 방개떡, 등래라전, 육회 등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된장국, 김치, 갯길류, 날뽕장에 생채, 순채를 함께 먹는 요리, 오징어국, 메밀 고구마 찹떡, 빙떡 등이 알려져 있다.

①. 홍어 요리

낙엽, 벚꽃, 야초로 만든 신선한 퇴비에 공어를 2~3 일간 띄워 발효하여 숙성시킨다.

홍어무침이나 콩어림, 쌀을 기타 달래 등과 함께 이용한다.

②. 낙지 : 김질을 벗겨 부드럽게 하거나 볶거나 양념하여 이용한다.

③. 닭갈비 : 여러 가지 채소 재료를 혼합한 후 익힌하고 각종 요리하여 이용한다.

- ④. **치이즈 식품** : 우유를 고온살균 하여 락토코커스락타스를 섞어준다. 유산생성으로 산성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0.18~0.22 % 정도 되면 효소인 레닛을 넣어서 응고되면 두부처럼 작르고 안에 있는 유청을 빼출시킨다. 압착하여 단단하게 만들고 소금을 첨가하면 풍미를 잃게 하고 과도한 발효를 억제한다. 인기 있는 모짜렐라와 가우다 치즈가 있고 파란색의 곰팡이가 피어있는 블루 치즈는 케니실룸 로케포르피라는 곰팡이로 발효한 제품도 있다.

⑤. 김치 발효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을 저장할 때 주로 건조, 절김, 발효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김치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저칼로리 식품이며 유산균의 청장작용으로 생리대사를 활성화시켜 영양상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일반적으로 김치는 배추김치류, 무김치류, 호박김치류, 채소 김치류, 해조류 김치류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김치는 재료의 종류도 매우 많은데 배추, 고추, 무, 마늘, 생강, 파, 간, 부추, 오이, 미나리, 도라지, 달래, 우엉, 가지, 락타, 고들빼기, 콩나물, 굴, 찹쌀, 새우젓, 멸치젓, 황화이젓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미생물과 효소가 작용하여 발효 속성이 갖된 김치는 보통 pH 4.0~4.3, 산도 0.3~0.7 정도에서 비타민 C의 함량도 많고 맛도 풍부하다. 배추는 10~12 % 정도의 소금물에 6 시간정도 끓이는데 중간에 위아래를 바꿔주어 소금물이 잘 스며도록 한다. 끓에 잘 씻어 물기를 빼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추고 굵은 바지마에 넣는다. 맨 위에는 우거지로 덮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장기간 발효 숙성 시킨다.

가장 좋은 김치는 보통 소금농도가 3.25% 정도가 좋으며 6 % 이상은 설탕 농도가 떨어진다. 원료는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고추, 청각, 미나리, 동네, 찹쌀, 조미(천초, 생미)등을 넣기도 한다.

고들빼기김치는 고들빼기를 1 주일 정도 소금물에 담가 쓴 맛을 우려낸 후에 열차진 쪄에 고춧가루, 찹쌀 풀에 더진 마늘, 생강, 찹쌀, 통깨를 넣어 양념을 만든 후에 고들빼기와 కూ파를 넣고 잘 비벼서 넣고 발효 숙성한다.

동리미는 김장 전에 달그늘에 차고 단단한 싱싱한 무와 배, 쪽파, 깻, 순고추, 삶은 고추를 준비하고 양을 배는 용기의 맨 바위에 마늘과 생강이 든 배추마

붉은 고추를 준비하고 텀을 때는 용기의 맨 바닥에 마늘과 생강이 든 배추씨
니를 놓고 썰인무, 삭힌 콩고추, 쪽파, 배, 붉은 고추를 겨려로 놓고 맨 위에
갖을 넣어 짜지 않은 깨끗한 소금물을 넣어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흔
러주고 발효 숙성 시킨다.

□ 김치 발효 미생물에는 *L. plantarum*, *L. brevis*, *Leu. mesenteroides*, *Str.*
faecalis, *Str. faecium*, 유산균과 복수한 효모를 병용하여 유산발효와 알코올
발효를 시킨 것으로서 *kumiss*, *kefir* 등이 이에 속한다.

유럽에서는 *Sauerkraut*, *Weiß kraut*(양배추, 배추)를 시원하게 소금물에 씻신발
효 하여 섭취한다.

⑥. 꼬막 무침

꼬막을 문질러 깨끗이 씻은 다음 소금물에 2 시간정도 담가 우려낸다. 꼬막을
끓는 물에 넣은 후 불을 약하게 하여 저어가면서 데친다. 꼬막 껍질이 벌어져
기 전에 건져 체에 받친다. 꼬막 껍질을 한쪽은 버리고 접시에 담는다. 이때
양념간장은 건장, 고춧가루, 다진파, 다진마늘, 다진생강, 설탕, 참기름, 통깨,
참고추등을 적당하게 배합하여 만든다.

⑦. 두부

단백질 공급원인데 콩을 찌지하고 불려 마쇄하여 가용성분을 용출시켜 두유를
만들고 그중 단백질류(*globulin* 의 *glycinin*) 에 응고제(황산칼슘, 염화칼슘, 위와
마그네슘, 글루코노델타락톤)를 넣어(두유의 2~4%) 응고하여 식품으로 이용하
나.

두유를 끓일 때는 100 ℃에서 5~10 분간 끓이며 거품이 난산 때는 소포제(종
살균, 실리콘오일)를 몇 방울 넣는다. 70~80℃ 일 때 응고제를 두유 1ℓ 에
100~200 ml 또는 대두중량의 1.5~2 %를 나누어 넣는다. 압착은 20 분정도하
고 절단후 1~3시간정도 찰속에 담가 간수 성분을 빼낸다. 보통 콩 1.8ℓ 에서
375 g 두부를 30 개정도 만들어지며 기호에 따라 맛과 향미를 달리하여 이용
한다.

㉔. 신선채소

업감이 배추, 상추, 케일, 아스피라거스, 꽃갓, 배추, 남근, 마늘, 양파, 미나리, 쪽고추 등을 잘게 썰어 양념을 하거나 김치이용으로 이용한다.

㉕. 도토리

도토리를 껍질을 벗겨 삶에 달가 탄닌성분을 충분히 우려내고 끓여 수세후 위에 분쇄한 버리고 찰진한 것으로 견분가루를 만들고 살을 헹가짜이 삶이며 도토리 육을 사탕으로 만들어 상념하이 이용한다.

㉖. 메밀

메밀은 단백질 10-12%, 지방 2%, 전분, Ca, P, Mo, H, B2 함유, Amylase, Maltase 효소함유로 소화흡수가 용이하다. 메밀 약걸러, 메밀부침, 메밀묵등이 이용된다.

㉗. 야채 부침전

배추, 쪽파, 호박, 고추, ~~200g, 100g, 200g, 100g~~등을 이용하여 밀가루와 계란, 버터 등을 섞은 다음 반죽하여 전을 부친다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이용한다.

㉘. 한우 안심(등심) 스테이크

1등급 최고기의 안심을 지은 숙성하여 소금을 간단하게 뿌리고 후라이팬에 구워 양념과 함께 이용한다.

㉙. 산나물 두릅 무침

두릅을 다듬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10분간 삶아 헹군 다음 불기름 달걀고 굵 간장, 다진마늘, 고춧가루, 다진파, 식염, 참기름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 무친다.

㉚. 토종 돼지 바베큐

90 kg 이하의 망복사육한 돼지를 도려하여 채장등을 선별하고 세척하여 숯불에 오뎀동안 서서히 익혀서 양념과 함께 이용한다.

⑤. 자연 발효 된장

곰팡이와 바실러스(Bacillus)를 이용하여 대두로 만든 배추를 소금과 물을 섞어 약 2개월간 발효시킨다. 배추를 만드는 시기는 가을철이나 겨울철이 좋는데 보통 음력 서월달이나 동짓달에 만든다. 콩을 불리고 마쇄하여 청형한후 밧질을 깔고 따뜻한 방안에 1~2주간 발효한후 밧질층으로 묶어 치마밑에 매달아 후숙시킨다.

약 50%의 소금물에 담가 발효후 고체 액체로 분리하여 재발효시키면 간장과 원장이 된다.

간장 맛때의 소금농도는 17~18% 정도가 적당하며 6개월~1년이상 발효시킨다.

또한 청국장도 원료 콩을 55 % 이상을 사용하여 고초균(Bacillus subtilis)으로 단백질을 분해시켜 마늘, 파, 고춧가루, 소금 등을 가미한 것인데 온도는 40~42℃ 에 pH 는 6.5~7.5 범위이고 그루나민산의 폴리펩타이드와 과당의 프락탄이 첨질물을 이룬다.

⑥. 고추장

검분실 원료를 맥아효소로 분해하여 단술(감주)을 만들고 여기에 소금과 배추분말, 고추분말을 첨가한후 발효시켜 제조한다.

원료는 보통 쌀알 30 % 이식, 찹쌀(쌀 40% + 콩 60%) 10% 이상, 고춧가루 10 % 이상, 기타 원료 50 % 이내로 한다.

⑦. 아귀탕

아귀를 잘 손질하여 청결하게 씻은후에 간단히 토끼을 내어 끓인다음 준비한 콩나물 줄기, 미나리, 숙것 등을 넣은후에 양념이나 소금을 넣어 맛이 우리나도록 한다.

⑧. 양송이와 그린빈 요리 : 조금등 양념을 넣고 가볍게 볶으면서 조리한다.

⑨. 송이요리 : 향을 우리나도록 간단한 양념과 함께 가볍게 볶는다.

⑩. 튀김요리 : 은어나 땅어를 잘 다듬고 세척하여 튀김가루를 잘 반죽하여 가볍게

원(이다.

그밖에 애벌겉전(허리, 애벌가루, 소금, 후춧가루, 식용성 기름 등), 무릅삼마귀부침(두릅, 삼마귀뿌리, 붉은고추, 판장, 고추장, 식초, 설탕, 고춧가루, 콩액 등), 달래두릅김치(달래, 사과, 붉은고추, 밀치약젓, 콩액, 두릅, 무, 배, 굴, 소금, 물 등), 옥수수전(옥수수, 쌀, 밀가루, 꿀, 식용성 기름, 소금 등), 어리굴두부부침(두부, 어리굴, 부추, 양파, 달걀, 콩액, 밀가루, 소금 등), 쪽파김치(쪽파, 도라지, 바쁜고추, 고춧가루, 밀치약, 멸치가루, 옥수수전분, 다진마늘, 콩액, 참기름, 붉은소금 등), 호두전(호두, 쇠고기, 붉은고추, 쪽파, 밀가루, 달걀, 소금, 식용성 기름 등), 상추김치(상추, 숙갓, 팥이버섯, 실파, 토마토, 붉은고추, 멸치액젓, 쇠고추, 콩액, 설탕, 다진마늘 등), 느타리버섯전(느타리버섯, 붉은고추, 호두, 밀가루, 달걀, 참기름, 녹두, 멸젓, 배추김치, 쇠고기, 호두, 도라지, 소금, 식용성 기름, 쪽파 등), 해물파전(흰치, 굴, 조갯살, 쪽파, 깻잎, 붉은고추, 밀가루, 꿀벌가루, 팥알가루, 고춧가루, 다진마늘, 식용성 기름 등), 감자전(감자, 양파, 감자전분, 소금, 식용성 기름, 붉은고추 등), 알칼리성인 녹두 반데마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원료별 구입처 안내 (2012년 1월 14일 현재)

1. 누룩

상주사자	054-532-6888	신주사자	055-753-4002
송하사자	062-942-9896	산성누룩	051-517-5304

2. 압국(국)

수원종국	031-352-1987	중부종국	062-264-4810
------	--------------	------	--------------

3. 배양효모 041-942-1022 031-3788-1655

4. 한국효소 031-357-8386-7 031-367-8388

5. 초효소제 바이오 누룩 031-367-4938

6. 남영상사(빛산) 02-777-9351000 예 3 배 첨가)

7. 황재 효소제

두엔 바이오	031-479-4361	바이오랜드	054-564-8815
--------	--------------	-------	--------------

8. 배양효모 02-2806-3052 1kg 당 18,000 원

누룩(송하사자)	15 kg 당 38,500 원
----------	------------------

문학연구
춘원 이광수선생의
문학세계



춘원 이광수선생의 문학세계



권 광 식

목 차

1. 생애	200
2. 친일행적	203
3. 광복이후	207
4. 사후 및 평가	209
5. 문학세계	209
6 부 록	211



〈춘원어광수의 꿈을 위한 삽화〉

1. 생애

1)유년기

이광수 1892년 3월 4일 평안북도 청주군에서 아버지 이충원, 어머니 송준 김씨의 3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 이름은 이 보경(李寶鏡)이다. 준원이란 아호 외에 고주(高州)외배 라는 별호도 있다. 5세에 한글과 한자문을 깨치고 8세에 동네 상점에서 한학을 배웠다. 9세가 기술사 담배 상사를 하던 중 그의 부모는 이광수가 11세가 되던 해 1902년 8월 천명병 물레라로 별세했다. 1903년 천도교에 입교하여 그는 누이동생들과 함께 고아가 되어 외가와 제당숙 할아버지 집을 오가며 자랐다. 이광수는 일찍부터 문학과 관련이 되는 직업에 종사했다. 그 뒤 재능을 인정받아 천도교의 서기로 관을 맡아 오기도 했다.

2)일본유학과 문학 활동

1904년 일본 관현이 천도교(유학)를 반박하자 전남포에서 배편으로 제주도(연천)를 거쳐 상경했다. 1905년 천도교와 관련된 임천희의 유학생 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1906년 3월 타이세이 중학교(大成)에 입학하며 유학생생활을 하였다. 홍명희, 최남성 등을 만나 사귀었다.

1907년 2월 학비를 장만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문일평, 홍명희 등과 소년회를 조직하고, 회람지 <소년>을 발행하고 시와 논설 등을 발표, 미국 칼로리포니아에서 배운 베이시 하원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했다. 동철회지에 홍명희와 친하게 지내며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폴스토이즘 소개 받았다고 한다.

1908년 11월18일 밤에 밀어로 쓴 「사랑인가」라는 단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 12월에 베이시 하원 동창회지인<배급하보>에 발표 되었으며 이광수가 완결한 첫 작품이랄 천일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이 작품은 아바자키 도시오의 영향을 받아 '동심애'를 주제로 쓰인 천일의 시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10년 5년의 산재시 [우리의 영웅] 을 <대한 동하보> 11호 (문학의 가치지) 단편소설 (부정) 을 발표 1910년 3월 베이시하원 5학년을 졸업한 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했다가 남경 이승훈의 추천으로 오산 학교 교원이 되었다.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이승훈이 구속되자 하장으로 취임해 오산학교의 실용적인 책임자가 되었다.

그해 최남선이 주관하는 잡지 <소년>에 난권을 발표 하면서 문필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그해 1년 인하의 수원 배씨 백혜순과 결혼하였다.



이광수·무정

『교과를 통해서 조선의 밝은 내일을 내다보고 희망을 가다』(광운 출판)

1913년 세계여행을 결심하고 오산학교를 그만두고 조선을 떠나 만주로 가 상하이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다. 상하이에서 홍명희, 문일평, 조소앙, 송상순 등과 함께 지내다가 1914년 6월 오산학교에 다시 복직했다.

1914년 신규식의 추천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한민보 주필을 맡기로 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 러시아 치타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행을 단념 하고 귀국 하여 오산학교에 다시 교편을 잡았다.

1915년 김명로, 권영택, 진석우 등과 교유하는 한편 인촌 김성수의 후원으로 9월 일본 와세다 대학 고등예과에 편입했다.

1917년 1월1일 ~ 6월14일 <매일신보>에 장편소설 『무정』이 연재된 이후 다음해 1918년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1만부가 팔렸다. 같은 해 와세다 대학교 철학과에 특대생으로 진급 했으며 과로 끝에 결핵을 앓았다. 1918년 폐병이 재발 했으나 허영숙의 헌신적인 간호로 건강을 되찾았다.

3) 독립운동

1918년 백혜순과 이혼하고 4년 인하의 양친 허씨 허영숙과 재혼 하였다. 그해 2월 8일 독립운동사건으로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여운형을 담수로 삼아 조직된 신한청년당에도 관여 하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주의 운동에 감화를 받아 일본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1919년 2월 백관수, 최말용, 송계백 등과 재일본청년 독립단을 조직하였다.

1919년 1월 신한청년당 당원으로 일본에 파견 상하이를 출발하여 메이징을 거쳐서 일본 도쿄에 도착했다. 재일본 한국 유학생을 만나고 2월8일 독립선언의 2.8독립선언문을 기초 하였다.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 하였고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상하이에 있을 때 그는 실력양성을 부르짖으며 " 독립국민자각자를 키우라 " 라는 안창호의 권고에 감화하여, 귀국 후 이광수는 1920년 흥사단에 가입하고 문학 활동과 저술을 통한 국민 계몽운동을 하기도 했다

1919년 그는 잡지 <독립>을 발행하였고 사상권 주권, 또한 임시정부 사료 보관 위원회 주임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 잡지를 통해 임시정부의 사실을 전했으며 대한민국의 사주성과 우수한 민족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출판부장으로서 주요인, 기자로는 주동호 등을 영입하여 <독립>창간 후, 주역의 맡았었으니 저급난으로 1925년 189호를 마지막으로 폐간 되고 받았다.

4) 국내활동

귀국

이광수와 홍명희 조수양 상하이에서 중립한 생활을 계속 지내 왔는데 2년 뒤 1921년 11월 도저히 살아가 생활을 못하겠다고 선언 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그 뒤 재상직으로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던 이광수는 1921년 11월 ~ 1922년 3월 까지 개혁의 논문 <소년에게>를 연재해 출판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다. 1922년 중앙원 교사로 초빙되어 철학, 윤리학, 물리학, 심리학, 종교학, 논리학 등을 강의 하였다.

이광수는 그들의 후원을 받아들이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직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아내 허명숙이 상하이에 이광수를 찾아와 아내와 함께 돌아오다가 (일 살에는 홀로 돌아왔다고 한다.) 천진(天川)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가 불거소 지분으로 풀려 난 뒤에는 변절자로 비난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광수가 상하이에 가기 전부터 총독부와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의견과 이광수와 상해임시정부를 미간할 하려는 총독부의 책략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 뒤 1922년 9월 30일 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와 첫 면담을 가졌으며 그때부터 사이토의 황칙 황모 아베 미쓰이에와 빈번히 접촉 하였고 그들의 주선으로 월 수당 3백 엔을 받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입사한다.

민족개조론

1922년 잡지(개벽)5월호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하며 자치운동을 내세워 이때부터 차츰 총독부로부터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 글을 통해서 이광수는 3.1운동이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이후 우리민족이 추구해야할 방법은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투쟁이 아니고 독립을 쟁취하고 유지할만한 실력을 먼저 기르는 “민족개조운동 사치 운동론” 이라고 주장했다. 1924년 동아일보 사설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일본국법)이 조선 내에서 허 하는 범위 내에서 라는 단어를 달았다.

이에 대해 일본의 국법이 허하지 않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논설이란 비판이
 다. 같은 해 11월부터 장편소설 <계열>, <죽상진>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시작
 하였다.

수양동우회조직



(수양동우회)

이광수는 흥사단의 국내조직으로 1922년 수양동우회를 결성하였는데 그 전문에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주의라고
 발표 하였다. 1925년 안창호의 지시에
 따라 수양동맹회와 동우구락부를 통합
 해 수양동우회로 발족시키는데 힘을 쏟
 은 끝에 1926년 1월8일 수양동우회를
 탄생시켰다.

수양동우회는 인격수양과 민족문화전
 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실질적인 모든 사업과 실천내용은 흥사단의 국내조직 역할
 단체였다.

문학 활동 및 사회활동

1926년 11월 동아일보 편집국장 취임

1928년 장편소설 바의태자 발간

1929년 단풍에서 발간

1936년 6월 경성일보 초대사장이자 조선 위문정책의 영
 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아메비쓰이께 용상 권업
 을 위한 말기인으로 참여했다.

1937년 수양동우회 사진(흥사단 사진) 으로 안창호와
 함께 서대문 형부소에 수감되어 옥살이를 하였
 다. 이듬해 8개월 후 병으로 보석되었으며 이 무
 령에 (사망), (세조대왕)등을 집필 하였다.



(단풍이 그의 숙부 수양대군
 인왕(세조)에게 꽃기어 죽은
 사실을 충실하게 서술한 작품)

2. 친일행적

전향

1938년 3월10일 자신의 스승 격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도산 안창호가 병사하자 이

광수는 커다란 충격과 실의에 빠졌다. 그해 11월3일 명보서 상에서 수양동우회 사건의 책임을 맡은 중 전향을 선언하였다. 이후 조선 실궁을 창매하는 등 본격적인 권익행위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

1930년대 활동

1938년 12월 4일 전향자 중심의 최남회 “시국유지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강연을 할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권익 행위에 나섰다. 이어 이광수는 반족감청과 진통 말살화 해소를 단행하자고 주장하면서 의례준칙의 일본문화와 생활양식의 일부를 비판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광수는 반족을 사게 되었다. 그 해 1939년 8월 14일 북지향군 위문사절 후보선거 집행위원을 맡는 등 분단사절 파견을 주도 하였고 7월 잡지 (삼천리)에 분단 사절의 의의를 발표해 조선민족이 일본국민이라는 견지와 같이에서 문제를 탈락하거나 영본하려는 국민주의 분언이나 분화론 조짐에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난 사변을 계기로 조선민족의 황민화라는 대변적이 일어났다.

▶ 황민-화(皇民化)
 ‘황국 신민화(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일본 천황의 충실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정책)’를 줄여 이르는 말.



(황민화 훈련장의 기숙사 모습)

이번 분단 사절은 실로 이변해출 분단의 입장에서 표시한 것이라고 역설 했다. 6월30일 조선 총독부 외각 단 배로 1938년 11월 3일 발족한 조선문인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회장으로 선출 되었다.

11월20일 조선문인협회 회장으로선 연회 유선 명사위문대 위문분 부대기 행사를 주도했다. 12월8일 남대문동 금천대 회관에서 열린 조선문인협회 결성대회를 위한 자업계획의 간담회를 주도 하였다.

1940년대 활동

1940년2월20일 매일신문 사설반에 이광수는 轟山光郎 (카야마 미쓰로)라는 필명으로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창씨개명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자신의 창씨개명을 합리화 했다.

내가 형식 이라고 일본적인 명의로 개한 동기는 형용한 말뿐이나 천황어명과 독립을 같이 하는 씨명을 가져오는 이야기다. 나는 깊이깊이 내 지손과 조선민족의 잘래를 고려한 뜻과 달연하다는 굳은 신념에 도달한 사람이다. 나는 천황의 식민이다. 내 지손도 천황의 식민으로 살 것이다. 이광수라는 개명으로도 천황의 식민이 못 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앞삼광량이 조금 더 천황의 식민단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대신일제를 국가 조선인에게 허 하였다. 이에 대신일제 운동을 할 자는 기실 조선인 이다.



조선인이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될 것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1937년 10월 12일 경성일보에 실린 수원 이광수 창씨개명 권고기사

성명3글자를 고치는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면 아깝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러한 선념으로 할산이라는 씨를 창설했다. 1940년 2월 22일 조선 문인 협회 문사부대로 지원병 훈련소에 1차로 1일 입영전학을 했다. 또한 어무림 소설(무명)로 일본의 보인 일본사가 주최하는 조선 예술상을 수상했다. 8월6일 국민정신 총 동원 조선연맹 주최로 "내지" 작자인 키쿠치 칸 고바야시 니카노 미노리 등이 중심이되 반도호텔에서 열린 문예자담회에 참가 했다. 9월29일 경성 중앙 방송국 제2방송(조선어방송)에서 이광수가 작사한 노래 〈지원병 행가〉가 방송 되었다. 10월12일 조선 문인협회는 문사부대로 지원병 훈련소에 2차 1일 입영전학을 갔다 왔다. 12월25일 향도회회가 만들어질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40년-1941년 경성 중앙방송국 제2방송에서 이광수가 작사한 노래 (애국일의 노래)가 방송되는 한편 일본산분집(동포에 부친)이 간행 되었다. 5월 5일부터 이른바 국민연극을 발표하는 현대극장 부설 국민연극 연구소에서 예술세론을 강의 하였다. 8월 25일 임원대회 협의회가 주관한 채권 분급대 총로대에 참가하여 거리에서 애국세권을 맡았다. 9월11일 조선 임원 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월18일 조선 임원보국단 대구지부 설치를 위한 의원으로 파견되었다. 12월 경성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시국강연을 했다.

1942년 3월 17일 ~ 2월 29일 까지 조선 임원 보국단 주최 서국강조 전전대 강연회 위사보 참여했다. 5월 경성일보 위민살에서 조병살 이숙종 등과 일본인 고관들이

보인 좌담회에 참석하여 왕민회를 환영했다.

5월16일 조선 임원 모국단이 주최한 질병제도 대 연설회에서 “희망의 대신들”이라는 연설을 했다. 6월10일 조선 문인협회 주최로 부평관에서 열린 “일본군이 치는 마음가짐”을 듣는 좌담회에도 참가했다.

12월8일 ‘대동아전 1주년 기념 국민서 낭독회’에서 서를 낭독했다. 1943년 2월 25일부터 6월3일 까지 매일신보사가 주최한 “국민개병가” 현상모집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4월17일 조선총독부의 지시 하에 김용채, 최재서, 김기전 등과 같이 주도해 조선문인협회, 조선하이쿠작가협회, 조선선류협회, 국민서가연맹 4개 단체가 통합하여 결성한 조선문인 모국회의 이사가 되었다.

8월18일 청성중앙방송국 제2방송에서 이광수가 작사한 노래 〈희망의 아침〉이 방송되었다.

1. 밝이 새었다 희망의 아침 동편 하늘에 쫓는 햇빛은
다들 받으라 들꽃 받아서 소리소리 높여서 만세 불러라
2. 이리나거라 우리 임금의 분부를 받차와 잊억일심(一德一心)의
넓은 천지에 만경일우(萬景一如)의 새로 세세를 일우하라고
3. 대륙 아반의 대양 십만리 대아세아의 대공영권(大共榮圈)의
우리 일장기 날리는 꿈이 자지은손 만대의 복누림 국토

1943년 이광수의 희망의 아침.

11월8일 ~ 14일 까지 최남선, 김연수 등과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관류하는 선배격려대원으로 연설 하였다.

1944년 2월 20일 총보사가 주도한 총통 왕민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6월 18일 조선문인모국회 명의위이 법과 동시에 같은 날 열린 조선세계체육 개선 문학자 총결구대회 의장을 맡았고, 8월 17일 한국 함북문인대강연회에서 ‘전쟁과 문학’이라는 제목 아래 강하도, 정선이라는 대륙의 강연을 했다.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으로 건너가 일본제국의 괴뢰정부 황정웨이 집권의 수도 난징에서 열린 제3회 대동아문학자 대회에 참석했다.

1945년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전쟁협력단체인 대화동맹이 주도한 최우갑사 총필기 재형유지협의회 준동준비위원으로서 ‘최우갑사총필기전선대회’에 참여해 강연했다. 2월 11일 대화동맹 준비위원 겸 이사를 맡았다. 같은 해 2월경 일본 천대양사(구 일본보연사)가 주관하는 제9회 조선예술상 문학부문 심사위원을 맡았다. 8월 8일 조선

언론보국의 명예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4일 정치평론가이자 제국의회의원 박순금이 당수인 대의당의 위원에 선임되었다.

문학작품

이광수는 시, 소설, 평론, 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황제와 황국신민화 찬양,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정당화와 전시동원 독려, 그리고 문학을 통한 보국 등을 적극 선전하는데 주력했다. 작품으로는 1939년 2월호 동양지광 잡지에 발표한 시 〈가끔씩 부른 노래〉를 시작으로 〈내선일백의 초선분화〉(1940.4, 조선), 〈지원병 훈련소의 하루〉(1940.11, 국민총력), 〈대동야 일주년을 맞는 나의 결의〉(1942.12, 국민분화), 〈예하의 정업에〉(1943.2, 준주), 〈모든 것을 바치라〉(1945.1.18, 매일신보) 등 107편의 시, 소설, 논설 등을 기고하였다.

3. 광복이후

1921년에 결혼했던 아내 이명숙과는 1946년 5월 21일에 합의 이혼 하였다. 서울신문 1946년 8월 13일자에는 “장자 이광수가 천박으로 길러짐 때문 걱정하여, 장식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취하는 잇속 빠른 길이 아닌가 보고 있다.” 라며 비판하였다.

1945년 광복 후 1946년 9월 이하수의 도움으로 광동중학교에서 영어의 작문을 가르치며 다시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1947년 1월 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에서 안창호 평전 집필 의뢰받고 집필에 매달려 《도산 안창호》(1947. 5)를 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출간했다. 당시 집필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그의 이름을 쓸 수 없었는데, 이 책에 ‘순원’의 이름이 사용된 것은 제3판(1950년)부터였다. 이때부터 다시 글쓰기에 몰두하여 1947년 6월 〈꿈〉을 연하시포에서 간행했고, 그 해 김구의 자서전 《백범일지》가 출간될 때 율문 작업에 참여하여 전필본 상권의 첫 문장 “우리 선조는 안동 김씨로 김자십의 방계 추손이다.”를 “우리는 안동 김씨 겸순왕의 직손이다.”로 고치는 등 여러 부분에 손을 댔다.

1948년 12월에 간행된 이광수의 자서전 《나의 고백》 1947년 12월 1948년 10월에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주로 여성계원과 관련하여 표현한 〈나-소년편〉과 〈나-스무살 고개〉를 간행했다. 1948년 6월에는 1946년 10월부터 1947년 2월까지 자신의 생활세계와 내면세계를 면밀하게 기록한 글들이다 상궐(相筭)의 논리일 뿐이라며 당시 좌익을 비판하는 《내나라》 등 3편의 논문을 추가한 《둘째개》를 생활사에서 간행했다.

이 책에서 민족의식이 팽트된 때부터 일제 말기까지 작가의 행위를 민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서술한 후, 일제 말기의 친일 행위 역시 애국자로서의 영예를 희생하더라도 민족보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고 강변했다. 《나의 고백》에는 친일에 대한 변호 외에 《친일파의 변》이라는 부록이 있다. 여기에는 〈홍재원 복욕〉, 〈침화사〉, 〈관공리는 반민족자였는가〉, 〈미국인의 친일파관〉, 〈대한민국과 친일파〉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들에서 병자호란 당시 끌려갔던 여성들을 '홍재원 복욕'이라는 지해를 통해 간접 면했듯이 친일했던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민특위 구속과 석방반민특위의 3차 검거(분화계)가 시작된 첫날인 1949년 2월 7일에 체포, 구속되었다. 이어 이광수는 서대문형무소로 수감되었다. 1차 심문이 끝난 후 조사관에게 약속한 대로 친일에 대한 고백서를 썼다. 같은 죄목으로 같은 날 검거된 최남선이 '민족의 열위으로서 반민족의 지목을 받은은 중세에 쫓기 어려운 대치육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자업자득》을 쓴 반면, 이광수는 시종 《나의 고백》에서 본인 자세를 그대로 견지했다.

한편, 이광수의 가족들은 그의 구명운동을 벌였는데 셋째 아들 이영근(당시 중얼중학 6학년)은 반민특위 위원장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병이 위중하여 보석해주고 자신을 대신 담보로 수감해 달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아무런 병세가 악화되어 이광수는 1949년 3월 4일 '고혈압증' 등 사유로 특별히 병보석으로 출감하였다.

그는 민민특위에 심문당할 당시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조선사람들은 황국신민의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항씨계병 안한 사람, 신사참배 안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리국민은 분열자도 많고, 경제자립도 어려운 일본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했소. 내가 걸은 길이 정경대로(正經大路)는 아니요. 야는 그런 길을 걸어 민족을 위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오." 라고 변명하기도 하였다.

말년

1950년 1월 다시 민족의 미래를 위한 야망을 담은 소설 《서울》을 태양신문에 연재했으나 좌익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문제가 되어 연재를 중단 했다. 같은 해 3월 유작 《문명》을 집필했고, 5월 《사랑의 동명왕》을 만성도서에서 간행했다. 1950년 8월 23일 고혈압과 세균으로 쓰러져 병상에서 한국전쟁을 맞았다. 7월 5일 인민군에게 묘자통 삶을 차입당한 뒤 6일 내무서로 연행되어 12일 남북되었다. 같은 해 10월 평양에서 강제로 어동 도중 10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시인은 삼한 통상과 지방인

배결해의 악화였다. 그가 이동 도중 동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의 친구였던 홍명희가 김일성의 허가를 얻어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자기 숙소에 데리갔다가 인민군 병위부로 옮겼으나, 결국 이광수는 지명인 배결해의 악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4. 사후 및 평가

1957년 11월 23일 사상계사 주최로 '육당, 춘원의 밤'이 개최되었다. 1959년 12월 '춘원선집(장영사)'가 발간되었다. 1963년 11월 '이광수선집(삼중당)'이 완간되어 13일에는 홍사단, 삼중당 주최로 '이광수선집 완간기념강연회'가 열렸다. 1971년 10월 산천 '이광수 선집'이 간행되었다.

1991년 셋째 아들 이영근은 북한측 초청으로 입북, 부친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 연구소가 작성한 민족문제 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문학 부문에 포함되었다. 2002년 공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에도 들어 있으며, 당시 총 103편의 친일 작품명이 공개(27)되어 친일 문학인으로 선정된 42인 가운데 가장 많은 편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이광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합일 민족주의자로서 35-36년을 살고 47세경부터 일제 패망 때까지 약 6년간을 친일로 살았다." 는 점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광수의 친일활동은 어떤 수가 없었으며 동료 시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이광수는 사실 저짓 친일, 할제는 독립 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광수는 민족의 양심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1909년 <사립인기>를 펴고한 시절에서 이미 친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1948년 김승하이 작성한 '친일파 군상' 보고서에 따르면, 이광수는 광명적(光明的) 친일 글 일면 협력자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 이광수는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5. 문학세계

기독교 사상을 접하면서 이광수는 마테오 복음서를 읽고 세례자 요한의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고 싶어 했을 정도로 감동받았으며,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기독교 사상이 나타나 있는 예술본에 친취하여 이 같은 기독교 정신을 자신의 작품 속에도 구현하려 하였다. 이광수는 1920년에 《규일 조선 아소교회의 문젯짐》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광수가 당시 조선교회의 문제점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인복을 알고 일말음을 받게 준다.

(1) 조선 교회는 너무 권위적이고 세속적이다.

(2) 조선 교회는 재상과 교회를 너무 이분화해서 교회에만 집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 세상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의미한다.

(3) 상당수 개신교 목사들의 수준이 형편없다.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들이 너무 많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줄 안다. 한민족을 세우려하면서 미신과 신앙을 겸수하니 이게 뭘 말이나?

(4) 조선교회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모두 합쳐서 100년이 넘는 선교역사를 가졌는데, 어찌 조선에는 재 소리 하나 없어 다 가져온 것이냐?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청백성(자주성)이 없다.

(5) 선교사들과 그들이 인정하는 몇몇 개신교 목사들이 성서 해석의 독점권 을 가졌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성서를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보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6) 조선의 그리스도교는 권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신미적인 해침만을 강조한다.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조선의 대중들을 끌어들여 한 기독교관측적인 논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그의 작품에 기독교적 사상이 깃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총영육에 따르면 기독교적 사상이 깃들어 있지만, 그는 기독교 사상을 교리로서가 아니라, 독자의 성서에 호소하고 고양된 정서의 감동을 통하여 애만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장하야로부터 귀국한 후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조선일보 부사장을 역임 시내면서 헌분에 잠면소설 《高》 등을 발표하였다.

〈이광수 연표〉

연 도	내 용
1916	와세다대학 철학과 입학
1917	장편 《무정(無情)》 단편 《소년의 비애》
1917~18	장편 《개척자》
1919	《조선청년독립단선언서》를 기초하고 상하이로 탈출,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주간으로 활동
1921	귀국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언론활동
1923~24	장편 《허생전(許生傳)》
1924	수필집 《금강산유기(金剛山遊記)》
1924~25	장편 《재생(再生)》
1926~27	장편 《마의태자(麻衣太子)》
1928~29	장편 《단종애사(斷宗哀史)》

1930	소설집 《혁명가의 아내》
1931~32	장편 《이순신》
1932~33	장편 《蟲》
1933	장편 《유정(有情)》
1934~35	장편 《그 여자의 일생》
1935~36	장편 《이차돈(異次頓)의 사(死)》
1936	장편 《애욕(愛慾)의 피안》 수필집 《인생의 향기》
1936~37	장편 《그의 자서전》
1937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사건으로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투옥
1938	장편 《사랑》
1939	임업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역임, 소설집 《이광수 단편선》 시집 《춘철시가집》
1940	장편 《재종대왕》
1942	장편 《인호대사》
1947	장편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꿈》 《나》
1948	장편 《나의 고백》 수필집 《돌벼개》
1950	B.25기함 매 난파, 만포에서 병사

6. 부록

㉠ 춘원 이광수

그의 문학세계는 이상주의 바탕을 둔 계몽적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현대소설의 문체 확립 실험적 인물묘사 현대적 주제설정 등 현대문학의 선구자로서 문학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광수의 문학관은 '동시대 최선의 세계관을 선택하고 동시대의 인본의 중심계급을 전형화 하였다.'는 사자의 말을 참고하더라도 퇴폐적인 문학이나 한쪽으로 치닫치게 기울어지는 극단적 문학관을 지양하였다.

대체로 이광수의 초기의 작품들은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개명하기 위하여 자유연애를 고취하고 조혼의 폐습을 거부하였다. "부정"에서는 신교육 문제를 다룬 자유사상 계몽자에서 자유사상을 "홍"에서는 농민 계몽사상을 고취 하면서 민족주의 사상을 계몽 하였다.

㉡ 구술자료

구술자 - 이 문승 (85세)

조사자 - 권 광식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흐르는 세월은 어쩌 마을 수 없지만 세월은 허세만 같은데 무엇이 아프고 하나 둘 떠나고 동상들이란 하나 같이 아프고 견뎌고 눈이 침침한 나

이들이다 보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봉천사 큰방보다는 산으로 올라가서 작문시간에 남쓰기 차도뿐 하면서 시에 대한 이야기 소설 쓰는 밑 이야기를 영어 시간에는 일본 이야기도 할애 주었습니다. 물론 안 좋으신 이광수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자택에서 능 근처에 사할 때 연대 교통이 불편해 상현리 지금의 상현리 진철 자구대 근처에 하숙병을 형어늘고 학교에 출근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진본사에 가신다고 하면서 선생님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할 심봉 선생님이 춘원 이 광수 선생님에게 주신 “국문학 참고 도감” 을 학생들에게 구경시켜 주시다가 그만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가셨습니다. 이 책을 선생님께서 정하지 못하고 간직 하시다가 죽기 전에 이광수기념관이 생기면 책을 내 놓으려고 잘 보관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자는 뜻밖의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본즉 국문학도의 필수교본이 아닌기 합니다.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는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조는 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이러야 17명 그나마 중도에 포기한 학생도 있지요 선생님이 더 안타깝게 한우를 물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언창호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인생이 떠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꿈은 하늘에서 살차고” 내가 좋아하는 동한 인간들은 바닷물을 마시기 때문에 김증은 한없이 찾는다.

프랑이만 바닷물은 마시지 않고 깊은 산속의 물만 먹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김증은 없다. 그래도 사람의 세월은 지난세월의 아픔을 느끼고 세월이 정해진 문명대로 누구나 살아가고 있다.

기타 1.

진건읍 사능리 집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520번

집터 올라가면 연두색 펜스로 된 집안으로 들어가면 올라가게 세 개 초그머한 바석이 있습니다.

내용 1. 한국 근대 문학의 아버지 1892~1950死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

1944년 3월에 집을 지어 1948년 9월까지 살았다. 여기서 해방을 맞았다. 수필집 《돌벼개》의 글들과 도산 안창호 자전소설(나 - 소년만)을 집필한 곳이다. 자성의 기록(나의 고백)의 붓을 든 자리다. 신병으로 이집을 떠나 서울집 효자동에 머물다가 1950년 남북분후 돌아오지 않았다.



〈춘원 이광수 옛집터와 춘원 이광수선생 기념사업회비〉

농사하고 사농에 안사니 / 벗하나와 소하나더라
창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 귀기울여 시내를 돌아라
동네나서 보들을 지다가 / 석양에 딱정리를 마시니라
오이랑 파먹고 / 냉수랑 마시고
잠시 돌벼개를 비고 / 창 밑에서 낚잠을 자니라
-돌벼개 서문에서

기타 2.

춘원 이광수묘 여기 있습니다.

6.25 날 월북인사묘역

평양 용성구역 용궁1동 위치한 재북인사

62명 유해안치(2005-7월)

방영주 소설가가 쓴 <돌고지 연가 춘원 이광수>

춘원 이광수의 흔적이 서린 고백

춘원 이광수의 합당한 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소설이다.

말은, 눈분, 서, 서프, 수필, 소설, 수를 한해 춘원의 문학 사기(詩誌)라 했지만 자신의 문학적 본기(本基)이다.

● 구원으로 전하는 말

- 춘원 시집은 말이 많은 작가다.
- 일진회에서 처운명 제재(題裁)를
- 평안북도 경주군 송교지 마을에서 허보경 부부
- 비를 두어면서까지 글을 쓴 사람
- 광동중학교 교가 이광수 지음

〈춘원 이광수의 광동중학교 비치된 목록〉

혼인	순교자	천안기	꿈
무정	허생전	원효대사	거룩한이의 죽음
이순신	늙은 절도범	운명	개척자
합법	재생	사람의 동명왕	가실
유정	무명씨	그의 자서전	실연
유람	일설춘향전	그여자의 일생	금십자가
예술과 인생	마의태자	혁명가의 아내	단종애사
방황	흙	선도자	*정육론
돌베개	인생의 향기	이차돈사	노예
소년의 비애	도산 안창호	이순신	춘원시 시가집

* 상중자가 많음 예)유정

이광수는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선구적인 작가로서 계몽주의 작가로 평가를 받는다. 그것은 시대 분위기와 사회적 조건의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내내로 조기의 작품들은 인간의 해탈과 자유를 계몽하기 위하여 자유연애를 고취하고 조혼의 계급을 거부하였는가 하면 〈무정〉에서는 신교육 문제를 〈개척자〉에서는 과학 사상을 〈흙〉에서는 농민 계몽사상을 고취하면서 민족주의 사상을 계몽하였다.

그러나 선구자들은 그가 담당한 사회적 갈등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것으로 힘을 우선 지킨다는 부정부조 측면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전국 대표자 대회 제30회

2010. 10. 30(土) 오후 4시 /스타힐리조트 /남양주지부 /이용호 /초청의 글 /태희석 /보
도자료 /결의문 채택

이광수 집터 복원 결의문 채택

한국문인협회 남양주지부장 이용호는 2일간 남양주 스타힐리조트에서 전국에서 모인
문인들에게 집터복원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광수 선생의 따님인 이정화씨 「아버님 추억」에 게재된 사릉집에서의 추억 부분 발췌

사릉집에서 /바깥과 만나며

11살 때 사릉집의 추억을 회상하며 생2차 대전이 끝난부럼 조금마한 사릉집(당시 지
원집) 3남매가 살았다.

사릉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너의 아버지는 애국자 이시다. 병든사람 집에 데리고
와서 김명해 주고 그리고 취직하자 시켜주너 얼마나 훌륭하신지, 신문사에서, 잡지사
에서 칭찬하는 글을 써 달라고 자주 청탁이 왔다.

이광수가 애국자란 무슨 말인가?

“우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역사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위대한 선각자이시다. 태 분포가이비 발속운동가이신 당대 분
포가를 재평가”

“진일행적과 문이려 청과는 재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남양주 사릉리 집터 복원사업 기념공원 조성

김년균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적극지원 약속)

육 바라밀 / 애인 춘원 이광수

님 예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인가 바치고 싶은 이마음
저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께 보이자고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마음 저기서
나는 직제를 배웠노라

님이주신 것이면 때됨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마음
저기서 나는 인육을 배웠노라

원하에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남만을 사모하는 이마음
저기서 나는 정전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험 새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저기서 나는 선장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꿈에 안길때에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의 존재도
있을때 저기서 나는 살바야 지혜를 배웠노라

1. 육 바라밀은 보살의 수행에서 현상에 이르는 여섯가지 단계으로 보시, 직제, 인육, 정전, 선장, 지혜이다. 님은 이 봄에 바라밀을 가르치려고 첫장 애인의 몸을 시는 무척담이신라고 / 애인 육 바라밀

진접읍 부평리 봉선사 부도탑

순환 이장수 기념관에서

업적

정원과 민화, 옛날음과 가르침 모든 것이 비친 마음으로,, 풀어서는 자유자상을 태
민적 도입했고 이어서 나라 나라의 저래 성급의 청산 안창호의 열리 혁신운동 그려
6촌 아우 순허스님이 주관하는 칼에 이들 이영근, 말 정안, 정화

추하 = 추요한 글짓고 / 완곡 김카순 글씨 쓰다 1975, 가을

1975 허영순 여사와 아들 말과 같이 참석하고자 미약해서 왔으나 87 80세의 원수로
생내 공원요지에 불타

먼길 가는 손님네야
내 노래 듣고 가소
다리는 안 아프리
잠깐 쉬어가소
변변치 못한 노래
그래도 듣고 가소
시원치도 못한 예기
그래도 듣고 가소
길가에 외로이 앉아
부르는 내노래를
저기서 손님네야
한가막만 듣고 가소
가도 또 길이요
새면 뜻 날이다
끝없는 길손불러
끝없는 내 노랫세
-1936

벗님네 날 찾아심
무엇보고 찾으시고
갑없는 이몸인줄

아마도 모르시고
행여나 무엇인가
하여 찾으신가 합니다

-1940

행제여 작대여
더미지는 돌담 밑에 굶어 있어
울조리는 나라 노랫 소리를
듣는가 듣는가
깨어진 집 향보에 떨리는 손아
피우는 자단향의 향내를
맡는가 맡는가
월제여 작대여
님 내를 그리워 가슴속에
그리워 성문 밖에 서서울고
기다리는 날을
보는가 오는가

-1925

내몸이 무엇이요
한때는 죽을것이
고락을 헤으리까
한바탕 꿈아 꿈이르다
조구만 목숨이 남아
저래위해 바치리다

-1931

님아 참기로운 꽃가지로 권총관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라
내 머리에 가시관이 함당 하도다
가시관을 내 머리에 꼭 눌러 씌어라
님아 그리하여서 이마에 수없는

상새기에서 흐르는 아프고 쓰던피를
떨 손가락으로 짚어 뿌리며 통과하게
할 지어다
남아 내게는 오직 아픔과 울음에 합당한가
가시관이 맞는도다
-1925

나는 사는 날까지
이 길가에 앉아
있으십니다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십니다
누구시나
행인은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가고 싶으면
아모레에 가서도
좋습니다
-1937

내 평생에 지은 이야기
스물 서른 머스른 읽으시고
어느분 들으시고 그 얼굴들
눈 앞에 그려 놓으면
모두 반가오셔라
살 달는듯 하여라
-1949

누나야 오라비아
빈티어든 갈아보세
벗은 산 입히고
물힌 개진 훑내고서

옛보다 나은 조선을
이뤄보세 이뤄봐
-1993

기쁨은 내 등산에
생 하나를 찾았이라
물안듯 맑아오리
웬 맛인들 좋으리만
임이여 오시옵소서
생물 마시옵소서
-연재이상

1990, 7, 12 요자동 자택에서 당시 68세에 육안 인민군에게 강제 복종하다.

남양주와
조지훈의 만년유택



남양주와 조지훈의 만년유택(萬年幽宅)

이 용 호

(사단법인 한국문인회의 남양주지부장 시인, 소설가)

남양주시 화도읍 송라산의 송터에서 마석역으로 이르는 그 산 아래로 조지훈시인의 시 낙화(落花)가 울려 퍼진 때는 2011년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중보리정단과 증중보리상단에 실린 시인의 노래는 남양주의 젊은 국악인에 의해 재창조되어서 산 아래 마석산까지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층권에 의해서 현대적으로 표현된 시 슬부(僧舞)가 시인에게 바쳐졌다. 그렇게 남양주의 조지훈문학제는 시작되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회의 남양주지부(이하 남양주문협)가 주최하고 주관한 문학제는 요역에서의 고유제를 시작으로 조지훈분하심포지움과 시낭송공연, 그리고 기념 문학지방간 등 다양한 행사로 이어졌다. 지역언론에서도 행사 당일 남양주시의 여러 곳에서 펼쳐진 이 문학제를 동행취재 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남양주시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지훈시인의 만년유택이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지훈문학제의 개최의의를 알게 된 것은 행사의 묘미는 주환일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문학제는 내용의 깊이를 더하며 매년 남양주시 위원에서 펼쳐질 것이다. 남양주시는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지훈시인의 만년유택이 있는 화도읍은 구한말과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슬픈 역사가 곳곳에 스며있는 곳이다. 1919년 3월10일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순절한 김성려의 주인공은 매년 8.1만세운동 세천행사를 통해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장현리에 누워 계신 휴전대위군 이하응은 그 자체가 구한말의 한 많은 역사일 것이다. 또한 금곡동의 흥류물에는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그리고 순종과 순명효황후와 순종의 계비 순경

효황후가 보석적이었다. 조지훈시인의 언보와 연결해 보자면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1919년 홍유릉에 모셔졌으니 조지훈시인이 태어나기 한 해 전이요 순종황제의 세비인 순효황후가 1908년에 모셔졌으니 조지훈시인이 운명하시기 두 해 전의 일이다. 그리고 조지훈시인보다 두 살 위인 문익환목사가 모셔졌으며 희근 건태일열사의 어머니 이소실어사와 김근태전희원이 모셔진 아세모란공원이 있다. 이승만집권에 태평하였던 참여시인이요 고려대학교 교수시절에 평생 사죄서를 갖고 다녔다는 지조의시인이 멀리 경상북도 영양 땅 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남양주의 이러한 역사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런 상상을 해본다. 조지훈시인이 이곳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22-8번지 마석장이 아래로 보이는 총라산 중턱에 왜 모친을 버려 모셔놓고 당신도 그 바로 아래에 유해를 마련했는지 정확히 들어서 아는 바는 없으나 위 역사적 사실들을 무심히 열거하다 보니 그 시절 시인의 마음이 연뜻 잡히는 듯 하여 해 보는 상상이니 행어나 과한 비약이라고 용은 보차 바시기를.

현재 남양주분협의 지부장인 필자가 고려대학교 국문과 최동호교수님을 만난 것은 다행이고 행운이었다. 최교수님은 조지훈시인의 제자이고 현재 조지훈시인이 고려대학교 재직시 쓰던 교수실을 물려받아서 쓰고 있을 정도로 조지훈시인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다. 교수님을 만나면서 제작년에 우리 협회에서는 처음으로 조지훈시와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조지훈시인에 관한 특강의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이때 “조지훈과 남양주”라는 주제로 강의 때 주신 분이 최동호교수님이다. 몇 해 전 남양주분협의 회원들과 조지훈시인의 유해를 찾아서 약주 한잔 올리고 내려오는 길에 허허로운 웃음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던 기억들과 지금은 남양주구리연한심분의 분하산분기자인 한철수형이 조지훈시인의 추모발기모임을 꾸리고 더 이상 선행되지 못하는 마음을 보보했음 때의 부력함, 답답함에서 이제는 부인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무언가가 잡혀질 것 같은 반가움 그 앞에 최동호교수님이 있다. 그 해 우리 남양주분협은 남양주분학지에 조지훈시인 특집을 기획하여 발간하였다. 그리고 작년에는 남양주문예대학을 통해서 남양주의 비래문인과 시민들에게 조지훈시인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그러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보다 조직적인 조지훈분학제는 기획되었고 실행리에 개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행사의 실행지움에 토론자로 나선던 우리 남양주분협의 이동근시인과 한정희시인은 앞으로 조지훈시인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제 뒷발을 빼었으니 조지훈시인의 문학과 정신을 긴 호흡으로 재승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 중심에 우리 남양주분협이 있고자 하는 바램이다. 남양주를 시나는 정춘선의 사농역 근처에는 춘원어광수의 집필터가 있고 마석역 위로는 조지훈의 유

백이 있고 증양선의 도성의 근처에 조선후기 비영한의 원통일가신필터미자 조씨의 묘역이 살고 있다.

남양주문협에서는 올해 뒤 새 곳을 연결하는 문화기행 코스를 제방하의 시민들에게 더욱 나가서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광수는 조지훈이든 박영한이든 우리 남양주의 아주 귀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알릴 것 아닌가. 2012년 새해 새 봄을 맞으며 조지훈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지 공공이 생각하는 데 아직 숨어내지 못한 시 한 구절이 이 가슴에서 답답하다.

참고로 남양주시는 현재 인구 38만의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큰 도시이다. 죽안길 농촌리에 다산 정약용의 생가지 있어서 매년 다산문화제를 하고 고만고만한 지역문화축제도 여럿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양주문협에서 올해 문화기행코스로 개발하겠다는 곳들을 남양주시청의 담당자들이 제대로 모르는 듯 하니 어쭙요라도 만들어야 하는 문인들의 고단한 발걸음이 황사인 듯 부산할 것 같다.

2012년 제간 '서정서화' 에 게재된 원고임

사진으로 보는
남양주시의 과거와 현재







오남리 진주아파트





진접읍 장현 주공1단지 앞 장현대교와 진접택지지구





장현에서 금곡리 가는 길

진접택지지구로 변한 금곡리





남양주 장현휴먼시아 3단지로 변모한 벼락소 유원지





벌내면 청학리





평내간이역 있던 자리(평내동 늘을3로 25번길)





경춘선 평내호평역 자리





평내호평역(평내간이역)에서 바라본 서울리조트 앞





마치터널에서 바라본 옛 가인아파트와 현재 호평주공23단지 아파트





화도읍 금남리 - 대성리 간 야미기고개





마석오거리 (모란공원 방향)





마치터널에서 바라 본 묵헌리





조안면 경춘선철도

조안면 경춘선철도와 양수대교





왕자궁마을 입구 앞 경강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앞 진건오남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앞 경춘북로





수석동 미음나루터





수동계곡과 몽골문화촌





경춘선 도농역





도농사거리





퇴계원 건널목 (현 도계원로)





퇴계원 전경





경춘선 덕소역





남양주문화원 원사





경춘선 금곡역





덕소로 덕소굴다리





남양주시 향토사료박물관 / 현재 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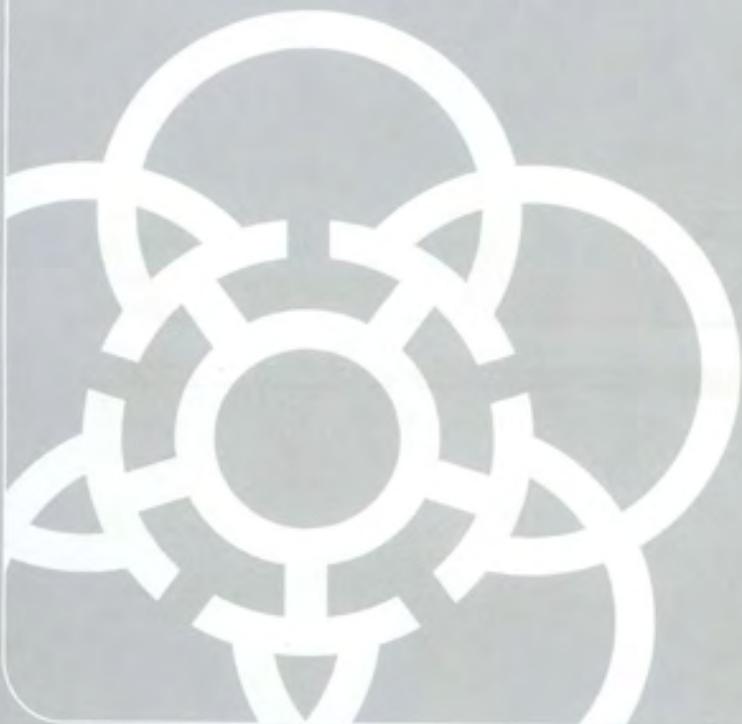


덕소진입로(경강로)



남양주문화원 행사안내

- 농 기신제
- 3.1독립만세운동
- 전마산 산신제
- 청소년 향토순례
- 문화유적탐사



문화원 행사 안내



- ◆ 능 기신제
- ◆ 3.1독립만세운동 (햇불 대행진 재현행사)
- ◆ 천마산 산신제
- ◆ 청소년 향토순례
- ◆ 문화유적 답사

능 기신제

여대의 왕이나 왕후의 기일(忌日)에 각 능(陵)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신관례, 초현례, 아현례, 중현례, 음복례, 방요례의 순으로 전 과정이 약식시건에 걸쳐 진행된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여러 기의 왕릉이 모셔져 있다.

남양주시의 후원으로 남양주문화원이 주리하고 전주시씨 대동총약위 각 봉합회 주관으로 제를 올린다.

특히 2009년 6월에는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행사에 가족 모두가 참여해봄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남양주의 조선 왕릉 기신제 일정

조선 제7대	태조대왕/정희왕후	진건읍 루평리 산100-1번지(궐릉)	8월 17일(음)
조선 제6대	철순왕후(단종 비)	진건읍 사당리 산65-1번지(사당)	5월 20일
조선 제26대	고종황제/명성왕후	금곡동 산141-1번지(릉·유릉)	1월 21일 8월 23일(음)
조선 제27대	순종황제/순명효왕후 순열효왕후	릉·유릉	4월 25일
조선 제15대	광해군	진건읍 송릉리 산59번지	



(제물 올리기 위해 들어오는 헌관들)



일본에서 모신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분
들도 같이 참석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기신제 봉행 홀기

(제물 진설 및 향, 향로, 세움 준비를 마친 후)

集禮者 位置 再拜

(집례자 제 자리에서 2번 절한 후)

○獻官 以下 諸執事 參祀者 就位

(헌관 이하 제집사 참사자 취위)

헌관 이하 제집사와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서 주십시오.

○諸執事 次 盥洗位 盥洗 就位

(제집사 차 관세위 관세 취위)

제집사들은 차례로 관세기로 나가 손을 씻고 좌 북부 위치로 가 서주시오!

○諸獻官 次神位前 序 西向 立
(제한관 차신위전 서 서향 립)

모든 헌관들은 차례로 신위 앞으로 서향해 서 제집사회

○獻官 以下 諸執事 參祀者 皆 再拜!

(헌관 이하 제집사 참사자 개 재배)

헌관 이하 제집사 및 참사자 모두 재배하십시오!

▷ 鞠躬 拜 - 興 - 拜 - 興, 平身 執笏
(국궁! 배 - 흥 - 배 - 흥 평신, 집술!)

2.

□ 1. 行奠幣禮! (행전폐례!) 지금부터 전폐례를 행합니다.

○贊引引 初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 盥洗于執笏.

(찬인인 초한관 예관세위 북향립, 진출 관세수 집술)

引詣壇 昇自南階 詣神所 西向立!

(인예단 승자남폐 예존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관세위로 나가서 북향해 서서 손을 씻은 후 손을 씻고 다시 손을 씻은 후, 제단 남쪽에 이르러 신위 앞에 서향해 서게하십시오.

○奉香 奉香盒 奉爐 奉香爐

(봉향 봉향합, 봉로 봉향로)

봉향은 향합을, 봉로는 향로를 준비해 올리시오.

(집사는 향브와 향합을 준비하십시오)

○贊引引 獻官 詣神位前 北向立, 跪, 擗笏!

(찬인인 헌관 예신위전 북향립, 꿇, 진술)

헌관은 헌관을 신위앞으로 북향해 엎 후, 되서 부엌하고 몸을 굽도록 인도 해서

(이름 - 물을 제례복 왼쪽 가슴에 있는 끈 주머니에 넣는다)

○初獻官 三上香

(초헌관 3상향)

초헌관은 3번 분향 하십시오.

(분향 후 붉은 색로 배를 옮길 때까지 배자리에 기다립니다)

○大祝 升 執幣 獻幣

(대축 승 집행 헌배)

축관은 배를 들고 올라가 배를 올리시오. (노구매(세움) 헌함로 대제위(헌))

○初獻官 執笏 俯興 贊引引 降復位 祝以下 皆降 復位

(초헌관 집행 부흥 찬인인 감복위 축이하 개감 복위)

초헌관 흉음 잡고 일어나서 찬인을 따라 내려가 복위하십시오.

축관이야 모두 내려가 복위하십시오.

(집사는 복부 위치(셋삼업)로, 축관은 재작라고 들어갑니다)

□ 2 行初獻禮 행초헌례! (지금부터 초헌례를 행합니다)

○贊引引 初獻官 昇自南階 詣神所 西向立

(찬인인 초헌관 자승남매 예존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제단 남쪽에 올라 턱향해 서게 만드라시요.

(과제외를 그냥 통과해 제단 앞까지 간다)

奉爵 奠爵 升 遷于 護臺 樽所

(봉직 천작 승 천우 잔대 존소)

집사(봉직, 천작)는 잔대(제상에 있는)를 존소(제우상)에 올라 놓으시오.

贊引引 獻官 詣神位前 北向立 跪 捧笏

(찬인인 헌관 예신위전 북향립 꿇 집행)

찬인은 헌관을 신위앞으로 복향해 선 후, 부복하고 술을 꽃드록 유도하시오

司樽 舉罇 酌酒

(사준 거罇 작주)

침사(사준)는 술장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奉斟拭爵, 以酌受酒, 爵授 獻官

(봉침拭직, 미척수주, 작수 헌관)

침작은 깨끗한 잔에 따라준 술을 받아서 헌관에게 주시오

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헌관 수직 헌직, 수전직)

헌관은 잔을 받아 헌직하시고 길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奠于 第1站

(전직 수직, 존우 제1점)

전직은 잔을 받아 신위전 제1곳에 놓으시오

獻官 執笏 俯伏興 小退 跪

(헌관 집행 부복흥 소퇴 궐)

헌관은 손을 집어 들고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서 꿇어앉으십시오

조헌관 등경해 신위 앞에 부복하여, 좌집사(봉직)가 전해주는 잔을 잡아들고, 우집사(사준)가 술을 따라주면, 잔을 눈높이로 들어올렸다가, 우집사(전하)에게 전해준다. 우집사는 잔을 받아 이동하여 신위앞에 놓는다. 헌관은 제자리에서 조금 일어나 뒤로 조금 물러 앉아 독축을 기다린다 (집사는 수지를 3번 고를 후, 직자를 가지런히 놓고, 매 두팔을 벌려, 수지를 노구에게 잡고, 다시 직자를 가지런히 한다)

□ 3. 讀祝 (독축)

大祝升 執祝 獻官 詣左, 跪, 讀祝

(대축승 집행, 헌관 예좌, 궐, 독축)

대축은 축편을 갖고 음아가 헌관 왼쪽에 앉드려 축문을 읽으시오

諸執事 復位, 諸執事, 參祀者 俯伏!

제집사 복위, 제집사, 참사자 부복!

제집사 앉히고, 참사자 모두 정자에서 부복하되(사비
[거짓는 사람(관관객)은 제외]는 정자에서 정자에서 정자)

(祝 畢) 독축을 마친 후

○獻官 擗笏 俯伏 興

(헌관 진을 부복 흥)

조헌관은 손을 뚫고 일어나십시오

○獻官 以下 諸執事 參祀者 皆 再拜!

(헌관 이하 제집사 참사자 개 재배!)

헌관 이하 제집사 및 참사자 모두 일어나 행배하십시오

平身 - (鞠躬, 拜-興-拜-興, 平身) 執笏 - 復位

평신 - (국궁, 배-흥-배-흥, 평신) 집을 - 복위!

(측관은 조헌관 좌측에 등장해 농염으로 앉아서 축을 읽고 서서(헌관과 함께 일
어서 참사자들과 함께 재배한 후, 조헌관과 측관은 좌위로 돌아간다.)

贊引引 獻官 降復位 祝以下 皆降復位

찬인인 헌관 감복위 축이하 개감복위

찬인인 헌관을 이끌고 복위하십시오, 측관이하 모두 내려가 앉으십시오

口 4. 行亞獻禮 행아헌례! (지금부터 아헌례를 행합니다)

○贊引引 亞初官 詣盥洗位 北向立, 擗笏 盥洗手 執笏.

(찬인인 초헌관 예관세위 북향립, 진을 관세수 집을)

引詣壇 昇自南陸 詣禱所 西向立

(인예단 승자남패 예존소 서향립)

하인손 이현권을 관세위로 나가서 북향해 서서 손을 받고 손을 씻고 흙을 밟은 후, 재단 남쪽에 이르러 재단 앞으로 서향해 서게 하시오.

奉爵 奠爵升 遷于 饗臺 楸所

(봉작 전작승 천우 전대 준소)

김사(봉작, 전작)는 위대를 준소로 옮겨 놓으시오.

贊引引 獻官 詣神位前 北向立! 繼 稽顙!

(찬인인 헌관 예신위전 북향립 궤 진을)

찬인은 헌관을 진위앞으로 북향해 선 후, 허사 부복하고 흙을 밟도록 인도하시오.

司樽 舉盞 酌酒

(사준 거맥 작주)

사준은 술뿔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奉爵拭爵 以酌受酒 爵授獻官

(봉작식작 이작수주 작수헌관)

봉작을 깨끗한 잔에 따라준 술을 받아서 헌관에게 주시오.

獻官受爵 獻爵 授奠爵

(헌관수작 헌작 수전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천하시고 헌작에게 주시오.

奠爵受爵 奠于第2桌

(전작수작 존우제2침)

전작은 잔을 받아 2위전 제2침에 놓으시오.

獻官 搯笏 俯伏興 再拜

(헌관 진을 부복흥 재배)

헌관은 흙을 밟고 일어나 재배하시오.

平身(一) (觀躬, 拜-興-拜-興, 平身) 執笏 - 復位

명신 - (국궁, 배-홍-배-홍, 명신) 집궐 - 복위

贊引引 獻官 降復位

(찬인인 헌관 감복위)

찬인은 헌관을 데려가 제자리로 복위하도록 인도하십시오

□ 5. 行終獻禮 행종헌례 (차남부터 종헌례를 행합니다.)

○贊引引 亞初官 詣盥洗位 北向立, 捧盥 盥洗手 執笏,

(찬인인 초헌관 예관세위 북향립, 진물 관세수 집궐)

引詣壇 昇自南階 詣神所 西向立

(인예던 승자남계 예존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관을 관세위로 나가서 서향해 하사 물을 관세수를 씻고 물을 삼은 후, 다시 계단 남쪽에 이르러 신위앞으로 서향해 서게 하시오

奉爵奠爵升 遷于饗堂楹所

(봉직전직승 천우잔대준소)

참사(봉직, 전직)는 올라가 권대를 준소로 옮기 놓으시오

○贊引引 獻官 詣神位前 北向立, 舉 揖筭

(찬인인 헌관 예신위전 북향립, 궐 진술)

찬인은 헌관을 신위앞으로 서향해 선 후, 다시 부세하고 물을 관세수로 인도하시

司尊 舉盥 酌酒

(사준 거벽 착주)

사준은 술병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奉爵 挹爵 以酌受酒 爵授獻官

(봉작 식작 이작수주 작수헌관)

봉작을 새장에 따라준 술을 받아서 헌관에겐 주시오

獻官 受爵 獻爵 授奠爵

(헌관 수작 헌작 수전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산하시고 전자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 釋于 第3站

(전작 수작 존우 제3점)

전작은 잔을 받아 3위권 제3점에 놓으시오

○獻官 攝笏 俯伏興 再拜

(헌관 진술 투복흥 재배)

헌관은 곁을 놓고 엎어나 재배하시고

平身! - (鞞引, 拜-興-拜-興, 平身) 執笏 - 復位

평신! -(국궁, 배-흥-배-흥, 평신) 짐을 - 복위.

贊引引 獻官 降復位

(찬인인 헌관 강복위)

찬인은 헌관을 내리기 재지리로 복위하도록 인도하시고

□ 6. 行飲福禮 행음복례! (사급부터 율령례를 행함이다)

贊引引 初獻官 詣飲福位 西向立, 奠, 攝笏!

(찬인인 초헌관 예음복위 서향립, 궤, 진술)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세단일 음복장으로 나가 서향하게시고 헌관은부복한 다음 음을 곁에 주시오.

執事 奉爵 奠爵 授獻官, 獻官 受爵 飲卒 以爵授 承酒

(집사 봉작 전작 수헌관, 헌관 수작 음태, 이작수 봉작)

○ 집사(執事)는 것에 술을 부어 헌관에게 주시고 헌관을 권술 받아 마시고 집사(執事)에게 권을 주시오.

奉爵 受爵 奉安 樽所

(봉작(집사) 수작 봉안 존소)

봉작(집사)은 권을 받아 존(헌계주상)에 놓으시오.

縮執事 升祭需 小移 降復位

(제집사 승제수 소이 경복위)

집사는 올라가 제수를 조급 풀리고 원위자로 내려오시오.

獻官 以下 諸執事 皆 再拜

(헌관 이하 제집사 개 재배)

헌관이외 제집사도 모두 재배하십시오.

獻官 諸執事 復位

(헌관 제집사 복위)

헌관과 제집사는 원위자로 각시오.

(생략) — 그 자리에씩 따로 일호로 시행함이다.

□ 7. 行望燎禮 행 망료례 (자금부터 망료례를 행함이다.)

韓引引 初獻官 詣望燎位 北向立 祝升取(幣及) 祝文遂燒

(찬인인 초헌관 예망료위 북향립 축승취(幣급) 축문수소)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해, 초헌관이 나와서 망료위에 이르러 북향해 지시고

※예관은 망료위에 이르러 북향해 서게서서 축권은 축문을 가피와 허로부터 축상을 태우시오.

※축문을 더 태우고 지시오.

大祝進 獻官之左告 禮畢

(대축진 헌관지좌고 예필)

대축은 헌관에게 좌측으로 나아가 예를 다했다고 권위진호

- 禮畢! (축문을 대우고 축관이 “예필” 하고 쓰러낸다)

獻官及 大祝 降取位

(헌관급 대축 강취위)

헌관과 대축은 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 위치해두신다

獻官 以下 諸執事 參祀者 皆 再拜!

(헌관 이하 제집사 참사자 개 재배!)

헌관 이하 제집사 참사자는 모두 재배하십시오!

平身! (鞠躬, 拜-興, 拜-興, 平身) 執笏 - 還位

평신! (국궁, 배-흥, 배-흥, 평신) 칩홀 - 복위

再拜! (鞠躬, 拜-興-拜-興, 平身)

재배! (국궁, 배-흥, 배-흥, 평신)

禮畢! 예필

□ 3.1독립만세운동 (햇불대행진 재현행사)

사민회 당시 남양주지역에서 축행한 양주군의 3·1운동은 3월 13일과 14일 이튿날 열린 이튿날 평대리를 시작으로, 3월 30일 전침면 부평리에서 서휘에 이르러까지 총 23회에 달하는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양주군 전체 18개 면 가운데 화천면과 온현면을 제외한 14개 면의 주민들이 참여한 그야말로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튿날 평대리에서 참가한 독립만세시위의 참가자는 1000여 명이 참가한 3월 15일 화주면 송촌리·비소리의 시위를 거쳐, 3월 18일 1000여 명이 참가하고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최초의 유혈 사태를 맞은 화도면 마석우리에서의 만세시위를 정점으로 하여 최후 소령상태에 접어들었다. 5월 26일 이원면 동두성리(현 동두천시)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 이후 3월 30일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30여 명에서 400여 명 규모로 인일 해산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남양주 3.1운동 현황

연식	장 소	참가자수	운동양상	피해상황	일본대응	참고사항
3월13일	미금면 평대리	100	만세시위			이창주도
3월14일		150	만세시위 면사무소앞	기소6	헌병출동	
3월15일	외부면 송촌, 비소리	500	만세시위	피체6 기소17	헌병출동 발포	기독교도 다수
3월18일	화도면 마석우리	1,000	야간만세 시위, 헌병 주재소행	사망5 부상7 피체8	헌병출동 발포	
3월24일	전침면 금곡리	13	만세시위			
3월29일	전침면 금곡리	400	만세시위	사망1 부상3 피체1	헌병출동 발포	
3월29일	병내면외세원리	200	만세시위	피체1	헌병출동	
3월29일	전침면 오남리	수십명	만세시위			
3월29일 ~ 30일반	전침면 전반, 송촌리	초수	직위선동 유인물 200여장배포	기소3		송천사 승려
3월31일	전침면 부평리	100	만세시위	기소8		

▶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햇불 대행진)

◊일 시: 매년 2월 마지막날 저녁

◊장 소: 화도읍 월산교회 또는 화강중학교

◊주 최: 남양주분화원

◊주 관: 남양주분화원, 월산교회, 화도 중부면협의회

◊후 원: 남양주시

◊목 적: 우리 민족의 자각과 세계속에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인식시킨 3·1 독립 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남양주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재현을 통하여 시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 및 민족정기를 함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며 남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 하고 우리 민족의 자각과 세계속에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인식시킨 3·1 독립 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남양주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재현을 통하여 시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 및 민족정기를 함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며 남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 하고자 함.



3.1햇불 대행진에 참여한 국군장병들



3.1운동 햇불 대행진 재현행사

기미 독립 선언문(번역문)

우리 조선은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명동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작은 만대에 걸쳐,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만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바 꿔치며, 세계의 환경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말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찾아갈 권리의 정당한 열매이기며,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넓은 시대의 유희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깊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자 이제 천 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부끄럽지 않으며, 세계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것이 부끄럽지 않으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도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부끄럽지 않다.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버리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이 하려면, 세계의 양심과 나라의 체모가 도리어 깎아지른 채를 기우려면, 사람마다 새 인식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직각손손이 원대한 경사와 행복을 같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세계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강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곁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생명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서 자각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힘으로 뚫지 못하랴? 물러가서 입을 꾹함엔 무슨 뜻안을 뚫지 못하랴?

내지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강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보여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 이자는 강단에서 정의가는 실재에서, 우리 백

왕조 대대로 불려 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과 같 대우하여, 한갓 청부자의 계급을 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지혜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직유를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벌 적용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칼 입은 나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하여요, 결코 작은 원한과 한 때의 감정으로써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남은 사상과 남은 세력에 위배되어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품명죄에 희생된, 무척연스럽고 쓸쓸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흐름으로 돌아오게 하여로다.

당초에 민족의 요구로서 나온 것이 아닌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마침내 한때의 위압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것으로 꾸민 통제 순서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일한의 구멍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 뜻에 바탕 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 나가는 것이 피자리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열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글대인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일을 감수할 절제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만국이 함께 쓰러져 갈하는 비참한 운명을 물리칠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한 삶의 변명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측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변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오?

아이!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모도다. 저 날 온 세기에 걸고 남아 키우고 기쁜 인도의 정전이 마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첫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활력을 떨쳐 깨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불령을 받 우리는 아무 머뭇거리랴 할 것이며, 아무 가리킬 것 없도다. 우리의 분디부터 지니 온 자유권을 지켜 충실한 삶의 즐거움을 싣기 노랄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불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평화를 맺게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망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너노소 없이 응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살아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에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천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날 우리들의 이 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면명을 위한 거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한 것이요, 결코 배타의 진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자살 결심을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명쾌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김천주 이일주 백용성 김원규 김명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배 나용한 나인환 양진배 양한묵 유이대 이갑성 이병훈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홍석 신석구 오세철 오화영 황준수 최성모 최 언 원용운 홍명기 홍기조

□ 천마산 산신제

- 일 시: 매년 3월3일(음력) 12시
- 장 소: 천마산
- 주 최: 남양주문화원
- 주 관: 남양주문화원
- 후 원: 남양주시
- 목 적: 향토의 전통 민속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남양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민속 산신제를 거행하여 시민에 전통 민속 보존의 중요성을 고명하기 위한

▶산신제의 유래

산신제는 우리민족이 살아가는 자연의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산신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특별한 종교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을 천으로 섬긴다는 뜻이다. 우리선조들이 산을 섬기는 풍속은 일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신에 대한 설화도 상당히 많다. 또 부모가 죽어서 보지 못할 때도 향부로 하지 않고 꼭 산신제를 올린 후에 했으며 지금도 산림작업을 하는 영단단이나 산삼을 캐는 삼마니 그리고 각종 산림 토목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작업 시작 전에 산신제(고사)를 지낸 후 시작하고 있다.

▶산신에게 먼저 고하는 '고수례'

참심식간 밥을 먹기 전에 밥알을 씻기마므로 몇 알 퍼서 산에 뿌리며 고수례 하고 큰소리 낸 후 밥을 먹는다. 이것 역시 산신이나 산에 있는 원귀들에게 먼저 주고 먹는다는 뜻이다.

이런 행동들은 산에 와서 좋은 길이는 다쁜 길이는 밟지 마시 산신에게 고한 다음에 해야 뒤떨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족건강과 가정의 무사함을 기원하고 자신의 가정에 1년 부사함의 실행을 바라며 실천한다.

이러한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그 산악이 자연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화도의 아니산이다 470m 높이의 정상에 우리나라 비를 새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진 창녕단이 있다. 다듬은 돌로 허물을 들굴고 그 위는 네모난 단을 쌓아 제단은 둥근단의 지름이 8.7m 네모난 단은 6.6m 의 정방형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개천절 단군에게 제사를 올리고 권국제육대의 때마다 침천녀에 의해 제와된 성화는 대외상으로 봉송되어 타고선다.

태백산 정상에는 태고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다 천제단은 둘레 37m 폭8m 높이 3m의 사면석으로 쌓은 20명 가량의 원형 돌 제단이다

삼국사기에 양이 천리 천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 새롬일록지리지에는 신라에서 오야 가운데 태백산을 북악으로 불, 가을에 제사를 지냈 다고 한다. 1091년에 국가 중요 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된 이 천제단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방백수령과 백성들이 천제를 지냈고 구한말에는 쓰러져가는 후국지사들이 일제때는 독립군들이 천제를 올렸던 삼스런 제단이다.

태백산에서는 매년 10월3일 개천절에 태백제를 개최하며 천제를 올린다. 나라에서 주관한 사위신과 산천신 제사산신제의 절차를 알아본다.

제일먼저 산신제단을 깨끗히 청소한 다음 참가자는 제사리에 선 후 제수를 권침한다. 산신은 당연히 지하에 계시므로 분향은 하지 않고 술을 빙마대에 부어 산신에게 신고 후 제배한다.

그다음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올리고 갖기막을 서첩에 가지런히 반달을 술관이 해리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죽을 읽는다. 죽문을 읽고 나서 술관말 제배하고 갖기막을 내린 다음 일동이 제배하면서 소원을 빌며 돈을 채지비리나 떡 사이에 끼운 다음 제수인 올린 후 음복(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는 일)한다.

산신제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마곡산 백악,송악,몽양산의 산신에게 매년 봄,가을에 내시 및 부당과여의 으르 제사하게 하였는데 이를 기은 이하 하였다고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산신제의 풍속은 계속 되었는데 사악신 으로 남은 지리산 중
은 삼각산 서는 송악산 북은 비백산을 정하여 제사했다. 또 산천신 으로 남은 지리산
남은 계룡산, 죽령, 우봉산, 주흘산, 금성산, 한라산 중은 목벽산 북은 갑악산의 관령 백두
산에 제사했다.

사악신과 산천신 제사는 나라에서 관장 하였는데 대개 제단을 마련하거나 단이 없
으면 3칸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조현관(남양주시장)이 첫 번째 잔을 물리는 장면



산신제 상차림 모습



행사 후 소지를 물리는 시민들

□ 청소년 향토 순례

○일 시: 매년 7월 - 8월 (2박3일)

○장 소: 관내 문화유적지 등

○주 관: 남양주문화원

○후 원: 남양주시

○목 적: 우리고장의 청소년들에게 남양주의 다양한 문화재의 분
화·관광자원 및 지역 환경을 답사, 체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인내
력을 배양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 비슷한 또래끼리의 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의 기초를 몸소 체험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여
장차 건전한 청소년 및 공민적이고 모험적이며 지역사회는 물론, 국
가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
함.

○2011년 행사일정

(1일차) 남양주완강나루길 체험

09시 발대식 (삼패안강시안공원) - 어시박물관 (도보정군), 일당택, 다
산유적지, 실파박물관 (버스부여)

*야간 : 멤버십 트레이닝 레크레이션

(2일차) 관내 유적답사 (버스부여) - 문화관광해설사 버스 이동서 해설
서원시박물관, 광릉수목원 (손수관음불들이기체험), 홍광문화촌 (만죽에
술장원, 전통마상쇼)

*야간 : 레크레이션 (도전! 남양주 골든벨)

(3일차) 향토순례단을 마치며..

별일체험 - 우리고장남양주같이 - 기념문쓰기 - 폐막식

▶향토 순례단 초료 기행문

▶향토 순례단 참가학생 기행문

처음 하는 향토순례 12초 조교라는 역할을 맡아 부른 가슴을 안고 삼백서민공원에서 12초 아이들을 처음 만났다. 서로 어색했는지 친한 친구들 이랑만 얘기를 했다. 단애 터와 보자, 이릉교, 수협, 댐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름과 얼굴을 익히려 노력하였다. 어색한 상태에서 기수의 지휘아래 씩씩하게 발대식을 끝내고 바로 행군이 시작되었다. 12초에서 가장 끝에서 다른 선생님과 함께 행군을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 다른 선생님들과 장난을 치면서 열심히 걸었다. 도중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걷는데 아이들은 힘이 들었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 “어디까지 걸어요?” “언제 끝나고 비스로 언제가요?” “기면 안 돼요?” 나도 다리가 아픈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봐 셀러이 들었다. 해 줄 수 있는 말은 “조금만 더 걸으면 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날씨도 길도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이들은 땀을 하면서도 무사히 행군을 마쳤다. 그 후 시원한 역사박물관에 가서 새있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동하였다. 앞에서 뒤에서 비글면서, 다음 다산유적지에 가서 생가도 보고 묘도 봤는데 지친 상태라 아이들은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철학박물관에 가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설명도 듣고 열정도 보았다. 그 후 숙소인 군대로 향하는데 신기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을 들어가서 내부원에서 작기도 하고 같이 밥까지 먹는데 우와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다. 단체사진도 복욕당에서 찍고 나서 스스로 자리도 피고 자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아이들도 자지 않아서 “자라, 자라” 하면서 새웠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까지 챙겨주고 하니 벌써 힘이 들었다. 쓰레기를 치우는 데도 자기도 아니라 안 치우는 애들이 있어서 당황…….

앞에 나가 군인오빠 지휘아래 체조도 하고 운동장도 즐겼다. 아이들이 춤도 잘 알서고 말은 많아서 약간 지쳤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다. 다음 그린학습원에 가서 아이들과 단체 사진도 같이 찍고 체험도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했다. 그 다음 수목원에 갔는데 덥고 지친상태에서 지도를 하려니 애류, 수목원에서 조교들끼리 모여 있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눈치가 보였다. 그 후 몽골문화촌에 갔는데 아이들이 다 와 본적이 있더라며 예술공연, 마싱쇼도 재밌지 않다고 했다. 아이들이 많이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갔더라면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졌을 텐데란 아쉬움이 들었다. 우리 초 한 친구가 이어서 중간에 갔다. 가고 나서 잘 때, ‘아, 내가 더 신경써주고 챙겨줬더라면 좀 더

즐거움 추억을 가지고 갔었을 텐데' 런 생각이 들었지. 초 미이들에게 좀 더 신경 쓰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와 닿았다. 포교를 하면서 부족한데 잘 버려준 아이들한테 고맙고 좀 더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주지 못해 미안했다.

▶ 향토순례 후기

술라호 4년 박서은

오늘 향토순례단이라고 남양주에서 하는 순례단에 가는 날이다. 불태는 마음을 갖고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나 차를 타고 8시 30분쯤에 한강상백식민촌원으로 모이는 장소에 갔다.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 모두 이 향토순례단에 등록한 사람이기 보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꽤 많이 왔다. 나는 예쁜 최승임선생님께서 주신 티와 이름표 모자를 가지고 차에서 걸어입고 나왔다. 높은 분들이 우리에게 초인 등 램프를 해주시고 드디어 출발! 하. 운이 안 좋다. 아침 오늘 미가 오다니 나는 비웃음 받고 말았다. 걸어갈 길기보다. 비오는 날에 이렇게 비웃 입고 많이 걸어본건 처음이나, 2시간 동안이나 걸었다. 한 3kg은 빠진 것 같다. 근육으로~ 맛있는 전식식사기 끝나고 역사박물관에 갔다. 역사박물관은 정말 시설이 좋았고 깔끔하고 시원하고 무엇보다 역사에 대해 잘 설명이 있고 전시물도 신기한 것도 많았다. 남양주에도 이런 좋은 박물관이 있었다니 즐거운 역사박물관을 나와 한양대를 갔다. 근대 아깝게도 미가 많이 와서 공사 중이어서 다산유적지에 갔다. 정약용선생님의 생가! 거기도 엄청 넓고 더웠는데 정약용 선생님의 옥면신서 등 많은 것을 배웠다. 재밌는 영상도 보고 말이다. 역사를 싫어했는데 여겨 향토순례단에 참가해 좋은 박물관에도 가고 역사에 흥미로 생기기도 재미있었다. 저녁밥을 먹고 군대에 가서 새로운 잠자리로 끝나기로 갔다.

그리고 다음날 신기한 천동 마상쇼를 봤다. 거기서 나는 무대에 가서 케요코와 함께 율동? 음악 같은 것도 해서 맘도 시원하다. 그리고 민속예술공연도 보고 몽골 서양 춤도 봐서 신기했다. 군대에 가서 밥도 먹고 아차씨들이 잘생겨서 행복했다. 강원학술원에 가서 예쁜 꽃, 신기한 곤충도 봤다. 뽕나무복원에 가서 복경이도 만들었다. 밥이 되었다. 도둑 공은뿔이 시작됐다. 하지만 널 알아 되었다. 그래도 재밌었다. 그리고 마지막 향토순례단의 꿈나라로 갔다. 아침이 되었다. 근대 아차씨들과 함께 탕크도 타보았다. 정말 재밌고 신기했다. 마의 40억 짜리 탕크를~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쫘 아쉽다. 그래도 보람찬 2박3일을 보냈다. 예쁘신 조교 선생님들과 잘생긴 조교선생님들 군대 아저씨와 함께 하고 무엇보다 남양주에 있는 신기하고 재밌고 아주 좋은 역사박물관, 팔당댐, 다산유적지, 실학박물관, 그린하습원 그리고 광릉수목원, 몽골문화촌, 민속예술품연, 전통마상쇼 등 정말 좋은 남양주에 있는 서울보다 더 공기도 시설도 좋은 남양주에 대해 알고 체험해서 뿌듯한 2박3일이 되었다. 그리고 저희 조교 선생님 최승임선생님, 윤소연선생님 감사합니다. 남양주는 정말 좋은 곳 같다. 남양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서 좋은곳을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



출발하기전 다함께 파이팅!



역사박물관 앞에서 단체사진



광릉숲에서 해설듣는 아이들



협동심 단련 야간 레크레이션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하며 기행문쓰기

□ 남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 일 시: 년중 4월 ~ 10월 (약 10회)
- 장 소: 남양주 및 전국 문화유적지, 박물관 등 탐방
- 대 상: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 선 황: 남양주문화원 홈페이지에 행사 일정 게재
답사2주전 전화접수(참가비 없음)
- 주 관: 남양주문화원
- 주 원: 남양주시
- 목 적: 지역 문화의 장달과 주민의 역사, 문화향수 증진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 수준 향상으로 여가선용 및 문화적 욕구가 커지고 고시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유입되고 있어 이들에게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자긍심도 높여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민 및 청소년 들의 여가 선용기회를 문화적으로 접근 하도록 유도한다.



▶ 2010년 답사 일정표

○ 일정별 해리 공고 안 (날짜 / 문화재현장소, 지역/ 모집인원)

〈대외문화교류 답사〉		
4월 30일(토)	영월-단종문화재 참관, 청령포, 천동	80명
7월 30일~31일	강선-창자문화재 참관(1박 2일)	40명
〈늘토 문화유적 답사〉		
5월 14일(토)	문화체험(수원시:용건릉, 읍주사, 수원성성곽)	80명
5월 28일(토)	역사체험(강화도:고려궁지, 연무당옛터, 고인돌, 광성포 초지굴)	80명
6월 11일(토)	우주체험(송암천분대:에어로켓발사체험, 관측, 입체영상 관람 등)	80명
6월 25일(토)	안보체험(철원:제3땅굴, 철원영화전방대, 철원두부미관, 노동당사, 고석정)	80명
7월 9일(토)	선사체험(연원군:진북리선사유적지, 송의전, 신라김춘왕릉)	80명
5월~11월중 추후공지	백제체험(부여군:부소산성, 고분사, 정림사지오층석탑, 정림사지박물관)	80명
〈하계방학 중 문화유적 답사〉		
8월 13일(토)	생태체험(서라포갈대습지공원, 안산민속어촌박물관, 누에섬, 공룡알화석지)	80명
8월 27일(토)	과학탐험(부천시:도보파크, 자연생태박물관)	80명
〈국군장병 문화유적 답사〉		
추후 협의	남양주시(다산유적지, 실학박물관, 풍암문화촌)	80명

※ 현지 사정에 따라 장소 및 날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유적답사 후기

김 명 수

오부선 전말대에서 통일을 기원하다.

2000년 5월 8일, 임진각을 열고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남북 4km를 자전거로 달린 경기도와 북방부의 결집에 박수를 보낸다. 오는 9월 1일부터 둘째·셋째 일요일 오전 3시간만, 인원은 300명 이내로 민간인에게 개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떠났다. 북쪽으로 향하는 자유로는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한다.

DMZ, 비무장지대! 유엔군·공산측(북한군, 중국군)이 0.25전쟁이 휴전에 따라 합의하면서 남북한 간의 적대적 행위로 인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한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만들어 놓은 비무장·비전투지역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전문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고 남북한세력은 관찰권이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북방한세력은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주어졌다. 비무장지대는 휴전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배치를 중심으로 한 휴전의 군사분계선(IM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각각 약 2km 후퇴하여 형성되었다.

결코로, 경기도 지역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은 파주시 장단면 철동리에서부터 개성 남방의 관문점을 지나 연천군 신계면 도벌리까지 약 80km이다. 강원도 철원, 김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군의 병호리까지 이르는 총 249.4km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총면적은 907.3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43%에 해당되며 여의도 면적의 110여 배에 이른다.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남쪽에는 대성동 사유의 마을, 북쪽에는 평화촌이 있다.

차음 도착한 곳은 임진각 평화랜드다. 이곳은 임진각과 북한 기념관, 각종 기념비 및 통일 공원 등으로 이루어진 통일 만보관광지다. 지난 12월 81일날 김문수 도지사가 평화의 춤을 두드렸던 곳이기도하다. 1972년 임진각이 세워진 후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있다. 임진각 본관 건너편에는 1986년에 조성된 망배단이 있다. 매년 명절 때 일행만들어 고향을 향해 철을 하는 곳으로 향로와 망배단이 있다. 탑정 저편에는 1968년에 건설된 사유의 다리가 놓여있다. 1963년 한국원정 휴전과 함께 남북부트교관이 허위된 곳이다.

또한, 문화원의 노고로 우리는 미리 석학을 얻어 도라산 제3땅굴도 전일을 하게 되었다. 귀순한 김부성씨의 땅굴 공사 정보제보를 근거로 1975년부터 문산 지역에 대한 지주작업을 하였으나 땅굴 당후를 포착하지 못하다가 1978년 6월 10일 시추공 1개 기 폭발함으로써 약경도 굴착 공사를 실시, 1978년 10월 17일 석 경도에 관통하여 관문길 남방 14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제3땅굴에서 서물까지의 약 53km, 폭2m, 높이 2m에 총길이는 1635m 임구에 틀어서면 시원한 냉기가 들끓을 오싹하게 하고 머리위로 지하수가 떨어지며 북한은 제3땅굴이 발견될 당시 남측이 북침용으로 들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땅굴 내부를 살펴보면 굴을 뚫을 때 폭파흔적(장전공)이 남쪽을 향해 있고, 갱도로 위장하기 위해 석탄가루를 묻히는 등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예스엔케이터치업 운행되는 승강기로 오르내리며 비무장지대까지 들린 땅굴내부를 풀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땅굴은 모두 4개며 발견된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다. 땅굴작전은 1971년 “남조선을 해장하기 위한 속전속결법을 도입하여 거습전을 감행할 수 있게 하라”는 김일성의 9.25 교시로 시작되었다. 제1땅굴은 윤반치당을 이용하여 수면로, 배수로, 전기시설 1개 연대 병력 침투 가능한 땅굴이다. 제2·3·4땅굴은 출구를 여러개 만들어 유사시 병력을 여러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1시간내 대규모 병력과 야포등 중화기가 통과할 수 있는 땅굴이라고 시청각실의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인근에 위치한 도라산방대관 응달다. 자한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로서 개성의 총약상, 김일성동산, 기정동, 개성시 민두리, 기차화통(창단역), 금강굴(월동농장)등을 망원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연건평243평으로 관람석이 500석이나 된다. 1987년 1월부터 공개된 전망대다. 철도 있는 군인의 설법을 곁들인 후 우편화치업 빨강개 천한 망원경에 800원을 투입하고 처번 인공기가 보이는 곳을 열심히 보았다. 유일날 여러 학교에서 스카웃 복장을 하고 온 초등학생들의 궁금증을 헤아려주는 했음까? 망원창의 갯수를 늘리고 허왕 부로로 보여주게 되면 더욱 좋았겠다.

남북출입국사무소를 지나니 감회가 새롭다. 그 안마당을 도라산 석과 같이 사용하

고 있다. 지난해 개성으로 들어갈 때 미스가 우리를 데웠던 그 자리인데 월척으로 단련이 되었다.

도리산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인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700여미터 떨어진 남쪽 최북단역이다. 2002년 2월 20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그리고 남북화해의 미완성 역이기도 한 도리산역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또한 남북 교류의 관문이라는 이중의 역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남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공동경비구역(JSA)내에 있는 파수관 마을 대상등을 가보고 싶었다. 허준산장의 보가 있다는 어청교를 보면서 다음에는 코스에 들어가보는 분회원 사무국장님의 호절한 설명을 들으며 10여분을 달려 통일촌에 다다랐다. 1970년대 초 황무지로 명치된 채 놓고 있었던 땅을 개간하여 직장을 생산하고, 입주민들은 17세이상 60세이하의 남자들이로 향토예비군을 편성하여 국방의 일면을 담당하게 하는 등 이스라엘의 선라촌인 '키부츠'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평화마을이다. 현재는 150세대, 465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실은 갖단콩이 유명하다는 이곳 저곳의 간판이 보이는 허황한 마을 유계소 2층에서 배결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북한영의 실영 및 문헌자료를 열람 할 수 있는 곳은 모두선 통일전방대와 서울·인천·청주·부산·경남·경주·제주 통일관 등 8곳이다. 또한 북한 귀경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은 모두산·고성 통일전방대, 창원·양구 통일관 등 4곳이다.

그중에 "모두선 통일전방대"에서 잠시 북한에 대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2월 16일에는 북한 김경일 위원장 생일을 맞이해 련한 초하교 앞에 무인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서울의 한강과 북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임천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해발 118m의 고지다. 옛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나오는 모두산 성터가 남아 있는 곳으로 사적 351호로 지정된 고대로부터의 군사적 요충지다. 지금은 서부전선의 최북단으로 남과 북이 일전감을 사이에 두고 길 20km의 짧은 거리를 새물만이 넘나들뿐 밤새기동한 일대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분단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6.25전쟁이라는 동족살전의 비극을 재현하지 못한 채 내에게는 이곳에 전시된 풍부한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통일의 절실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북한을 마르게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는 북한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모형이기는 하지만 초학교 교실을 통해 진행된 북한 교과서와 교과내용, 필기교 교육제도를 알 수 있고 주민의 안면을 통해 기계도구와 김일성·김정일의 부자우상화 내용을 알 수 있다. 북한중산층이 사용하는 안방내부를 재현하여 옷장, 탁자, 옷걸이, TV, 시계 등의 생활용품 전열과 김일성 부자 초상화부착, 그리고 북한의 주택현황(아파트, 벽돌집, 집단공영주택, 농촌 문화주택, 농촌가옥)과 계층별 주택구조 등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재질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통일전시실에서는 백화통일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영상실에서는 북한 공훈대훈 공연영상 촬영이 가능했다. 사회사의 관드러지는 목소리에 이질감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다급함을 느끼게 한다. 옥외망원경을 통해서 다시한번 분단의 현장에서 북한의 산야를 바라볼 수 있다. 마당 오른쪽으로는 독립분동가이치 일제 강점기의 교육자 고당 초안식 선생상이 있다. 아리도 한민족이 평화통일을 기다린 듯 두루마기의 모습이 애절하기만 하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운영제개를 놓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개성공단홍보관"은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성을 살펴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중국에서 수하여행을 온 듯한 값싼 주황색 수련복의 소림사 학생들이 어찌하여 이곳까지 들리게 되었을까?

통일은 바람타고 실려오는 5월의 아가시항처럼 자연스럽고 부담없는 일이어야 한다. 인간의 관능처럼 해결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다양한 답사기회를 주신 남양주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유적답사 후기

남양주 문화 유적 답사를 마치고

박종

아침 일찍 기대감을 부른 마음으로 일어났다.

‘문화유적답사’라는 말에 잔뜩 기대를 부풀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남양주에서 지금까지 16년이라고도 6개월 즉 태어나서 부터 즉 산았기에 남양주시유적 관광지 등등 한 가문 곳본 거의 없다. 그러나 이번 ‘문화유적답사’처럼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가족이라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문화유적지를 공부하러 가는 것은 처음이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인 것 같아 기대감을 더더욱 부풀었다. 코에서 콧노래가 입에선 뱉로다가 흘러 나왔다.

맨 처음으로 ‘현충탑’에 갔다. ‘현충탑’에서 모두들 복념을 하는데 문득 그 짧은 순간에 초등학교 때와 일이 생각났다. ‘현충탑’을 맞이하여 글짓기 대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아무생각 없이 글짓기를 하면서 즐기고 있는 한끼니들을 보면서 왜 흥까? 그날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도 흥없어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예전처럼 이 ‘현충탑’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우리민족의 가슴 아픈 관행이었던 6.25라는 실지는 없어야 우리민족의 가슴을 후벼 파야 자유될지 얼마나 더 아파야 되는지……. 또 이 의문이 풀리기 위해서는 영가의 시신이 곱힐지…….

그 다음은 바로 ‘홍·유릉’으로 갔다. 그 곳에선 이미 가이드 선생님께서 기다라고 계셨다. 매일 지겹도록 읽던 ‘홍·유릉’이 허나하니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세히 오니까 또 백달라 보였다. ‘홍릉’은 간단히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능이다. 명성황후의 무덤은 처음에 청양리에 있었으나 풍수지리상 불길하다 하여 고종의 무덤에 합장하였다고 한다. 또, 홍릉은 지금까지의 무덤 제도와 다르게 광무 원년에 대한제국으로 선포된에 명나라 태조 효종의 무덤 제도를

분뜨게 되었고, 12면의 병풍석을 세우고, 면석에 꽃부늬를 새겼으며, 난간 밖으로 들레들과 양석을 세우지 않았다. 무덤 아래에는 정자각 대신에 앞면 5칸·옆면 4칸의 침당이 있는 집. 침전을 새웠으며 분·부인석과 기린·코끼리·사자·낙타 등의 수석을 놓았다. 분·부인석은 크고 전통적인 기법으로 조각되었다. 그리고 유릉은 순종과 동비 순경효왕후, 동계비 순경효황후의 무덤이다. 조선왕조 무덤 중 한 봉우리에 3개의 방을 만든 동봉삼실상은 유릉 분라고 한다. 또한, 12면의 면석에 꽃부늬를 새긴 병풍석과 12칸의 난간석을 새웠고, 무덤 아래에는 침전이 정자각을 대신하였고, 그 아래 분·부인석, 기린, 코끼리, 사자상 등을 배치하였다.

홍릉과 유릉은 철종 이전의 무덤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고종을 황제로 칭하게 됨으로 새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석물의 규모나 종류가 달라졌으며, 임금의 침실, 세사사내는 방의 위치가 달라졌다. 2개의 무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외곽으로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양릉 중간에 돌로 만든 연못을 두었다. 그리고 가이드 천생님의 말씀이 커지고 있는 나무 종류중에 '독일 가분비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나무는 추운 지방에 눈이 쌓이는 것을 대비해 잎이 지지게 생겼다. 근래 원래 묘에는 '소나무'나 '진나무'를 심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고 그랬으니까 별에 별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왜 굳이일이 적지는 '독일 가분비나무'를 심었을까 생각해볼라 하였다. 솔직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 사람이면 바로 예상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음 속에서 무덤 지러는 부언가를 느꼈다.

옛날에는 아무 생각없이 추위 위와 나무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고 아무래나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웬지 가이드 천생님의 설명을 듣다보니 나 자신이 점점 창피해 졌다.

다음 유적지는 '사릉' 이었다. 사릉은 조선왕조 제6대 단종의 비 정순왕후송씨를 모신 봉이다. 무덤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하지 않았고, 무덤 앞에 상석과 양석, 들레들이 있으며 그 밖으로 3면을 낮은 담으로 쌓았다. 단종의 무덤이 강릉으로 봉해졌을 때에도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고, 돌불모양의 돌만 세웠다 한다. 이는 왕릉으로 봉해진 것에 대한 예에 따른 것이라 한다. 사각지붕 모양의 명동석은 상릉과 같은 것으로 숙종대의 양식이 잘 나타나 있다. 정순왕후하면 조선왕조

500년의 수많은 일후와 후궁들 중에서 가장 한많은 이인이라 떠오른다. 단종의 비인 정순황후는 여산 송씨 '현수'의 딸이었다. 1453년에 간택되어 이듬해인 1454년 단종의 비로 책봉 된다. 그러나 남편인 단종이 불과 재위4년 만인 1455년 즉위인 수양대군에게 양위하게 되자 '의어할대비'에 봉해진다. 그러나 2년 후인 1457년 이근바 사육신의 단종 복위 사건이 발발하자 단종은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고 정순황후도 부인으로 강등 된다. 이후 이들 부부는 다시는 못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 해에 단종이 교살되었기 때문이다. 궁궐에서 쫓겨난 정순황후는 동대문 밖 송인촌, 동방불 지식에 초파를 짓고 살았다고 한다. 또, 평생 흰옷만 입으며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불쌍히 여긴 채조가 일민전 이라는 전각을 짓게 해서 정순황후를 보살피려 했지만 정순황후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정순황후, 평생 동안 한 남자를 그리며 살아갔던 그녀에게 여자로서 박수를 해주고 싶다. 사랑에서 그인하습원으로 이동하면서 정순황후가 사셨던 집이 보였다. 저 곳에서 정순황후는 그 전세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그린하습원에서는 농업테마관(농업테마전시실, 농업체험교실(기획전시), 농기계청비실) 곤충생태관(살아있는 곤충생태체험 조형, 표본 및 모형전시), 절충생활문화체험장(장 담그기, 김치담그기, 두부만들기 등의 체험), 고재식물원(교과서에 나오는 전통작물 등 교육용 식물 재배), 과수품종식물원(중북부지방의 과수를 중심으로 재배), 한방식물원(약

용, 특용작물 등 한약재료로 쓰이는 작물 식재), 생태언플(수생식물을 활용한 자연철과 시스템 전시), 계절별초화류위(봄거리를 위한 원예종, 자생종 초화류 식재) 등으로 꾸며져 연중 운영된다고 한다. 우리는 '농업테마관' 과 '곤충 체험관' 정도 밖에 구경 못 했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아주 잘 해 놓은 것 같다. 가족끼리 주말 애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든다.

봉천사는 찾게서 가는 길 부터가 너무 아름다웠다. 잘 차체가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까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려 길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봉천사는 969년(성종 9) 법안국사 법문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창건 당시의 이름은 윤약사라 하였다 전해진다고 한다. 1408년(세종 1)에 세종이 이 길 이름을 봉천사로 하여 사액하였는데

이것은 천황의 능진을 수호하는 원할이라는 의미라 한다. 봉천사에 보통 제397호로 등록되어 있는 봉천사 대종어 있는데 아주 문이 좋게도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종소리가 보통인 만큼 아름답고 맑은 종은 울림이 퍼졌다. 이번 '문화유적탐사'에서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 이었던 것 같다. 참면서 이렇게 맑은 종소리를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을 듯하다. 아직도 그 맑은 종소리가 강가에서 울리는 듯하다.

광릉은 왕의 유언에 따라서 부둣방은 돌방을 만드는 대신 석회터짐으로 막았고, 무덤 둘레에 병풍석을 세우지 못하게 하였으며, 돌방과 병석을 없애므로 해서 백성의 고통과 국가에서 쓰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부둣주위에는 난간석을 세우고 그 밖으로 문인석·무인석·상석·발주석·호석·양석을 세웠고, 난간석의 기둥에는 십이지신상을 새겼는데 이는 병풍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또, 이러한 예는 광릉 밖에 없다고 한다. 무덤배치에 있어서도 최초의 동원이강의 형식이라 한다. 지금까지는 앞과 양계의 무덤을 나란히 두고자 할 때는 고려 현종·철종 석의 쌍릉이나 세종과 소헌 양후 삼씨의 무덤인 영릉의 형식으로 앞과 양미를 함께 묻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광릉은 두 언덕을 한 절자적으로 묶는 새로운 배치로 후세의 무덤제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광릉에서 가이드 선생님께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 본 것은 처음 이었다. 솔직히 조금 졸리긴 했지만 꼭 참고 들으니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으며, 알던 사실도 복잡하게 되어 참 좋았다. 광릉은 원래 못 볼라기게 되었더니 개발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한다. 솔직히 딱 보기에는 볼 것이 별로 없어 보였지만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듣다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찾는 것과 같은 것 같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호국부공수훈자공적비'로 향하였다. 생간서는 일로 안 되었다고 한다. 그 곳에서는 6.25 참전용사아셨던 할아버지님들께서 계셨다. 그리고 갑자기 마을이 평해지면서 6. 25 참전용사 아셨던 지금은 안 계실 우리 할아버지의 땀이 났다.

이렇게 해서 하루 동인의 여행은 막을 내렸다. 아직도 머리 속에서 하루 동안 다녔던 유적석의 모습이 떠올라 다닌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 참대 일

지 않을 것 같다. 오늘의 여행은 참 의미있고 무언가 일한 느낌의 여행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많은 교통과 직책을 잃는 이런 여행을 또 기회가 될 것다면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



▶유적답사 후기

강진 청자문화제를 다녀와서...

윤석분

푸르름이 짙어지고 숲사이를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있는 쇠꼬리 소리는 남양주시에 시가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오늘은 남양주시 문화원에서 강진과 완도를 걸쳐 보살도를 답사 가는 날이다. 주라 집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와 새들에게 “잘 다녀올게 우리 집을 잘 지켜주렴” 하며 이정시에 갔다. 문화원 학구들과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로써 차에 몸을 싣고 강진 다산결약촌 선생님 유배지를 들렀다. 찍는 듯한 부이위 옆저만 조선조 후기 철학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글과 모습으로 남기주신 문이다. 생각하니 더위도 사라졌다. 30도에서 옛날 법도와 재치 있는 생활화를 써내려 가면서 아버지께서 옛말을 벗 삼아 생활하면은 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겠다. 이구애 와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해선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남양주시 역시 인물이신 결약촌 선생님의 훌륭한 모습에 아껴가 오쪽했다. 초랑 옆 바위에 흐트러짐이 없어 깨끗하게 새겨진 권귀(정석)는 물론 세월이 흘렀어도 금발 촌담 귀 같았다.

또한 불교와 천주교를 잘 교화 하신분이란 것도 다산 유물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알게 되었다. 험한 역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노력했던 철학 통선생님의 숭고한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보잘 것 없는 주오에 만도 참 들었다가 벗

살아 살아가졌기에 오늘이 역시 인물로 남은 것 같았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발자취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가주고 강진 정자문화 축제에 갔다.

그 옛날 선조께서 쓰시던 벼루, 그릇, 호룡별 옛 모습들이 구질 오신 모든 분들에게 환한 모습으로 반기었다. 저 술병은 내게 만든 일새과주를 담아서 귀한 손님께 대접하면 좋겠다 생각 했지만 가격이 고기여서 못사고 나비가 사뿐히 앉아 있는 정자 띠 그릇을 한점 구입했다. 살진의 이모처럼 남양주시와 다른 모습도 접할 수 있다는게 가슴이 뿌듯했다. 해는 서산바위에 걸려있고 노을빛은 내 마음을 더욱더 붉게 했다. 내일은 고산 용전도 읍지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선조들의 무궁무진 했던 옛것을 찾아와야지 생각하며 두륜산 산자락에서 하루에 여정을 풀었다. 잠자리에 누워있으니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자잘키 살아 꿈속으로 밀려갔다.

미침에 거상을 때보니 깜깜할 때 숙소에 와서 아무것도 안보이고 불빛만 보였는데 알아 비 보이고 사냇물은 하루를 시작하는 노랫소리같이 힘차게 흐르고, 앞산에 푸른 나무들은 우리를 환영해주듯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대풍사에 들었다. 옛날 유물들도 많았고 조선조 호국물류 정신이 숨쉬고 있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평온한 세상살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자와 가난 그것보다도 진정하게 서로 믿으며 보살핌이 있는 마음을 넓게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살이 바랍니다.” 하여 보길도로 향했다.

완도로 향하는 길목에는 백일홍이 짙게 피어있었다. 이곳은 가로수에 백일홍 꽃 나무가 심어져 있어 길목이 다르게 보였다. 완도 항에 도착해서 큰 배를 봤다. 보길도를 향하는 파도소리는 어머니의 사랑가 소리로 들리고, 갈매기 매들은 보길도 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다. 바다위에는 이곳저곳 섬들이 많이 있었다. 아름다운 곳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섬이 많이 있는 줄 몰랐다. 티위에 축적되었던 내 풍이 가벼워지며 어디론가 나라갈 것만 같았다. 생각하니 곧 보길도에 도착했다. 비스에 몸을 싣고 동촌석실을 향했다. 산머리에 누각이 지어져 있었다. 누각까지 올라갔을 때 험준했지만 누각에 앉아 있으니 이마에 땀방울도 담당했던 마음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길도를 품안에 다 안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보길도 지형은 언덕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풍수지리 보는 평민에서 말씀

하었다고 한다. 보길도에는 처음 보는 황칠나무가 있었다. 황칠나무에서 나는 황금색 짙은 일곱넝 용상에 칠하는 나무였다. 또 보길도 주변이 1년에 소나무 칠억오천만원이라고 했다. 도시보다는 많은 소등인 것 같았다.

다음으로는 세인정에 갔다. 세인정이란 주변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하여 기분이 상쾌해 지는 곳이란 뜻으로 보인다. 정자의 준입에 아름답다 소나무가 그 옛날에 위험함을 알개라고 소나무를 헤워내고 있는 바위에 그사이에 흐르고 있는 물이며 꽃이 아름다웠다. 어리연꽃과 흰색 연꽃이 수줍어서 고개를 못들고 있는 새새서 같았다. 연못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바위는 그 옛날 양반들이 풍악을 돌리며 즐거움을 더했다는게 세인정에 모습이고 또한 이곳에서 나라에 큰 저식과 덕을 쌓았던 곳도 세인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 600년 역사가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외국인들은 이곳을 관광하고 대평양하고도 미룰 수 없는 귀한 곳이기도 하다고 칭찬했다한다.

나는 보길도의 아름다운 풍경, 바다의 모습, 물 한포기 모음이 안 된 그곳을 마음 속 깊이 받아지고 윤선도 생가를 향해 배에 몸을 실었다. 명 쉼 마을 배낭에 도착했다. 배가 제법 쏟아졌다. 윤선도 고택에 도착하여 윤선도에 일대기를 해설사 선생님께 들었다. 갑부 부인을 얻어 생활에 어려운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 재금을 못내 언급되어있는 백성에게 재금을 내주고 굶주 못하는 사람, 암시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모두를 구해 해 주었다고 해설사가 말할 때 남양주시 사람이 생각났다. 희망을 어를 만들어 나누어 주는 서광님! 있는자는 조금 아껴쓰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서로 돕고 사는 남양주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께 잠시 감사했다. 남양주시가 돕는 사회를 하고 있고, 할없는 사람들에게 동행이 되어서 밝은 사회로 전환 될 것 이라 생각했다. 잠시 남양주시도 돌아보며 윤선도 옛날 생활화에 꼭 빠지게 되었다. 다양하게 훌륭하신 분이였다. 문학 철학 예술 학문 모든 게 조예가 깊고 천문 지리 특히 의학 등 다방면에 통달하신 분이였다. 그 결과 수십 년을 유배생활을 하셨지만 그분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를 참 형상화 하여 국문학의 비조로서 우리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신 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고산 선생은 차기를 포함한 주변에서부터 국가사회에 이르기까지 강한 철학력을 지니었는데 특히 노비, 어민, 농민, 민자 등 여러 범위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벼슬에 두지 않고 추선과 근행 및 직선에 두고 있고 안간 행실과 절조필야를 제1호의 덕으로써 삼으셨다고 적혀있었다.

많은 것을 잃는 자에게 배풀었기에 500년 역사에 인물로 남게 되고 생가가 잘 보
 킨 것 같았다. 놀란 것은 현재에도 윤전도 자손들이 그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더욱 놀라웠다. 남양주시에도 많은 유산이 숨쉬고 있다. 강진과 해남, 보길도
 는 남양주 문화유산이랑 잘 조화가 되어있는 것 같다. 남양주시도 물 맑고 산수가 수
 렷하고 덕담과 예의의 고장이기 때문에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리양과
 지혜와 배움을 공부하게 해주신 문화원 식구들과 문화관광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 백

부록 I

1. 지방문화원진흥법
2. 남양주문화원정관
3.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육성지원조례



여 백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02-3704-9431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지방분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므로써 지역문화에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원)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거나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 (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이사)와 2명의 감사(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개발), 보급, 보존, 전승(전승) 및 전양(전양)
2. 향토사(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향달(향답)을 위한 서원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헌법개정 2007.12.21]

제9조 삭제 (290), 1, 21)

제10조 삭제 (300), 1, 21)

제11조 (정치관계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일 겸(겸)할 수 없다.
 [헌법개정 2007.12.21]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의 99명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청탁권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보조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 (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처제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징역에 해당하든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정부조직법) (제886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 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09) 까지 생략

②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②71) 부터 ②8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076호, 2008.2.29,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02-3704-0421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3.3, 2008.8.12, 2007.2.28)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이견서 1부
4. 실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신통보 및 재산출연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실 전부) 및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9.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등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시서의(생략;시서)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첨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8.12)

③차제 (1999.3.3)

제3조 삭제(1999.3.3)

제4조 (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중명령이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부실을 포함한 그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일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건물)
4. 전차실
5. 도서실

제5조 (시설의 이용제공) ①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삭제(1999.3.3)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8.12)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순차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순차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분화위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8.3.12>

제8조 삭제(1997.12.31)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개정 2003.3.12, 2007.2.28>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종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전문개정 1999.3.3]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분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분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분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칭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화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28]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㉞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㉞ 부터 ㉟ 까지 생략

남양주문화원 정관

2008.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문화원의 명칭은 남양주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남양주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원은 지역사회의 개발 연구 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건양
- ②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 ③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④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⑤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⑥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 ⑦ 지역화장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유 위한 문화활동
- ⑧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 ⑨ 기타 지역문화향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임원에게 부당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성비를 수혜자에게 부당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구분 및 입회절차)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양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
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회의
통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
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자격 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 3. 경책 : 회원에게 경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정교: 회원에게 정교장을 발송한다.

5. 주의: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 ④ 현상의 정체를 위해서는 이사회외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계 대상위원에게 소정의 가회할 줄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분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
- ③ 이사 (X)인 (회장, 부회장 포함)
- ④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총회에 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원의 참여임기는 보장된다.
- ③ 임원이 임기 중 권위된 때에는 권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 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의 선임할 수 있다.

- ② 현상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분원의 설립 취지에 합부 참동하고 영리하는 자로 구칭한다.

- 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6 조 (정치관여의 금지) 분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회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해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 제 17 조 (임원 사퇴)** ① 임원은 원정에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직에서 사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임원이 장간 제6조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년도 말일 날 자진 사퇴한 것으로 한다.

- 제 18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권위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도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정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사실을 요구하고 서·도정서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9 조 (운영위원)**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화석과 직함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0 조 (구성) ① 총회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의 결의력 대의원을 둘 수 있으며, 대의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내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인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이내로 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며 총회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은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21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8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권장이 회리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과반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 총회의 사안이 명백하고 결미하여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며,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⑥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 방법은 위위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소집특례) ①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

- ②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총회원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원 1/3 이상의 회의목적용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 ③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제4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불수인 경우에는 불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거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23조에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 선임에 있어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2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② 본원의 예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증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 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당과 관련된 상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6 조 (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 조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분사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 조 (소집특례) ① 위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부족을 명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와 친밀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9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조합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달에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안이 결비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 30 조 (이사회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법재판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㉔ 예인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㉕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㉖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㉗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㉙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 ㉚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㉛ 기타 중요사항

제 31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선에 관한 사항
2. 권원 및 채하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원과 이해가 상충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재산과 회계)

제 32 조 (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청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헌1의 그 목적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4 조 (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관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 35 조 (회계년도) 본원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36 조 (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명칭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청한다.

제 37 조 (차입금) 본원이 목적차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결산) 본원은 매 회계 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원회 또는 상 구 시업추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 40 조 (회계감사) 본원은 회계감사를 내외의 감사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탁회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41 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직급하지 마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무에 따라 인당 등 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 본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임원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42 조 (설치) 원장의 지휘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43 조 (구성 등)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4 조 (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직 회원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청의 재산은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

제 45 조 (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직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6 조 (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 ②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예산서
- ③ 당해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 ④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 47 조 (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1994. 7. 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 위 내용은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이전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해당함.

부 칙 (1999. 3. 22)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증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시·도지사로부터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원에 해당함.

부 칙 (1994. 7. 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㉔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임장의 중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권선임되어 보권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㉕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1. 이 정관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임장 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3. 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임장의 중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권선임되어 보권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육성지원조례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6.11. 조례 제08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양주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문화원"이라 함은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음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 3 조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 지역문화발전권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 4 조 (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 및 시설을 부담으로 대어할 수 있다.

제 5 조 (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종에게 제출하여 지원신청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를 면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6 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조금조례」를 준용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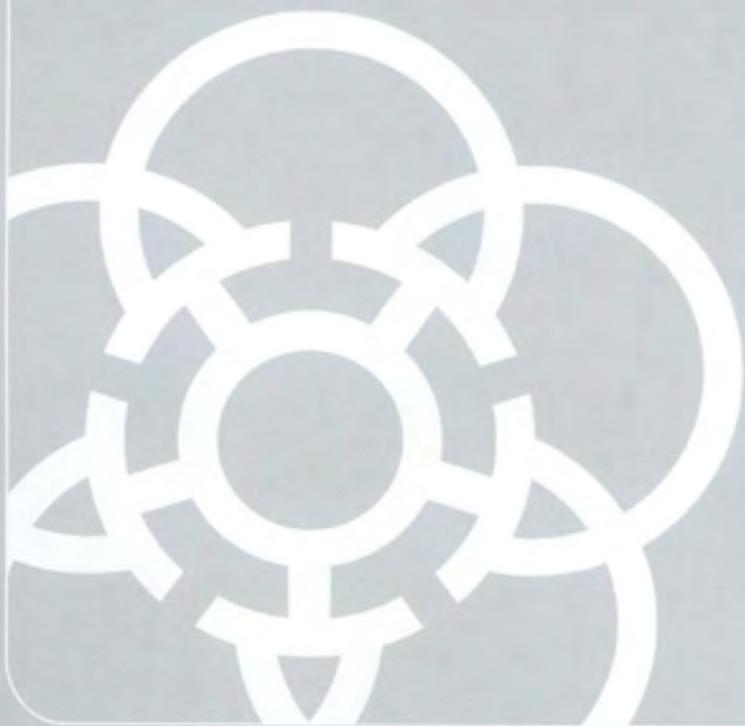
부록 II

언론에 비친 남양주문화원
정기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여 백

언론에 비친 남양주문화원



중앙신문 1992

다산목민문화대상 제정

문화정신 계몽 계몽, 풍조, 생활, 향토 문화의
남양주문화원에서 올해 처음 제정

교육부장 '홍기영' 수상자

남양주문화원장 장모 씨

중앙신문 1995.2.13

남양주문화원 23만 시민의 문화원으로 거듭나야

건국이사와 개화, 서민한 학부대생 출신임 재명처리
필수읽어는 자진서적

중앙신문 1995.7.24

남양주 문화원 "이대로는 안된다" 한목소리

경춘일보 1996.6.20

시민의 문화원이 될것인가?

지역의 문화정신을 계몽하는 시민의 문화정신을 계몽하는 문화원

제일신문 1996.3.4

문화원 정상화 또다시 "진통"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문화원 시가 뒷안

중앙신문 1996.9.23

남양주시민의 축제 "다산문화제" 개최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다산묘역에서

<p>남양주시민들의 축제인 다산문화제가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다산묘역에서 개최된다. 이번 문화제는 다산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 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 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p>	<p>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 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 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 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p>	<p>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 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 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 다산의 생애를 다룬 다산문화제다.</p>
---	--	--

경춘신문 1996.10.11

제10회 다산문화제 성대히 열려

포용적인 향토 문화행사로 승화 발전의 계기 마련
다산유(세인상), 유민회(유기상), 흥남회(유민상) 다산 유민 문화 대항 수상



경춘신문 1996.10.11

제10회 다산문화제 성대히 열려

포용적인 향토 문화행사로 승화 발전의 계기 마련
다산유(세인상), 유민회(유기상), 흥남회(유민상) 다산 유민 문화 대항 수상

열린신문 1996.10.15

「제10회 다산문화제」성료

강연회를 비롯 각종 문화행사 개최
다산유민대항 예민상에 이월주씨



중앙신문 1996.10.17

다산문화제 전국규모 행사로 추진키로

제10회 다산문화제 다산묘역에서 개최



중앙신문 1996.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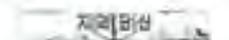
다산문화제 전국규모 행사로 추진키로

제10회 다산문화제 다산묘역에서 개최

경기일보 1996.6.9

문화발전 취입식

남양주시민회 문화발전 취입식
취입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발전 취입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민회 문화발전 취입식
취입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발전 취입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춘신문 1997.2.27

남양주문화원 '여름음악'을 찾아라

여름음악을 찾아라



남양주문화원 '여름음악'을 찾아라
여름음악을 찾아라

중앙신문 1997.3.4

「남양주문화원 제22차 정기총회」

대부분은 문화회 문화회 회장 겸 회



남양주문화원 제22차 정기총회
대부분은 문화회 문화회 회장 겸 회

경춘신문 1997.9.27

퇴계원 산대놀이 80년만에 재현

200여 명이 참여한 1947년형 10구단 모습 재현
출발식, 무신과 구상회 개최하던 후대의 모습 재현



수도권일보 1997.10.10

수도권일보 1997.10.10
1947년 10월 10일, 서울 근교에 위치한 퇴계원 산대놀이 80년만에 재현되었다. 200여 명이 참여한 10구단 모습 재현, 출발식, 무신과 구상회 개최하던 후대의 모습이 재현되었다.

1947년 10월 10일, 서울 근교에 위치한 퇴계원 산대놀이 80년만에 재현되었다. 200여 명이 참여한 10구단 모습 재현, 출발식, 무신과 구상회 개최하던 후대의 모습이 재현되었다.

다산의 숭고한 정신 기려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목민문화상 시상·전통놀이등 선보여

남양주시 다산문화제는 10월 10일(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다산문화회관에서 다산목민문화상 시상식과 전통놀이, 다산의 숭고한 정신 기려

남양주시 다산문화제는 10월 10일(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다산문화회관에서 다산목민문화상 시상식과 전통놀이, 다산의 숭고한 정신 기려

경도일보 1997.10.11

장악음선생 사상 계승발전위해 11회 다산문화제 3천여명 참석 다산의 숭고한 사상 기려

경도일보 1997.10.11
11회 다산문화제가 10월 10일(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다산문화회관에서 다산목민문화상 시상식과 전통놀이, 다산의 숭고한 사상 기려

구리신문 1997.10.20

남양주문화원 제11회 다산문화제 개최

목민문화대상(정민상(유숙희), 율기상(차진영), 풍광상(김태원))
정수년공예제, 책갈피, 시산·미술, 전통놀이 등 8개 프로그램

남양주문화원은 10월 20일(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다산문화회관에서 다산목민문화상 시상식과 전통놀이, 다산의 숭고한 사상 기려

남양주문화원은 10월 20일(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다산문화회관에서 다산목민문화상 시상식과 전통놀이, 다산의 숭고한 사상 기려

남양주문화원은 10월 20일(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다산문화회관에서 다산목민문화상 시상식과 전통놀이, 다산의 숭고한 사상 기려

중부일보 1997.10.11

07 다산목민문화대상 유숙희씨 등 3명 영예



남양주시 다산목민문화상 유숙희씨 등 3명 영예
유숙희씨는 1947년 10월 10일, 서울 근교에 위치한 퇴계원 산대놀이 80년만에 재현되었다. 200여 명이 참여한 10구단 모습 재현, 출발식, 무신과 구상회 개최하던 후대의 모습이 재현되었다.



경춘신문 2009.4.4

제12회 천마산산신제

남양주시 번영과 시민의 무사안녕기원



북양을 천마산 산신제가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남아있고, 봄이 되면서 산신제를 지내며 번영과 시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민중이 늘었다.

남양주시 번영과 시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12회 천마산산신제가 4월 4일 오전 10시 남양주시 천마산 산신제위원회 주관으로 남양주시 천마산 산신제위원회 주관으로 남양주시 천마산 산신제위원회 주관으로...

이제는 봄이 되면서 산신제를 지내며 번영과 시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민중이 늘었다. 천마산 산신제위원회 주관으로 남양주시 천마산 산신제위원회 주관으로...

전우신문 2009.10.30

3쪽

세조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이영우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본받아야 할 큰 법칙.

2009.10

가을마늘 광릉 조신왕조 큰 빛 행사

제541주기 세조대왕

광릉기신천향례



가을마늘 광릉 조신왕조 큰 빛 행사. 제541주기 세조대왕 광릉기신천향례. 가을마늘 광릉 조신왕조 큰 빛 행사.

가을마늘 광릉 조신왕조 큰 빛 행사. 제541주기 세조대왕 광릉기신천향례. 가을마늘 광릉 조신왕조 큰 빛 행사.

남양주역사를 바로 알자

남양주 향우회, 향토문화 남양주 역사 강의

2011년 11월 23일 (목) 14:00

남양주 3기당



9대 남양주문화원장에 이용복씨

추대영적으로 선출, 감사에는 소임한 문예부씨

2011년 11월 25일 (금) 14:00

남양주 3기당

남양주 문화원 제9대 원장에 이용복(李庸福)씨가 선출되었다. 남양주문화원은 24일 문화원1층 소회의실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0년 사업일 결산승인의 건, 1억9천3백만원 규모의 2011년 사업 승인의 건 제9대 임원선출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진 임원선출은 원장후보에 김영수 전 시의장과 이용복씨가 후보로 등록해 표대결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표대결로 인한 문화원 내부갈등과 평가라기가 보기 좋지 않다는 대다수 이사회원의 의견을 따라 김영수씨가 이용복씨에게 원장직을 양보하여 '추대'라는 형식의 원장 선출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영수씨는 남양주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원장은 "대과없이 원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 문화원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신임원장을 중심으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더 훌륭한 남양주 문화원의 비전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9대원장으로 단복출마하여 당선된 이용복당선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명인사를 총망라하여 문화원 발전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문화단체와 유대강화를 통해 문화원사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문화원장직을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중심문화원으로 거듭날 것

남양주문화원 8.9대 원장 이 위암식 기저

2011년 10월 17일 (목) 13:30:37

박연기 기자 yoonki@nampk.com



남양주문화원 천마산 산신제 개최

4월 5일 천마산 관리사무소, 덕면에서, 곡지도 남순

2011년 03월 03일 (목) 10:50:07

송현근 기자 songhyun@nampk.com



85주기 유릉기신제 봉행

남양주순화원, 금곡동 유릉에서 25일 12시에

2011년 08월 25일 7월 26일 09:21

남양주지역신문 www.gyeonggi.com



14기 남양주 향토순례단 모집

남양주 순화·관광 환경에 병영채리까지 3일간

2011년 08월 09일 (화) 14:49:21

남양주지역신문 www.gyeonggi.com

남양주순화원(원장 이윤복)에서는 우리고장의 청소년들에게 남양주의 다양한 문화재와 문화 관광자원, 자연환경답사 및 병영채리까지 해볼 수 있는 제14기 남양주향토순례단을 모집한다.

2011년 제14기 남양주시 향토순례단은 8월 9일 오전 9시 삼패한강시민공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2박3일 일정에 돌입한다.

남양주순화원이 주관하고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향토순례단 활동에는 관내 남녀 초등 4학년~6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향토순례단은 먼저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삼패한강시민공원에서 역사박물관까지 도보행군 후 팔달담, 다산유적지, 실학박물관을 버스로 답사한다. 이날 이간에는 협버섯트레이닝, 레크레이션이 진행된다.

이어 10일에는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자연사박물관, 광릉수목원, 영굴문화촌을 돌아보고, 순수건물물들이기체험, 문공민속예술품연, 전통마살소 등 다채로운 체험 및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여 백

정기총회 회의록



제29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03년 1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 문화원

□ 성원보고

○ 사무국장 : 총원 47명 중 참석 27명, 위임 2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개회선언

○ 의장 : 지금부터 남양주문화원 제29차 정기총회 개최한다고 선언한다.

□ 국민의례:

□ 의장인사:

○ 의장: 남양주시 문화가족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게 되서 반갑습니다. 윗말한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화원 총회를 축하해 주시길 위해 전국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김태훈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정 문화관광과 문영훈 과장님과 이운모 팀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정 총무과장을 시내시고 남양주강학회 살림을 맡아보시는 한영주 작문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회심자사 회장에 취임하신 이용복이사님 불교명승께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무구스님 여러분 임원님 대의위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문화원 회의는 기간상 초청 없이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조촐하게 갖고 있음을 양치하시고 만나 뵈게 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한해 문화창단을 위해 가계리층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큰 성과는 갑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한해 문화 창단을 위해 다계리층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큰 성과는 없으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이 험없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주셨는데 원상인 제가 부족한 점도 많고 선기마음이 불

매마다 감명을 갖는 바람에 현장의 본연의 역할이 소홀했던 김 석중스님
께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라며 재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
으로 행사 매마다 열심히 청진과 집회를 해주시면 개신하는 재가로 삼겠
다고 인사하다

□ 전차회의록 접수

- 사무국장 : 28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하다
- 이철수 대의원: 유인물을 검토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접수함을 동의하다.
- 이상희 대의원 : 재청한다고 하다.
- 재의원 모두 : 찬성하다.
- 의장 : 이의를 묻고 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접수함을 권유하다.

□ 감사보고

- 변태윤 감사: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결산 감사보고를 하다.
- 과년도 회계 및 사업성과는 예년에 비해 잘 되었으며 임원 및 회원님들
이 각종 순화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 집행부가 공로를 감화하길 노
력하라며, 신년에는 사무국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임비 및 특별회비를
청빙시 중에 미리미리 납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감사소견을 밝히다.

[의안심의]

○제1호 의안. 2002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제1호 의안 2002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 승인의 건을 청정하다.
- 사무국장: 유인물에 의해 자료 설명하다.
- 의장: 지난 이사회에서 금년도 예·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사항으로
답사를 거쳐 유인물로 나왔으며, 착후에러도 지적해주시면 경청하여 고
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주문하다.
- 초회원 대의원: 어의 없으며 사무국에서 고생 많이 하었다고 하며 동의하다.
- 재의원 모두 동의하다.

○의장: 사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대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므로 1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하다.

제 2호 의안 2003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제2호 의안 2003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수·지 예산(안) 확정 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 유인봉에 의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낭독하며 설명하다.

보충금 명동이 없으므로 사업예산에 명동이 없다고 설명하다.

○의장: 2003년도 세입·세출 내용이 잘 짜여졌으니 자료를 잘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과분해 달라고 하다.

○의장: 찬사 후, 의결사항이 있으면 권의 주석과 바라며 원안대로 과를 처리하고 주문하다.

○출원하대의원: 이의 없으며 수정된 원안대로 동의한다고 하다.

○의장수대의원: 재청한다고 하다 - 대의원 모두 박수로 동의하다

○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 의안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하다.

제3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의장: 제3호 의안 임원선출의 건을 상정하다.

번차 차기 임원권 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을 추광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원하대의원 : 임중오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회의진행에 정현이 많으시고 원만하게 진행해주실 것 같습니다.

- 대의원 모두 박수로 동의하다

○임중오대의원: 임시의장을 받은 임중오 이사입니다. 어려운 자리를 맡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인사하다.

○임시의장: 금번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원정 한 분과 부원장 두 분감사 두분을 포함한 이사진(27명 이내) 구원안입니다.

지난 1999년도 임원선출에 관한 관례를 따라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서 임원(원장)선출에 대한 일후보 등록을 받기로 결정하고 모든 대의원님들에게 일후보등록서를 송부하여 보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남양주분회원장직에 조원근 현 원장님이 단독 임후보 하였음을 강문을 통해 박수로 추대하는 것이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서수나 비밀투표로 신뢰를 묻는다는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하다.

○김영수대의원: 박수로 추대하자고 동의하다

○조혜진대의원: 재청한다고 하다

○임시의장: 다른 의견이 없이 박수로 추대하자는 의견에 따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시의장: 다음은 부원장 두 분을 선출하는(안)입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대의원: 현 원장님이 재임하는 것이므로 부원장님들도 연임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이사전도 원장 단에 위임하겠다고 하다

○임시의장: 다른 의견을 물으며 의견이 없으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다
- 대의원 모두 박수로 동의하다

○임시의장: 대의원들의 동의로 두 분 부원장님들도 연임하는 것을 동의해주셨고 나머지 이사전의 구성은 원장단에 위임하기로 신평하다.

다음은 감사 두 분 선출의 건입니다. 감사직 선출은 위임할 수 없고 총회 선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감사직에 대해 차천이나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창수대의원: 그동안 변태용 감사님과 유금희 감사님께서 분화위를 위해 애가 많이 잘 해주셨으므로 연임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정 해주셨으므로 연임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임병규대의원: 재청합니다.

○임시의장: 다른 의견을 묻다

○민경조대의원: 유금희 감사님이 지금 자리에 안 제신데 회의에서 위임하듯이 선출할 수 없다고 되어 김영수이사를 감사로 추천한다고 하다

○임시의장: 대의원들의 동의를 묻다

○이창희대의원: 김영수이사님이 어떤 분이냐고 질문하다

○조원근원장: 김영수이사에 대하여 지합장년장과 시의원 등을 맡아 지역 문화 예술에 활동이 많으신 이사님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다

○김영수대의원: 작년에도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하게 참석하지 못했는데 개인적 진상 다음기회에 하겠으며 추천을 철회해 달라고 하다.

- 조원근위원장 : 사리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바쁘시고 난 이사님이 회회해 주시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사정당 한창하지 못한 유급의 감사님을 같이 모차고 갈 수 있도록해 달라고 동의를 구하다
 - 민경조대의원 : 김영수이사님에 대한 감사 추천을 회회하다
 - 김영수대의원 : 힘 두 분 감사님을 다시 추천하는데 이의 없이 동의한다고 바다
 - 임시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힘 두 분 감사님이 다시 선출되어 슈임의들을 온 전포합니다 그러면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개신하신 문화원장님의 당선의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시의장을 마치고 다시 의장사를 전 문화원장님께 넘기고자 한다고 한다.
 - 의장: 새로운 4년 동안 두 분 부원장님과 함께 여러분과 협조를 얻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다 세분이 대의원 모두에게 인사하다
 - 대의원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하다.
 - 의정: 두 분 부원장님과 감사님의 말씀을 들치고 하다
 - 최종원부원장: 앞으로 4년 동안 문화원에서는 문화적으로 한 일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의관, 향토사료관 건립 등에 각종 현안 문화 사업을 앞두고 원정단을 유인시켜 추진 것을 열심히 일하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고 관계기관 및 회원들과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다
 - 우영숙부원장: 최전을 다해서 다른 단체보다 문화원 하구부터 더 정다갑하고 막개의 젊은 이들에게 볼보기가 되게 좋은 그림을 그리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이리분 협조해 달라고 한다
 - 면태용감사: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
 - 의장: 다른 의견을 본다
 - 의장: 기타사항은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자고 하며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동의를 구하다.
 - 모두 찬성하다
 - 의장 : 폐회를 선언하다
- 폐회시간:12시 20분
 기록:최상인 사무국장

제32차 정기 총회 회의록

○일시 : 2006년 2월 15일 오전10시00분

○장소 : 문화위 회의실

○성원보고

○사무국장 : 총회 37명 중 참석자 19명, 위임 5명으로 결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개회선언

○의장 : 지금부터 남양주문화원 제32차 정기총회 개최한다고 선언하다.

○국민의례:

○의장인사:

○의장 : 남양주시 문화가족 여러분 건강할 모습으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요즘 다른 행사로 바쁘시고 바쁜한 달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양주 문화위의 산증인이신 역대문화원장님이신 이기영원장님 구공서교문님 권인수교문님 감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문화원달에 동참해주시는 대의원님 교문님 치원스님 자문위원님 남양주의 향토문화에 더욱 힘쓰시는 위병규어사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여기저기 조사 다니시느라 수고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 분야에서 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다 이번 초오회는 별다른 사항은 없음을 알하고 4년도 결산보고서 및 급부도 예산승인안건을 가지고 회의하신다고 하시며 두서없이 말씀드렸다고 하다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라며 대의원 여러분 건강할 모습으로 행사 때마다 열심히 실천과 질책을 해주시면 감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인사하다

○전차회의록 접수

○사무국장 : 31차 정기총회 회의록 당분간

- 이철수대의원 : 유인물을 검토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협수함을 동의하다.
- 장연희대의원 : 재청한다고 하다.
- 대의원 모두 : 찬성하다
- 의장 : 이의를 불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수함을 선포하다.

㉔ 감사보고

- 김희성 감사 : 유인물에 의해 2005년도 결산 감사보고를 하다.
과년도 회계 및 사업성가는 예년에 비해 잘 되었으며 사무국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소견을 밝히다.

[의안심의]

㉕ 제1호 의안,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 제1호 의안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 : 유인물에 의해 자료 설명하다.
- 의장 : 지난 이사회에서 금년도 세·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가진 사항으로 감사관 거쳐 유인물로 나왔으며, 차주에라도 사위해주시길 강력하여 고결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원안대로 승인에 달라고 주문하다.
- 김영수 대의원 : 이의 없다고 하며 동의하다
- 김진성 대의원 : 재청한다고 하다.
- 대의원 모두 동의하다
- 의장 : 사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대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하다

㉖ 제2호 의안, 2006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 : 제2호 의안 2006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수·지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 : 유인물에 의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낭독하여 설명하다.
- 의장 : 2005년도 사업·재정 운용의 함박밭으로 재재하게 되고 했는데 이의차분

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드리어 하는데 당일 때부해 드리고 기부이천
을 결정하시기 어렵더라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성형화된 계속사업이므로
차료를 잘 검토해 보시고 궁극한 사항은 질문해 달라고 하다

- 엄중오 대의원 : 작년유망구입내용에 대해 묻다.
- 사무국장 : 지난 이사회때 보고했다고 하다 다음이사회에 다시 보고 한다고 하
다.
- 안병규 대의원 : 2005년도 향토사료발간에 대하여 묻다 사총과총원이장수라는
내용에서 사총까지는 괜찮은데 총원은 논란의 요지가 많은데 미리 의논
했지 하지 않았느냐고 묻다 극단적인 친일파인에 문화원에서 발간해야하
는지 한 번씩 걸러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하다.
- 의 장 :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차료발간에 참고하도록 하고 요번발간은
향토사료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민경조이사님이 이의 청리되지 않은 친일행
위 동기 중 심도 있게 한번쯤 다루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번 학술
발간했을 것이라고 하다
- 구중서 고문님 : 문화원 32년 전 설립하면서 다산문화재 동구문화재 대은문화
재까지, 시작은 좋은 걸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사학가들이 나와서 대은
문화재등이 중단되었다 향토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으니 의논에서 하
시면 좋겠다고 하다.
- 의 장 : 잠시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의 주시가 바카며 위원대로 기쁜 바란
다고 수분하다.
- 김진상대의원 : 이의 없으며 위원대로 동의한다고 하다 .
- 김영수대의원 : 재청한다고 하다
- 구중서고문님 : 삼청한다고 하다
- 대의원 모두 박수로 동의하다
- 의 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 의안 위원대로 통과됨을 선포하다.

기타사항

○특별회계 2006년도 향토사료관운영 안

- 의 장 : 항상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향토사료관 관장님 애로사항이 많겠다고 하

다.

○ 사무국장 : 2005년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향토사료관 관장님 감사하다고 하
다.

○ 임병규대의원 : 향토사료관 관장으로 현장에서 일하며 예로사항이 많은데 어
떻게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자 감사합니다. 사관에서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발간하고 싶은 자료가 많은데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자료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차량지원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
급까지 한 문도 없다고 하다. 우리 남양주시는 너무 다산정약용에 배알려
있다고 하고 얼마전 후산도 향약전설생님의 자료조사자 다니었는데 가난
한 동네에서도 문화 사업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다 강진
도 다니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라고 하다 시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게 꽤 예산을 주시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다 다른 시는 예산이 되는 예산
이 남양주시만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다 향토사료관도 상반기에 현
제가 들어가면 가을에는 설립에 들어갈 것 있다고 하다 문을 닫고 공
사를 할지 기념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다 타
른 사람이 향토사료관에 오더라도 예산 확립에 힘써달라고 하고 문화원
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다 남은 것은 제방에 없다고도 하다.

○ 의 장 : 사료관장으로 운영참여하며 예로사항 및 개인사항 등 향토학자로서
이취운침 등을 받음에 주셨다 더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다 좋은 자료 많이 가지고 개인에 노력해서 세
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 원종우대의원 : 지난한 탓인지 다른 문화원에는 기금들이 있던데 어떻게 조성
되었는지 보른다. 40-50만이 되는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다른 시의 자료
를 받아보던지 그런 대책을 세워 문화기금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해보려고 하다

○ 사무국장 : 배후기금은 마련되었습니다. 문화기금은 아직 조해할 안들이 많았
다고 하다.

○ 김영수대의원 : 2004년도 문화기금에 대한 결의를 한 적이 있다. 아직 시지창
조라는 답변을 받은 적 있다 우리시의 입장이 조금 그런 상태라고 하다
향토사료관 건립전도 요번에 액자로 삼아남은 상태라고 하다 문화예술
회관이 없는 시도 우리시 뿐일 것라고 하다

○ 의 장 : 현장에서 애원하신 말씀 감사하다고 하다 아직 지나 못나 바쁘셔서

예산책정이나 문화예산을 우선순위에 서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역사가 아직 얼마 안 되고 빠른 시일에 안구가 들어서 아직 문화 복지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자위한다. 다른 시와 비교하면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고 하고 이제라도 세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향토문화발굴에 매진하자고 하다.

아직 얼마 안 되고 빠른 시일에 안구가 들어서 아직 문화 복지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자위한다. 다른 시와 비교하면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고 이제라도 세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향토문화발굴에 매진하자고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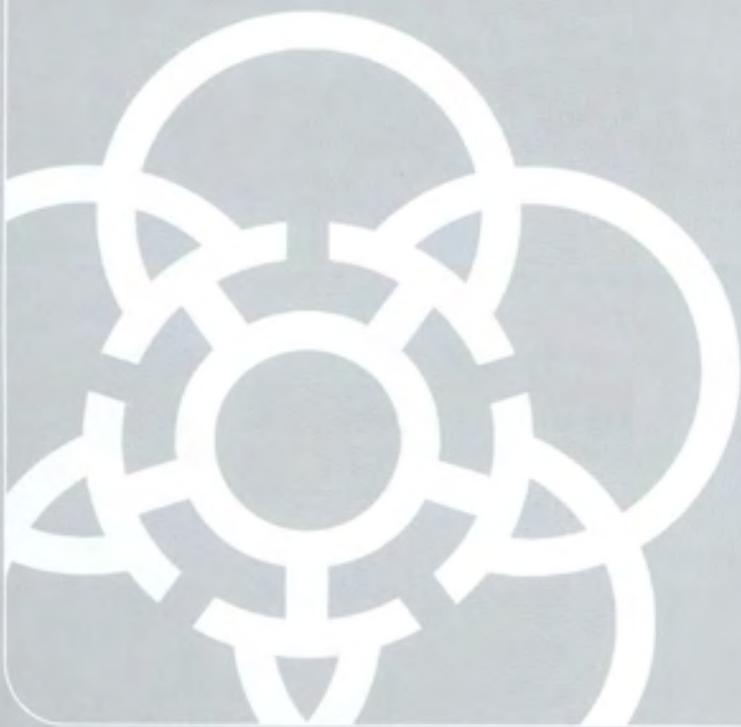
- 구종서고문님 : 임관장님, 김영수이사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문화원자체로는 어렵다 거시인적으로 움직여야한다 우선시를 움직이는 시장의 뜻이 있어야 하며 초대를 만들어서 청탁금지법조정이 필요한데 책임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발언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자고 하다
- 원중오대의원 : 돈이 문제이나 각 시 문화원에 기금조례를 수립해서 근거를 가지고 시에 문의해 보자고 하다
- 의 장 : 2002년에 기금마련에 대하여 자료수집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다. 그때서 체육기금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하다
- 구종서고문님 : 시 소회의실에 시장 감담회를 추진해보자고 하다
- 원중오대의원 : 올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하다
- 의 장 :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자고 하다
- 의 장 : 배회를 원한다

매회시간 : 11시57분

기 록 : 최상인서부국장

여 백

이사회 회익록



2011년도 11월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1년 11월 30일(금) 오후 6시

장 소 : 문화원 회의실

□ 성원보고

○ 사무국장: 총회 87명중 18명 참석 하였음을 보고하다.

□ 개회선언

○ 의 장 : 지금부터 2011년 남양주분화원 제33월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국민의례:

□ 의장인사

○ 의 장 : 안녕하십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벌써 2011년이 총정리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한해는 유난히도 긴 장미비와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 많은 경제적 재산 피해를 많이 입힌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양주분화원 이사님들이나 가족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금년한해를 무사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 2011년도는 남양주분화원과 장전분화원이 서로 상호교류 방문을 통해서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한 한해인 것 같습니다. 9월30일-10월 1일에는 잠전분화원 38명의 회원님들이 남양주분화원을 방문하여 남양주의 유채시 및 새생유채농대 회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호적인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사님들과 문화회원들의 많은 참여로 좋은 결실을 맺은 한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는 140여 명의 문화회원이 새로운 문화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 2월중에 남양주분화원 창립30주년 기념행사 및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를 함께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양주분화원이 3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한 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사, 감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따라가서 남양주분화원의 앞

- 남의 발전과 이사, 감사님들의 무한한 발전과 행운을 바란다하다.
- 사무국장 : 회의 자료에 의해 경과 보고하다.

[의안심의]

○제1호 의안. 남양주문화원 사무실변경(감의실) 사용의 건

- 의 장 : 남양주문화원 사무실변경(감의실) 사용의 건을 심의하다.
- 사무국장 : 회의 자료에 의해 보고하다.
- 의 장 : 보증실명을 드리면 장투연구소에 같이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를 현재 사무국 뒤편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서 문화교실을 열 계획입니다. 모빌렉 옮기는 비용하고 의사, 책상 구입비로 해서 600만원과 문화교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급급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다. ○김원권이사 : 서고를 문화원사무실로 옮기면 사실상 사무실이 작아지는데 의무 사람이 오면 설재할 곳이 있나 하다.
- 의 장 : 원장실을 적극 활용해서 최대장소로 활용한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 시켜도 되는지 묻나. -없다고 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제2호 의안. 남양주문화원 결원이사 확충의 건 (2012년)

- 의 장 : 남양주문화원 결원이사 확충의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 : 회의 자료에 의해 보고하다.
- 의 장 :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원 이사는 회의 참석의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화원이사를 모집 때 문화행사 참여, 문화회원모집 등 문화원의 많은 관심이 있는 분을 이사로 영입했으면 합니다. 4년 8월 이사회때 3분의 이사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사회에서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모집수가 없어서 2012년도 1월 달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3월 총회 때 이사로 보충생각입니다. 1월 이사회 전까지 3분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문화원을 보면

4~5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원장님들이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31년차로 들어가 고 새로운 출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이사님들도 중위가 되고 부원장님도 기획예산분과, 대외협력분과, 광도연사분과, 홍보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를 운영해서 남양주분회원 운영체계를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달라 하단.

-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시켜도 되겠지 않나.
-동의하다.
- 의 장: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진점문화의집 보고의 건

- 의 장 : 진점문화의집 보고의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 : 진점문화의집 보고의 건은 문화의집 조미자위원장님 보고해 달라 하다.
- 조미자위원장 : 회의 자료에 의해 보고하다.
- 의 장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하단.
- 윤기주이사 : 요즘에는 각 자치센터나 농협, 심지어 마트에서까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점같은 경우에도 진점농협, 주민센터, 문화의집 각 기관에서 문화교실을 하면서 서로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아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의 다른 단체와 겹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하겠다고 하단.
- 조미자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질문을 받는 부분이고 지금 그 이후에 농협, 자치센터, 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곳들이 많아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복합문화공간의 의미고 주말에도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시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강좌가 많아 보이지만 그만큼 진점의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단.
- 의 장 : 시에서도 가끔적이면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나, 농협, 마트에서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단.

- 이모공무원장 : 주민센터, 농협에서도 문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복되는 것이 있고 없고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수요가 필요하면 10개, 30개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개발이 되면 더 좋겠지만 중복되는 프로그램 많지라도 문화의집에서 하는 교육이 내실 있고 질적으로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우리가 뒷받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하다.
- 윤기수이사 : 키리상 별책도 않은 곳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강좌를 동시에 이루어 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하다.
- 의 장 :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의집이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각 강좌마다 지분집수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인원이 비탈되었을 경우에는 배강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수이사가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화의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강의 내용을 바꿔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조원장님 좋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고 하다.
- 김원권이사 : 전점문화의집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시설에 비해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하다.
- 의 장 : 전점문화의집 전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옮기거나 탄 해로 옮기고 건물을 철거해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의 의견을 시에서 쉽게 받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장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심득과 노력을 해야 겠다고 하다.
- 김영수부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점읍사무소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도나 와부보다 더 깨끗한 읍사무소 지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나 이사를 갈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재미 위주보다는 점동산과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다.
- 의 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의 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다.

◎ 기타 안건, 12월 송년회 개최일정 협의의 건

- 의 장 : 정서 안건은 아니고 12월 송년회를 맞이해서 올해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보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40~50명 정도 가족과 같이 회합의 자리를 마련했다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은 1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밀정부분은 원장님 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이보궁부원장 : 분화원에 수년 동안 활동을 해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올해 이사분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재가 와서 느낀 것은 기존에 있던 이사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기존이사님들이 참석이 어려운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며칠 전 경기도분화원 연수가 있었을 때도 이사님들이 그런 기려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화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새로 이사로 들어오실 분들이 꼭 한번은 가서 재가 들어올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분화원의 실적과 가지고 얘기 하는 것보다 타 분화원과 비교도 해보고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송년회 모임을 생각하시고 제신에 저의 이사를 간에도 부담 없이 일과 빈한 사이가 되었을 때 가족동반에 의미가 있지 시로가 서로를 보려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있다고 볼이나, 저도 부원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의 때만 와서 얼굴을 보고 하다 보니 아직까지 이름도 모르는 이사님들이 세십니다. 가족동반은 내년이라도 저희가 된다면 그때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동이사 : 부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가 안면들은 있지만 심함도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같은 회의에 참석인원이 파악이 된다면 일회용 명패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얼굴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12월하면 각종 송년모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원장님이나 사부장님의 취지는 이사, 임원들이 송년회를 통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시는 것 같으신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참석여부가 30프로는 되었을 때 행사를 갖는 취지나 뜻이 상사되지 않나 싶습니다. 30프로 이상 참석이 되지 않으면 의도한대로의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나 싶다고 하다.

- 이명숙이사 : 문화원 행사에 참여는 많이 하시지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같은 문화원 행사에 참석 안하시는 분들이 꼭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 행사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 그 분께는 바로 해질필 것 이라고 생각한답니다.
- 김영수이사 : 서로 잘하자, 열심히 하자 발전적인 발전을 하신 거니까 바들 하 해해 주시고 오늘은 안건은 정리가 다 되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 는 게 좋겠다고 하다.

◇ 기타 안건. 정기총회 및 30년사 출판기념 문화행사 위원회 구성의 건

- 의 장 :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지만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11월 19일 날 기념행사겸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같이 하려 고 했지만 의견을 못 뵈고, 제 생각에는 다시 구성을 해서 30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회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바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새로 위원회를 선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의 장 : 여러분께서 추천이 없으면 제가 추천을 해도 되는지 묻다.
- 김영수이사 : 동의 한다고 하다.
- 의 장 : 추진위원장은 이보금부원장님, 김영수부원장님, 임무영이사님, 정명 동이사님, 손희원감사님 이렇게 다섯 분을 추천한다고 하다.
-박수로 동의하다.
- 의 장 : 이렇게 다섯 분이 추진위원회로 선출 되었다고 하다.
- 사무국장 : 공지사항을 보고하다.
- 사무국장 : 다음은 지난 경기도문화원 합동연수에 참석하셨던 임무영 이사님께 서 참석하신 소감을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다.
- 임무영이사 : 발표 하다.
- 의장 :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0시 20분

기록 : 총무팀장

확인 : 사무국장

남양주문학원 3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문원하 이사
편찬위원	최상민 이사 김원권 이사 이경미 이사 김현준 이사 엄종오 자문위원
자료수집	강대돈 사무국장 장인정 총무팀장

南揚州文化院三十年史

발행인 이 동 북 문화원장
발행처 남양주문화원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4-5번지
전 화 031)592-0667
팩 스 031)592-0668
발행일 2012. 2

기획인쇄 상민문화사

이 책은 남양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一欲陰壞

怪孟子子分別

反

曰許子必種粟而後食

後衣乎曰否許子衣褐

曰冠素曰自織之與